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曺 点 煥

敎會 敎育의 變遷과 그 特性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Evolution of Church Educ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１９９８年 ２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敎 育 行 政 學 科
敎 育 行 政 專 攻
朴 榮 泰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曺 点 煥

敎會 敎育의 變遷과 그 特性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Evolution of Church Educ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위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2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敎 育 行 政 學 科
敎 育 行 政 專 攻
朴 榮 泰

朴榮泰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1997年 2 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目 次

Ⅰ. 緖 論 1

1.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1

2. 硏究의 內容및 方法 2

3. 用語의 定義 3

Ⅱ. 敎會 敎育의 成立 背景 4

1. 敎會 敎育의 成立 背景 4

2. 敎會 敎育의 性格 13

3. 先行 硏究의 考察 17

Ⅲ. 敎會 敎育의 變遷 20

1. 古代의 敎會 敎育 20

2. 中世의 敎會 敎育 64

3. 近世의 敎會 敎育 78

4. 現代의 敎會 敎育 94

Ⅳ. 敎會敎育의 目的· 內容· 方法· 特性· 經營管理 104

1. 敎會 敎育의 目的 104

2. 敎會 敎育의 內容 105

3. 敎會 敎育의 方法 108

4. 敎會 敎育의 特性 109
5. 敎會 敎育의 經營 管理 115

V. 要約 과 結論 120
1.要 約 120
2. 結 論 122
3. 提言 122

參考文獻 124

Abstract 127

I. 緖 論

1.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새로운 21세기의 新 사회를 목전에 두고 현재 세계각국은 범 국가적으로 사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화와 개방화 그리고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지구촌 사회을 건설하고자 인류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고, 인간의 정신문명은 어떻게 변화할지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미래교회는 미래적 비젼을 가지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교회교육은 일반교육과 마찬가지로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교회 교육방법으로는 21세기의 미래사회에 살아남을수 없기 때문이고, 새로운 교회교육 역사의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회교육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교회의 교육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역사적인 교육적 문화 유산들을 탐색하고, 미래가 원하는 교회 교육의 역사를 규명해 보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의 변천과 그 특성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특수한 교육적 문화유산들을 과거와 현재의 관계속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미래적 발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의 관점에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발전해 오면서 그 전통적인 교육적 문화유산의 무엇인가? 기독교의 전통속에 발전해 온 교육적 유산속에서 교회 교육의 흐름과 시사점 및 그 영향력 등을 살펴보고 미래적 교훈을 얻고자 한다. 또 교회 교육이 성경에 의하면 최초로 아담의 가정에서 시작하여, 그 교육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이 되었고, 이 민족의 종교적· 도덕

적인 교육적 문화 유산이 초대 교회에 계승되어 예수와 사도들과 교부들에 의해 초대 교회의 교육적 문화유산이 형성 되었는데 중세 교회가 그 교육적 문화유산들을 전수 받아 이를 성장 발전시켜 근세 교회에게 영향을 주고, 근세 교회는 이를 현대 교회에 전수하여 오늘의 세계적 기독교로 형성되게 했는데, 여기서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흐름과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 교육의 정체성을 바로보고 건전한 교육의 미래적 진로즉 현재를 평가 · 반성하여 미래적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특성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교육의 역사를 고대와 중세와 근세와 현대의 순으로 구분하여 교회교육의 성립배경과 성격의 목적은 무엇인가.

둘째, 교회교육이 변천과정을 통해 발전해온 교육적 유산들은 어떤목적으로 발전되어 왔는가.

셋째, 교회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특성과 경영 관리는 무엇인가.

넷째, 교회 교육의 역사를 탐색하고 합리적인 미래적 새로운 교육상을 도출한다.

2. 硏究의 內容및 方法

1) 硏究의 內容

첫째, 교회 교육을 고대와 중세와 근세와 현대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그 배경과 성격등을 관찰한다.

둘째, 교회 교육의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구분, 연구 분석 한다.

셋째, 교회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및 특성과 경영 관리를 탐색한다

넷째, 교회 교육의 역사를 분석, 합리적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

2) 硏究의 方法

교회 교육의 변천과 그 특성들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 수집과 연구자의 실제 교회 교육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의제에 합당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3. 用語의 定義

본 연구 논문 전체에 걸쳐 사용된 용어들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세속주의

영어로 secularism인데 기독교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인간의 의지만을 강조하는 사상인바, 오늘날은 不信仰· 非宗敎를 의미하므로, 세속적 교육의 견해들을 평가할 때 세속(worldliness)과 세속적(secular)및 세속화(secularization)로 쓰기도 하고, 세속화는 다양한 의미로도 사용하였다.

2) 기독교적

오늘날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크리스천'(christian)이라는 용어로 '그리스도人'(행11:26)이란 뜻인데, 신약에 3회 쓰였다(행11:26,26:28,벧전4:16). 본 연구 논문에서는 성서적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와 크리스천과 교회에 집중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3) 복음주의

영어로 evangelism, evangelicalism인데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 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즉 프로테스탄트的 신앙, 보수주의 입장, 생활과 체험을 강조, 영적 부흥 운동 정신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복음주의적(evangelical)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말씀에 충실함 때문에 접근적 방법에 비평적 방법론을 제공한다

II. 敎會 敎育의 成立 背景

1. 敎會 敎育의 成立 背景

교회 교육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통과 기독교의 역사속에 형성되어온 교육 공동체의 문화와 도덕적 유산을 그 배경으로 한다.그러므로 여기서는 먼저 옛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시대적· 사회적·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고찰하여 도움을 얻은다음 교회 교육의 성립의 배경을 논의 하고자 한다.

히브리 민족이 셋의 후손인 셈족으로 인류 문명사에 등장한 시기는 대략 BC 4000-3000년으로, BC 1150년경 가나안을 점령· 반 유목민· 반 농경 생활로 성을 쌓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의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초기는 여러 지파로 분리· 독립(삿8:16), 첫번째 왕으로 베냐민 지파 '사울'이(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지도력이 빈약한 인물로 통치했다 (BC1030-1010).

두번째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다 지파 다윗왕의 등장은 지도력이 출중하고 총명하여 초기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단일 왕국을 세워 조정은 철저히 체계화하고, 민족의 대성전 건립등 역사상 대 업적을 남겨 약 300년간을 유지(다윗의 통치 기간은 BC 1010-973년)했다.

BC 973년 아들 솔로몬은 왕위를 계승, 혹독한 전제 군주 왕권 통치로 사치와 축재(蓄財)를 일삼아 40년을 집권하였다. 그후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단되어 두왕국은 약200년(BC.933-723)의 역사를 갖게 되나, 이스라엘은 앗시리아의 식민지로(BC.727-705) 멸망한다.[1)]

히브리인의 역사와 사회제도는 초기 유목 생활부터 팔레스틴에 정착한

---

1)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0년 1월호), pp. 78-81.

이후 풍토와 환경에 관습이 형성, 이상과 운명은 위치와 특성에 따라 결정되었고 토박한 경작 지역은 지정학적 조건으로 고대로 부터 전쟁터가 되었다. 외국인들과 잦은 접촉으로 유리한 점도 많았으나 국가적 위기도 많아 배타적 민족주의와 도덕 및 종교적 이상과 실천으로 유대주의가 출현, 예언자들의 신앙과 종교적 순수성 및 편협성과 배타성이 형성되고 특유의 종교적 유산이 형성되어 고차원적 신앙 개념들로 발전· 원시 히브리 종교의 유일신 신앙으로 발전했다.

BC 621년 요시야王은 새로 발견한 '율법의 책'(Book of Instruction)을 종교와 사회 개혁의 근거로 新 규칙에 의거 개혁을 단행했다. 초기 신앙에서 야훼는 인간같이 행동(출4:24,요나4:11),예언자들의 야훼 사상은 고도의 윤리적 신앙의 개념으로 발전, 사랑과 용서의 神이요 인간의 보편적 父性을 지닌 분으로 인간의 형제애 의무를 강조했다. 야훼만이 모든 인간의 神으로 우주의 도덕적 통치자이시며 완전 절대적 義로운神이시기 때문에 공평은 義에 기초하고, 예배자들은 義와 성결과 거룩한 생활로 표현되어야 하며, 예언자적 신앙은 도덕적 신앙과 영적생활 신앙으로 히브리인의 후기 사상에 해당된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신앙 발달 과정은 초기 원시 지파들의 야훼 신앙의 잔인성(삼하 21:1-11), 후기의 복종과 화해와 고난속의 신앙(사53:1-12)으로 예언자적 신앙인바, 종교적 천재성의 최고 성숙한 신앙 형태로 발전되어 정치적· 외세적 취약성과 종교적 궁극적 관심· 유일신 신앙으로 발전한다.[2)]

유대 교육은 유다가 BC 933년 분단된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대 민족이 흩어지는데, 분단 시대부터 포로 시대까지 '애굽· 앗시리아· 기타 외국'에 조공으로 명맥을 유지했으나, BC 586 - AD 63년까지 제외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등의 지배 밑에 있었다.[3)] 이러한 유대민족에 대한 외세의 지배는 바벨론 포로시대(B C.586-539)부터인데, BC

---

2) 상게서, pp. 82-84.
3) 상게서, pp. 81-82.

597년 '느부갓네살'王의 수도 예루살렘 함락에 ' 여호야긴'王등 수천 명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 특별한 자유를 누린다(겔8:1,10:1,에레미야書) 그러나 '애굽 유다 공동체와 바벨론 유대 공동체'를 형성, 유대교로 발전시켜 유대사상과 신앙을 형성하고, 율법을 탐구하여 바벨론의 선진문화를 수용, 경전과 법률을 편찬하고, BC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王의 바벨론 점령으로 48년만에 막을내려 '페르시아 시대'가 열린다.(BC 539-332) 이 시대는 예루살렘 유대인 공동체가 회복되고 성전재건(BC.520-516)을 계기로 종교교육이 성립되었다.(에스라1:2-4,4:4,왕하25:12)[4]

헬라 시대(BC.332-167)의 팔레스틴은 BC 332년 알렉산더 大王의 점령과 그의 사후에 인접국들의 분쟁지가 되어 BC 320-120년까지 애굽과 시리아의 지배를 받았고, BC 167년 '마카비'(Maccabean)혁명으로 끝을 맺는데, 헬라화는 계속되어 애굽과 시리아는 유대인의 회복과 헬라화를 못마땅해 유대 종교와 문화및 제도· 교육 등을 말살한다. 그러나 마카비 시대(BC. 167-AD.63)가 열림으로 회복되고, 독립을 쟁취하나 로마에게 멸망 당함(AD.63-70)으로 유대 민족은 20세기 전반기까지 국적불명의 '디아스포라'(Diaspora)로 많은 비극을 안고 살아왔다.[5]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역사적· 사회적 전통을 배경으로 교회 교육은 한 신자가 신앙 공동체의 교육적 문화유산에 동화되어 가는 평생 과정이라 할때, 이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도덕적 유산을 배경으로 한다. 그럼 교회 교육은 어떻게 하여 성립되어 발전하여 왔는가? 그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교육 공동체로서의 자각 속에 야훼 종교를 이방 우상 종교로부터 독립시키고 백성들의 내면적 종교생활을 위해 히브리인의 종교적 특색과 전통을 에언자의 윤리적 교훈에 기초, '율법책'으로 정치· 경제· 종교개혁을 단

---

4) Martin North, The History of Israel, p. 308. (기독교 교육 1990년 4월호, p.73)
5) 전게서 4월호, pp. 72-74.

행, 유대교의 기초와 구전을 통한 가정중심의 히브리인 종교교육이성립되었다.[6] 유대인들은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히브리의 전통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자각하고 오랜 '디아스포라'의 생활속에 국가의식과 유대교의 신앙적 전통을 유지, 율법에 기초한 고대 유대교 교육을 성립시켰다.[7] 이러한 히브리 시대와 유대교적 전통은 초대교회에 계승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가르침속에 초기 교회적 교육의 성립을 형성하게 된다.[8]

초대 교회는 희랍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終末思想을 가진 新 이스라엘적 교육 공동체'라 해야 한다.[9] 우리는 예수의 교육철학을 敎育學· 敎育心理學· 敎育社會學에서 최근의 발전에 비춰 검증 될만하며 신약성경의 敎育原理는 '목적과 목표를 갖고 교육자요 지도자이신 예수'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10]

BC 1세기의 사도 시대의 교육은 예수에 의해 훈련되고 선택된 일군(눅 1:2)과 증인(행10:41)들로 카리스마적 및 섬기는 직분을 가진자 들인바[11] 오순절을 중심(행2:14-42)으로 예수의 구주 되심과 구약 예언을 성취(행 5:42)·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구약 성경으로 예수와 동일한 교수법으로 가르쳤는데, 무엇보다 이 시대의 탁월한 교사인 '사도바울'은 대표적인 사역자로 글로 남긴 최상의 眞理와 가르침은 예수 다음으로 인간에게 영향력을 끼쳤다.[12] 로마의 기독교화와 이방인의 신자화는 기독교 교육을 제도화하게 되어 '초신자 세례준비 학교'(Catechumenal School, AD.1C-450년까

---

6)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0년 2월호), p. 83.
7) 상게서 4월호, pp. 74-75.
8) 상게서 11월호, pp. 64-70.
9)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5년 9월호), pp. 30-34.
10)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stian Education : Its History and Philosophy, (Chicago : Moody Press 1983), pp. 66-73.
11)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88년 4월호), pp. 41-45.
12)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 Moody Press 1964), pp.81-84.

지 유지)를 설립, 남녀노소 초신자 세례준비생은 가리지 않고 입학하여 교육을 받았다.[13] 차츰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성직자의 양성이 필요하게 되어 '교리문답 학교'(Catechetical school,2C말엽-3C초 시작 7C까지 유지)가 출현, 유명한 교부들을 배출하여 초대 교회 교육을 발전시켰으나 나중에 '감독학교, 성당학교'로 변천, 고차원적 문화 수준의 유지속에 교육은 변질되고 교리들은 왜곡되어'수도원 학교'(Monastic Schools)탄생으로 사라진다.[14]

다음으로 중세시대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먼저 살피고 중세 교회 교육의 성립 배경을 논의하기로 한다. AD 476년 중세 시대는 西로마가 게르만 민족에게 멸망하나 東로마 제국은 이를 막아 희랍 정교회를 세우고, AD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 멸망할 때까지 '로마 大法典'을 편찬'비잔틴 문화'를 탄생시켰고 그리스 학문을 보전, 후일 르네상스 문화 형성에 영향을 줬다. 중세 문화 특징을 '암흑시대'라고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나 '정치· 경제· 종교면'에서 '근대적 제도와 이념'을 마련했음은 사실이다.중세를 과도기적 성격으로 규정짓는데 6C-10C를 전기, 11C-13C를 후기로 구분, 후기의'스콜라 철학· 실재론과 유명론의 대립· 봉건제 세계관·고전문화 전통이 아라비아에서 전래돼, 자연과학· 의학· 수학등'이 활발했고, 역사철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문예부흥에 큰 영향을 주었다.중세문화는'로마 카톨릭문화,희랍정교회의 비잔틴 문화,회교의 사라센 문화'가 인류 문화의 성격을 형성했다.

중세사상의 요소들을 보면,'로마의 정치· 경제제도 西유럽에 계승, 개인적 봉건제도가 로마법률에 의해 변형, 초대교회적 신앙과 교육의 문화 파멸'은 중세 교회의 무지와 우상숭배및 부패를 불러오게 하였다.[15] 로마의

---

13) 상게서, pp. 84-87. (기독교 교육사, pp. 122-126. 교사의 벗 1980년 8월호, pp. 37-39.)
14) 상게서, pp. 87-90. (기독교 교육사, pp. 126-131. 교사의 벗 2월호, pp. 15-17.)
15)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1년 7·8월호), pp. 72-74.

국교로 승인된 이후 중세 교회는 순교적 신앙이 금욕 생활로 변하는 등 가치관이 달라져 불안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교육에 중요한 역할과 구원의 방주 역할을 했던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다.[16] 중세 수도원 교육은 후기에 수도원 학교와 감독 학교 등 종교교육 발달과 교육을 했고· 중세의 타락과 죄악을 막는데 큰 공헌을 했으며, 고전 지식 보전과 역사· 종교자료 및 초대 교회 성서 사본을 복사, 도서관· 인쇄소· 문자보관소· 병원· 작업장·학교 등에 공헌을 했다.[17] 또한 중세 교육에서 스콜라 신학과 교육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십자군 원정의 실패로 교황권의 실추와 이로 인한 동서 문화 교류가 이뤄져 敎理가 흔들리게 되자. '스콜라 신학'(Scholasticism)이 태동, 기독교 신앙과 고대 희랍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이론을 결합, 신학적으로 완성, 합리화한 사상'이다.[18]

그러므로 중세 시대의 교회 교육은 초대교회의 유대교적 교육유산과 기독교적 교육의 유산이 로마를 통해 중세유럽의 교회들에게 전파되었고, 차츰 고대 기독교의 교육적 전통을 상실한 체 인간을 지배하고 계급과 운명을 통제· 삶과 통일된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교육은 권위의 전제하에서 형성되었다. '스콜라 사상'은 지배 계급 세계의 내면적 인간 자율성의 보존을 위한 변증법적 도구 수단으로, '학교'는 계급 안에서 기계적 결정론에 따라 인간사고의 내면세계를 통제하는 배경에서 교육이 성립되었다.[19]

근세 교회 교육에서 '이 비'(C.B.Eavey)는 종교개혁의 배경의 주된 요인을 "스콜라 철학자들이 진리 형성의 방법을 연역적으로만 시도하고, 진리의 2중적 표준과 개인주의적 신비주의 발전, 유명론(명분론)등 로마 교회 쇠퇴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들, 과학적 발명과 발견, 16C 초 짧은 기간에 사회구조와 생활의 변천,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불만, 종교적 상황 변동"에

---

16) 상게서 9월호, pp. 43-44.
17) 상게서 10월호, p. 48.
18) 상게서 1992년 1월호, p. 51.
19)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1년 7·8월호), p. 83.

서 찾고 있다.[20] 로마 교회의 부패와 반대자들에 대한 박해는 자체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13C말엽부터 종교개혁이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 공동생활 형제단의 영적 생활이 교회 교육의 개혁에 영향을 남겼고, 로마 카톨릭의 교리적 모순의 상황과 함께 근세 초기 유럽의 세속적 르네상스와 인본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기독교적 인본주의(Christian Humanism)가 출현, 많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의 연구와 교육기관에서 교육 방법이 생겨났다.[21] 15C 말엽부터 세속 사회의 문예부흥 방법들과 내용을 개혁의 수단으로 하는 단체와 성경적이고 복음주의적 방법을 사용하는 단체에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개혁 운동이 '마틴루터'(Martin Lutther,1483-1546)의 개혁 성공으로 '즈빙글리'(Zwingli)와 '칼빈'(John Calvin,1509-1564)등이 개혁의 기수가 되었다.[22] 종교개혁후의 '칼빈주의'(Calvinism)는 교회 교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남긴 세력으로 칼빈은 루터보다 더 깊은 영향을 남긴 개혁자이다.

칼빈주의는 루터 교에 대한 개혁이었다. 기본 사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Back to the Bible!)으로 그는 '제네바 아카데미'(the Academy of Geneva)를 설립하여 新敎의 성직자 양성의 전문교육 기관이 되었고 3유형의'교리문답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등 세계 유수 명문 대학의 전형적 모델이 되었고 서구의 모든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남겼다.[23] 코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1592-1670)의'세속적 초· 중등교육 제창'도 위대하지만 '청소년의 기독교 교육화와 성경 지식의 根本源泉化 신앙'은 위대한 이 시대의 산물이다.[24] 또한 17C후반에서 18C초에 世俗 社會 人本主義 敎育의 확장에 반대 입장을 가진 독일의 敬虔主義 敎會 敎育 運動은 17C중반부터 시작, 독일인의 세속 생활과 문학과 철학 및 교육· 교회 교육, 그리

---

20) C. B. Eavey, 전게서, pp. 125-132.
21) 교사의 벗, (서울: 한국 기독교 교육 연구원 1980년 7월호), pp. 18-19.
22) 상게서 10월호, pp. 24-25.
23) 상게서 11월호, pp. 19-20.
24) 상게서 12월호, p. 34.

고 18C 미국 교회 교육에도 至大한 영향을 끼쳤다.[25]종교 개혁후의 유럽 계몽기의 세속적 인문주의 발전은 1859년의 '種의 기원'이 출현,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고,[26] 산업 혁명으로 세속사와 교회 교육이 변화하여,[27]여기에 1780년대에 영국에서 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주일학교 운동'이 발전되어 후에 '국가 의무교육 제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미국적 주일학교 교육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28]

주일학교 시작은 영국이지만 그 찬란한 빛은 미국에서 보게 된다. 초기 미국 청교도의 교회 교육은 유럽의 산물로 정치 사회 종교가 일치하는 기독교적 교육으로 가정교육에서 시작 학교 교육으로 발전하여 오늘의 미국을 창조한 것으로 뉴잉글랜드의 기독교적 각종 교육기관 조직과, 중부의 식민지 교육적 교육기관 조직, 그리고 남부의 서부 진출로 교파주의와 세속화는[29]과학의 발달과 교육의 세속화로 교회 교육 또한 세속화가 되지만 교회 교육은 여전하여 인간 생활에 영향을 줬고 교회만이 참된 마지막 보류로 주일학교의 발생에서 깨닫게 된다.[30]

주일학교 운동은 이성적 세속주의 교육에 新敎의 저항운동으로[31]영국에서 발생· 성장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크게 발달하나 쇠퇴기적 상황도 맞아 현대 교회 교육의 성립에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므로 근세교회 교육의 성립 배경은 중세 교회의 교육적 문화유산을 계승하여 근세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근세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 근세 교회는 '교육의 직무와 교육자의 권리를 세속국가에게 내주고, 제도적 정교분리(Sepa

---

25) 상게서 1981년 1월호, pp. 22-24.
26)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tian Education : Its History and Philosophy, (Chicago : Moody Press 1983), pp. 189-219.
27)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5년 12월호), pp. 34-38,14.
28) 상게서 1976년 1월호, pp.28-32.
29)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 Moody Press 1964), pp. 189-202.
30) 상게서 3월호.
31) 상게서 4월호, pp.18-20.

ration of Church and State)의 원칙을 수락' 세속세계의 도전앞에 교회의 반응으로 교회교육이 성립되었다.[32] 20C 초기는 과학문명의 거듭된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산업사회의 도래로 물질과 사회는 진보했으나 영적· 도덕적 타락은 날로 더해 갔다. 세계 제1차 대전이 터지고 종교 문제에 회의론이 증가하여[33] 종래의 각종 교회 교육기관의 활동과 조직이 개발 보급되어 활성화되나 점차 일관성과 계속성을 상실하고 세계 각국의 세속화 등으로 비관적이었고, 세속 사회적 원리를 도입한 新 기독교 교육 이론이 시도되기도 했다.[34] 이런 가운데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고 20C중엽이 도래하면서 자유 진영과 공산진영의 이념대립이 심화되고 인간 세속 사회는 다원화(plural society)와 동질 문화(homogeneous culture)가 형성되어 기독교는 급속한 세속주의에 대응전략이 부재하여, 교육전략의 심각한 제한성으로 기독교계 대학들은 세속사회 일반 대학들의 급속한 발전앞에 기독교적 사상과 교육적 센터로서 사명감적 자체 의미를 발견하려고 활기찬 노력을 했다. 그러나 교회교육의 재평가와 로마 카톨릭의 교구학의 문제점, 교회 전통에 회의감, 改新敎들의 1950년대 기독교적 부흥의 뒤늦은 변화에도 인간사회의 급속한 세속화와 비인간화, 도덕성 결여 등은 많은 고민을 낳게 되었다.[35]더욱이 20세기에 접어들어 현대 교회 교육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오랜 전통의 '기독교 문화' 붕괴와 '세속 문화'의 발전이 문제화가 되는 상황속에서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성립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답을 해야 할 '심각성'이 고민하게 있다.[36]

---

32)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5년 12월호), P. 34.
33) A. M. Renwick, The Story of Church(오만규 역, 세계 기독교 교회사, 서울: 보이스 사 1990, pp.319-324)
34)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6년 5월호), p. 64.
35) 상게서, pp. 64-68.
36) 기독교 교육,(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6년 5월호), p. 68.

2. 敎會 敎育의 性格

고대 히브리 민족의 교육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다.[37] 그러나 성경과 여러 전승자료에 의해 유추해 보면, 부모· 제사장· 선지자· 현자(sages)· 시인들이 교사였고, 아동 개개인 중심의 교육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성인교육, 神의 선민· 신앙인으로서 종교적 의식· 구체적 삶과 행동의 원칙 등이 가정을 중심으로 직업교육· 행위 조정· 口傳을 통한 역사와 율법교육· 종교의식 등으로 훈련되고 교육되었다.[38] 교육과정은 성서였고,[39]읽기· 쓰기· 셈하기(3R)를 할 줄 알았다. 기원전 1000년경 히브리어가 발명되어(삼하11:14,왕상21:8,삿8:14,신27:2-3,여호수아24:25-27)가정 밖에서도 자녀교육이 교육 공동체와 회당에서 교육되고 훈련되었다.[40] 따라서 일반적인 문화 수준으로 지식 전달 교육 정도 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이사야8:16 참조)[41]

고대 유대 민족의 교육시대가 학자에 따라 다르나 보통 BC 586년부터 AD 70년까지를 유대 민족의 교육(Jewish education)시대라 부른다[42].이 시기에는 시대적 변천에 따라 회당(Synagogue)과 학교(Schule)가 출현, 직업적 교사(현자:Haakma;최상위급, 학자 & 서기관:Sophel:중간급), 선생(Hathan;하급)이 출현하였는 바, 회당은 원래 예배 장소 였지만 교육기관으로 율법과 계율을 축자적으로 암송하고 훈련되었다(세계 최초 국민의무교육제도). 학교 교육의 발생은 회당 교육에서 발전된 것으로 BC 75 -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완성, 모든 아동들은 강제적 출석을 원칙으로

---

37)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 Moody Press 1964), p. 45.
38) 전게서 1975년 6월호, pp. 35-38.
39)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stian Education : Its History and Philosophy, (Chicago : Moody Press 1983), p. 21.
40)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0년 2월호), pp. 87-89.
41) 상게서, p. 69.
42) Lewis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 Macmillan Company 1944), p. 31.

Gamala때에는 취학연령이 6-7세로 의무적으로 정해졌다. 이 Schule에는 "벳 핫세퍼(성경의 집, 주전75-64년 설립, 남 아동만을 6세부터 입학, 초등과정으로 히브리 성서를 읽고 암송)와 벳 탈무드(설명의 집,중등과정의 첫 단계로 초등 과정에서 배운 율법을 보다 정통하고 진보된 해석을 공부하는 학교)· 벳 함미드라쉬(연구의 집, 고등 전문과정 학교로 율법의 전문적이고 고등적 연구 해석을 수행)"가 존재하여 율법교육을 통한 민족의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힘의 유연성을 갖게 하였다.[43] 교사는 1주일 동안 가르쳤고 학생수는 1학급당 25명, 무보수 보조교사를 두었는데 대단히 존경을 받았다. 주과목은 히브리 성경이었지만 읽기와 쓰기 및 산수법이 교육되고, 율법이 암송과 낭독되었으며, 소녀들은 전적으로 가정교육에 의존했고,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치중하였고, 직업교육과 율법연구를 탁월한 교육이라 하였다.[44]

초대교회 교육의 성격은 희랍철학의 헬레니즘(Hellenistic)이 新約聖書的인 基督敎 개념· 문화· 언어를 희랍식'이 되게 하였다.[45] 이런 가운데 위대한 교육자이신 예수의 탄생은 새로운 교회 교육을 탄생케 하였다. ' 오인탁'교수는 자신의 글에서 예수의 교육을 "종족중심 사상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破改로서, 인류의 하나님을 새로운 가르침으로 보여 주었고· 全 人類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로운 세계 지배를 가르쳤으며· '너'에로의 관심의 전환을 훈련시켰고, 말씀과 삶의 일치된 교육으로 온전한 교사의 표상을 보여주고· 가까움과 멀음의 변증법적 교수형식으로 가르치며, 공동체의 교육실시와 형식과 성립조건 및 교육 단계들을 사용하여 교육과 훈련을 했다"고 말한다.[46] 따라서 예수의 사망과 부활은 교육 공동체를 탄생케 하여 초

---

43)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5년 6월호), pp. 38-39.
44)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 Moody Press 1964), pp. 62-69.
45)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tian Education : Its History and Philosophy, (Chicago : Moody Press 1983), p. 48.
46) "기독교 교육 1987년 9월호",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pp. 52-56. "10월

대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적 교훈과 사상들을 가르치고 교제하며 정을 나누고 기도생활과 교육 교회가 등장하게 되어,[47]사도들은 교사로서 복음적 생명을 다하게 하고.[48]'세례 준비 학교와 교리문답 학교'와 같은 형식적 교육 제도가 탄생되어 교육하고 훈련시켜 교부들과 같은 기독교적 인물 사상가들을 배출시켰다.[49]초대 교회의 도덕교육은 '가훈(엡5:22-6:9,골3:18-4:1,벧전2:18이하)과 선행과 악행의 목록(고전6:9-10,갈5:19-24)'들로 성격은 시민 윤리적· 사회 윤리적으로 인간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고 인간 자신을 새롭게 묶여지게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초대 교회의 도덕교육의 과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다져 가야 한다.

중세 시대의 교회 교육은 무식한 로마大衆들을 위해 자연히 '상징주의(symbolism)敎育'이 출현하여 "성례전 교육이 반복적인 방법으로 의미를 깨닫게 하고, 종교미술 교육을 훈련· 습득함으로 찬란한 중세 미술을 창조케 했다. 상징극을 통해 종교를 알게 하는 종교극 교육을 하였고, 상징 교육을 통해 순례자 교육을 수행하였으며, 상징주의 교육은 반복적인 성격으로 시간적으로도 투영되어 교회력 교육"을 낳게되어 대중들의 생활을 규율화해 갔다. 그러나 이 상징주의 교육도 중세 말엽에는 조용히 변화하고 교육되어지며 훈련되어졌다.[50]

근세 교회 교육은 읽기·쓰기·산수·종교교훈을 가르치는 일반교육과 일반학교의 일상용어와 기초 시민 훈련을 실시하는 교육 그리고 '라틴어와 회랍어'를 가르치는 고전 학교(classical school)가 있게된 바, 세속 세계의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암기와 암송 위주의 '정통주의 교회교육'과 독일 중심의 교회 내면적 개혁 운동인 '경건주의 교회교육'· 합리주의 교회교육이

호, pp, 52-57". "11월호, pp.48-54". "12월호, pp. 54-58". "1988년 1월호, pp. 54-58". "2월호, pp. 33-37".

47) 상게서 1988년 3월호, pp. 35-39.

48) 상게서 5월호, pp. 40-44.

49) 상게서 6월호, pp. 37-41.

50)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5년 10월호), pp. 37-41.

훈련되고 교육되었다.[51]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는 주로 3R(읽기, 쓰기, 산수)과 카테키즘(신앙 요리 문답)교육으로 훈련되었는데[52] 미국에서 초기 주일학교 교육은 주로 3R(읽고 쓰고 셈하기)과 종교 훈련을 실시, 교육 자체에 변화가 일어나 교육내용과 학습방법이 변화 축소되고 성서교육에 크게 비중을 두어 전 신도층으로 확대되어 19세기 미국 주일학교 교육은 가히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하겠다.[53] 이러한 주일학교 교육이 19 - 20세기초에는 '종교교육 운동'을 낳게 되는데, 미국에서 종교교육(R. E. A)운동의 단체가 결성되어 청소년들의 종교 및 도덕교육에 큰 교육적 공헌을 지금까지 해 왔으나, 이후 시대적 변화와 교회 자체의 변화 그리고 신학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다.[54]

20세기의 현대 교회교육은 개신교의 교육제도가 그 일관성과 계속성을 상실해 '다원화 사회'(plural society)형성과 '同質文化'(homogeneous culture) 형성으로 이른바 '통상적인 기독교(Common Christianity)'를 촉 진, 날로 성장하는 세속주의에 개신교의 종교교육과 여타 기독교 대학들은 그 힘을 잃고 심각한 재평가 작업과 새롭고 다양한 교회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커리큘럼 작성작업이 착수되어 왔으나 교과중심 교회교육으로 그 중요성과 심각성은 인식되지 못했다. 또한 새로운 교육 자료들과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 지도자 훈련의 시간 및 범위의 확장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주요한 시도가 있었고, 청소년 및 성인층과 아동을 위한 예배의 교육화가 신·구교안에서 일어났다. 1960년대를 들어서면서 시대적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기독교는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기독교 교육자들은 과거의 동일한 사정의 효과적 교육형태와 현대의 교육형태에 관한 깊은 이해를 위한 역사 탐색에 나섰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독교 문화의 붕괴 및 세속문화의

---

51) 상게서 12월호, pp. 34-38.
52) 상게서 1976년 1월호, pp. 28-32.
53) 상게서 3월호, pp. 66-70.
54) 상게서 4월호, pp. 70-74.

성립은 교회교육 자체의 근본적 문제에 물음을 던져 준다는데 그 심각성을 느끼는 것이다. 과학기술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의 교회 교육은 이러한 심각성에 대처하고 오늘의 사회가 안고 있는 인간화와 비인간화에 눈을 돌려 인간의 근원적 문제의 물음에 인간이 대답할 수 있고 의식케 할 수 있는 여기에 바로 교회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55]

3. 先行 硏究의 考察

교회교육의 변천과 그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논문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단 한편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몇몇 국내 기독교 교육학자들에 의해 기독교 교육 월간지에, '정웅섭'[56]교수가 "基督敎 敎育史"를 고대에서 현대까지 구분하여 '基督敎 敎育'이란 월간지에 9회에 걸쳐 연재하여 교육 공동체적 관점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내용상 미흡한 점이 있고, C. B. Eavey의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의 飜譯本을 '김근수 목사'[57]가 다시 '敎師의 벗'이란 월간지에 "要約 基督敎 敎育史"를 각 시대별로 구분 요약하여 36회에 걸쳐 연재하여 연재자의 주관적 통찰이 전혀 없으나 장기간 연재됨이 주목된다, '오인탁'[58]교수가 "基督敎 敎育의 歷史"를 "예수와 사도시대와 초대 교회"의 順으로 구분하여 '基督敎 敎育'에 10회에 걸쳐 연재를 하여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복음주의 특징의 내용으로 출중하나 고대 초기와 중세이후가 빠졌다. '장종철'[59]교수가 "基督敎 敎育 思想

---

55) 상게서 5월호, pp. 64-68.

56) 정웅섭, 기독교 교육사(기독교 교육 1975년 6·9·10·12-1976년 1·3·4·5·6월호,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57) 김근수, 요약 기독교 교육사(교사의 벗 1979년 1·2·3·4·5·6·7-8·9·10·11·12, 1980년 1·2·3·4·5·6·7·10·11·12, 1981년 1·2·3·4·5·6·7-8·9·10·11·12, 1982년 1·2·3·4월호, 서울: 한국 기독교 교육 연구원)

58) 오인탁, 기독교 교육의 역사(기독교 교육 1987년 9·10·11·12-1988년 1·2·3·4·5·6월호,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史"는 각 시대별로 구분하여 '基督敎 敎育'에 14회에 걸쳐 연재하여 교회 교육을 사상적 관점에서 다룬점이 주특징이나 중세까지만 연재되었다.'손승희'가[60] '基督敎 敎育'에 "2000년대를 향한 基督敎 敎育의 비전"을 1회에 걸쳐 연재하여 단회적인 단조로운 내용이나 미래의 교육적 관점을 상기시켰고, '박근원'[61]이 "컴퓨터세대의 그리스도敎의 敎育"을 '基督敎 敎育'에 연재했는바 오늘의 기독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

基督敎 敎育의 歷史에 대한 전문 외국 서적으로 "C. B. Eavey[62]의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을 '김근수·신청기'에 의해 共同 飜譯된 바 교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 신앙적 교육차원의 내용적 특징을 담고 있으나 미국적 시각에서 기술하였다.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의 공저 Christian Education: Its History and Philosophy"를 '유재덕'에 의해 飜譯 되어 세속교육과 교회교육을 철학적· 교육사적 관점에서 상호 비교분석 제시한 점이 주 특징이나 번역상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주고있다[63]. 또한 Lewis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을 이 숙종 교수에 의해 번역되어 교육 문화사적 내용들로 집필되었으나 중세 15세기까지만 기록되어 있고,[64] Elmer L. Towns, A Histor y of Religious Educators를 임영금이 '인물 중심의 종교 교육사'로 번역했는데 기독교 교육사적인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65]또 Justo L. Gonzal ez, The

---

59) 장종철, 기독교 교육 사상사(기독교 교육 1990년 1·2·3·4·5·6·7-8·10·11·12-1991년 7-8·9·10-1992년 1월호,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60) 손승희, 2000년대를 향한 기독교 교육의 비젼, (기독교 교육 1980년 9월호,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61) 박근원, Computer세대의 그리스도敎 교육(기독교 교육 1986년 7-8월호,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62) C. B. Eavey(김근수 · 신청기 역), 기독교 교육사, 서울 : 한국 기독교 교육 연구원 1995.

63)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유재덕 역), 기독교 교육사, 서울 :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2)

64) Lewis J. Sherrill(이숙종 역), 기독교 교육의 발생,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4.

Story of Christianity를 서영일 목사가 '중세 교회사'로 번역하여 중세교회의 역사를 말해주고있다.[66] 이외 '기독교 사상'을 참조하여 기독교 교육적 사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67] 그리고 영어 원서로는 (이미 번역된 것들로 위에서 소개된 것), 'Lewis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68]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 on.[69]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stian Education: Its History and Philosophy.[70] Elmer L. Towns, A History of Religious Ed ucators[71].를 참조 하였고, 이외 본 연구자 소유의 전문 서적에서 일부를 拔萃 補充하였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이러한 連載物과 飜譯本및 기타 전문 자료들을 토대로 분류· 연구· 분석하여 "敎會 敎育의 變遷과 그 特性에 관한 硏究"를 함으로써 '敎會 敎育'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65) Elmer L. Towns(임영금 역), 인물중심의 종교 교육사,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3.
66) Justo L. Gonzales(서영일 역), 중세 교회사, 서울: 은성 출판사 1990.
67) 기독교 사상,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6년 2·3·7월호, 1997년 2·7월호).
68) Lewis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 Macmillan Company 1944)
69)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 Moody Press 1964).
70)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stian Education : Its History and Philosophy, (Chicago : Moody Press 1983.)
71) Elmer L. Towns,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Michigan :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1975)

III. 敎會 敎育의 變遷

교회 교육의 변천 과정에서도 고대· 중세· 근세· 현대로 시대를 구분하고 고대에서는 다시 교회 교육의 태동과 히브리인 시대· 유대인 시대· 초대 교회의 順으로 구분하여 전개 해 가고자 한다.

1. 古代의 敎會 敎育

고대 교회의 교육을 태동기와 히브리 시대 및 유대인 시대 그리고 초대 교회의 順으로 구분 지어 論하는 이유는 본래 교회 교육이 히브리 민족과 유대교적 전통 속에서 성장 발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교회 교육의 탄생과 히브리인 시대 및 유대인 시대 그리고 초대 교회의 順으로 전개 해 가고자 한다.

1) 교회 교육의 태동

기독교 교육은 성경을 근거로 한다.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인류와 계약의 관계로 출발하며 그 사실을 말씀으로 계시(啓示)하셨다. 다시 말해서 교회 교육은 神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종교적 현상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 창조를 보여주고, 31절은 창조주가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독일의 학자 Gerhard von Rad는 "좋다"라는 단어에 대해 "그 단어는 목적과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했다.[1] 그러나 이 완전

---

1) "Genesis : Commentary"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61. London : S

은 절대 완전은 아니다. 곧 인간은 유한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神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요,[2] "하나님의 형상대로"창조했다는 것은 神없이는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뜻으로 인간들은 神과 교제를 갖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교제야말로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고 인간의 만족에 지극히 중요하다.[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인간에게 다시 자신의 뜻을 가르쳤다. 즉 창세기 1장 28-3 0절에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에게 神의 대리자(代理者)로서 이세상의 생존권과 통치권을 부여, 인간은 神이 부여한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고 성숙해야 하며,[4] 하나님이 만든 질서와 균형에 인간은 이 세상을 보존하도록 부름을 받았다.(창1:28)[5] 구약에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전체 목적의 중심이요 그의 창조의 절정이다.(창1:29)[6]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한 인간으로, 인류의 조상으로 간주하셔서 과제를 부여하시고 교육이 불가피하며 개인과 공동체에 교육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아담 Adam)이란 히브리어 '땅'(아담아Adama)이라는 단어와 매우 흡사 하는데 이 유사성은 인간이 이 세상 syst em의 기본적인 일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7]다시 말해서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간의 삶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는 특별하신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8] 즉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구별하셔서 에덴 동산에

C M Press 1979.). Elmer A. Martens, "GOD'S DESGIN", (Inter-Varsity Press. 김의원 역, 하나님의 계획), pp. 34-37.

2)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 Moody Press 1964), p. 20.

3) John W. Drane, OLD TESTAMENT FAITH, Publish by Lion Publishing Lcknield Way, Tring, Herts, England. (이종수 역, 구약신앙, pp. 76-77)

4) C. B. Eavey, 전게서, p. 20.

5) John W. Drane, OLD TESTAMENT FAITH, Publih by Lion Publishing Lcknield Way, Tring, Herts, England. (이종수 역, 구약 신앙, p. 75.)

6) 상게서, p. 72.

7) 상게서, p. 75.

8) 정규남, 구약 개론, (서울: 개혁 주의 신행 협회 1990), p. 90.

두시고 그 곳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으나(창 2:15),사탄의 유혹에 인간은 오히려 神과 영속적(永續的)이며 신비(神泌)한 갈등의 관계로 되었고 이것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 갈등 속에서 인간은 神이 부여한 사명을 감당키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오직 도덕적 갈등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인 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다는 것이다.[9] 이러한 내용들은 창세기 3장에서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곧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인간이 먹게 됨으로써 선악(善惡)을 알게 되고 神과 동등하게 되려는 데서 갈등이 생기고(창 3:5), 인간을 교육시키며 인간 교육을 통한 만물의 완전 순종을 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이었으며,[10]神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인간은 무질서· 갈등· 잔인성· 이기심· 살인과 혼란· 오해와 고난과 재난의 세계 속에 살게 되었다.[11]'善惡'이란 히브리어로 '유혹의 도덕적인 국면을 명시하기도 하지만 서로 상반되는 개념들을 조화시켜 "모든것"이란 뜻을 가진 숙어'이다.[12]따라서 인간은 이 과업을 수행키 위해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것이었다.

C. B. Eavey는 자신의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에서,"인간의 타락도 지대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지대하셔서 세속적인 죄된 인간을 神적 사랑의 대상으로 존속시켜, 神의 완전 충분성과 인간의 불충분성· 무서운 타락의 결과들· 인간의 절대 무능과 무력(無力)· 구원 불가능의 한계 등을 배우고 깨닫게 하여, 인간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주기 위해 수천년 이상 연장되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것으로, 이러한 교육적 프로그램은

---

9)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 Moody Press 1964), pp. 21-22.
10) 상게서, p. 22.
11) David Noel Freedman & James D. Smart, "God has spoke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이희숙 역, 구약 성서 이해의 요점, pp. 27-29.)
12) Elmer A. Martens, GOD'S DESGIN, (Inter-Varsity Press. 김의원 역, 하나님의 계획, p. 43.)

인간 자신의 능력을 실험해 보는 것으로 인간 실패를 배우도록함을 목적으로, 포괄적인 교육 목적은 인간의 상실된 지위와 무력 상태를 배우고 인간 자신의 모든 부족함을 깨닫고 구원과 해방의 유일한 원천으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한 것으로 인간을 시험하시는 것인데, 인간의 거역으로 결국은 심판적인 끝을 맺어 인간은 흙으로 돌아 갈 수 밖에 없으나 이때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한 소수의 경건한 사람이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멸시와 천대받는 자들을 택해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는데 사용하셨다.(고전 1:27-29)"고 주장한다.[13]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배려라고 할 때, 인간 타락후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에 대한 고찰에서 하나님의 교육적 프로그램을 잘알수있다. 'O. Palmer Robertson'은 자신의 'The Christ of the Covena nts'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 대한 구원이 여자를 떠나서 성취 될 수 없고, 인간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아이를 여자가 낳을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들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백성된 자들이요. '그'란 단어를 문법적으로 볼 때 여자의 후손 대표자를 지칭하는 말로 이것은 "메시야 예수"를 나타낸다"고 말하는 바,[14]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들어 성경에서 최초로 '메시야'를 가리키는 구절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적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과 배려로 요약할 수 있고 그 사랑의 복음이 수천년을 이어져 오늘에까지 인류를 향해 神께서 계획하고 교육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발되어진 인간의 교육적 프로그램은 神的· 인간적· 사탄적 요소를 결합한 형태를 띄고 神의 교육적 사역을 성취시킬 소수의 프로그램 자들을 둬서 세대를 이

---

13) C. B. Eavey, 전게서, pp. 22-25.
14) O. Palmer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0), p. 93ff. 정규남, 구약개론, 서울: 개혁 주의 신행 협회 1990, pp. 90-93.

어가도록 하여 점차 神的인 요소는 감퇴되고 인간의 사상과 이상 및 사탄적 요소가 증가됨이 특색이다. 또한 인간의 타락과 아브라함의 소명 시대 사이를 기독교 교육의 원시시대(the primitive period)나 하나님중심 교육시대로 보아 '노아의 홍수 사건,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 21절의 가죽옷의 교훈에서 인간의 부적합성과 神의 완전 준비성, 가인과 아벨의 사건, 바벨탑 사건에 의한 언어와 종교의 혼잡'등이 있는 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분기점으로 인류의 역사는 두갈래로 나눠지게 되었다."[15] 따라서 복음주의자들은 합리적 확신을 가지고(사회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이 부분을 유일하고 신뢰할 만한 기록으로 수용한다.[16]그러므로 성경의 기록과 여러 기독교 학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교육적 계획은 '가인의 인간적 도덕적 상태의 사악성에 홍수의 대 심판과 노아에 대한 축복이 장차 인류세계 역사에 인간을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이며, 언약의 예언적 기초 형성'을 말해 주고 있다. 즉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셋'을 낳게하고 이 후손이 선민 '이스라엘'민족이 되었고, 이 민족이 고대국가를 형성하고 유대교의 교육 공동체적 문화를 성장 발전시켜 기독교의 모태가 되게 했는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원시적 교육은 '아브라함' 이후의 형식적 교육과 족장시대의 교육으로 변천되어 점차 환경과 사회구조의 발전이 이러한 고대 히브리 민족의 選民的 히브리 종교교육의 결과로 증명할 수 있어 이를 계승하는 것으로 고대 히브리 종교교육이 태동"한다.

2) 히브리인의 교회 교육

앞에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종교 교육을 두 시기로 분류하게 된 까닭을

---

15) C. B. Eavey, 전게서, p. 27.
16) Samuel J. Schultz, The Old Testament Speaks (송일규 역, 구약 총론, p. 25.)

간략히 설명한바 있어 그 이유를 여기서는 생략하고 고대 히브리 민족의 종교 교육만을 다루고자 한다.

(1) 가정과 부족 안에서의 자녀 교육

본격적인 히브리 교육은 아브라함과의 계약에서 시작되어 민족적이고 개인적이었으며 특이한 고도의 종교적· 통일성을 보존해 왔다.[17] 구약의 교육사는 첫째 출애굽 시대부터 사울왕조 형성 때까지와 둘째 이스라엘 왕조 시작부터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기원전 538년)이며, 셋째 기원전 538년부터 그리스도의 출생까지이다.[18] 통일왕국 초기는 위의 두번째에 해당되는 시기로, 모든 부족의 남·녀 아동들이 구별없이 실제적인 교육을 받았다. 장자는 가족을 이끌기 위해 종교의식, 지파의식, 제도, 법규 등을 가르침으로 지파를 계승해 갈 수 있도록 했고, 부모는 자기 자녀들 양육과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민11:12, 룻4:16, 삼하4:4,왕후10:1-7)그들은 아동생활의 구별과 확실한 훈련과 교육을 전달했다. 이 시대의 교육내용을 보면, 유년기 아동들은 놀이,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노동과 산업등의 직업 및 무기 사용훈련이 교육되었다. 가나안 정착과 유목 생활 동안 모든 부족의 남자들은 목자와 전사와 사냥꾼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고, 정착후에는 농업과 건축 및 무역 그리고 장인이 되는데 관심을 두었다. 히브리인들은 각기 다양한 직업을 가졌고, 모든 직업훈련은 강인한 신체와 솜씨를 갖도록 훈련되었고, 자녀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아버지로부터 기술을 습득했고 친척의 어른들로부터 장대의 과제를 익혀 갔다. 또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소년들은 산업훈련을 받았고 성인 남자들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는 '투석전, 활쏘기, 칼쓰기, 말타기, 마차를 타는법 등 무기 사용법을 배웠으며,(삼상17:50,삿20:16)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있었다.(사22:18, 애가

17)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stian Education : Its History and Philosophy, (Chicago : Moody Press 1983), p. 22.
18) C. B. Eavey, op. cit, p. 54. (교사의 벗 1979년 3월호, p. 30)

3:12, 삼상22:18, 시19:5을 참조.) 이시기의 젊은 남녀들은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노래와 춤을 배웠고 마을 축제에서 응원과 회당에서의 축제 행사에 참여하였다.(삿21:21,11:40, 삼하1:19-27, 6:14,6:5절을 참조.) 히브리 청년들은 항상 몸에다 악기를 지니고 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피리로 노래 부르며 춤도 추기도 했다. 어떤 가정들은 공적 축제의 준비를 위해 춤과 노래를 체계적으로 가르쳤고 악기와 제금을 울리면서 춤추는 법도 배웠다. 그러나 음악과 춤은 공식적 교육으로 가르친 것은 아니었고 대체로 아동들은 뽑혀서 구경도 하고, 모방과 행사에 참여하며, 비공식적으로 선배들의 춤과 시와 장례행렬, 애국적인 노래와 종교적 詩, 찬송과 기도 등을 들음으로 배웠을 것이라 추측된다. 교사의 교육방법에 대하여 통일왕국 시대의 문학형성의 역사를 보면,"구전시대와 노래· 담화의 시대, 기록된 문학의 시대"로 구분되는데, 히브리 가정교육은 가정의 전통을 구전으로 전함(oral tradition)으로 교육했다. 그 전통은 '율법과 역사'이다. 율법의 쉐마(She-ma)는 율법 구전의 진수요(신6:4-9), 아브라함부터의 조상들의 이야기는 역사의 중심내용으로, 이것들은 오랜세월을 구전으로 교육되었는데 매우 정확하고 통일적이었다.[19]창세기 31:44-52절과 여호수아 4장은 문자이전 풍부한 사건의 지식을 구전으로 전해 주고 있다. 내용은 돌을 세워 사건을 표시했고, 그것을 구전을 통해 후대에 전하는 이야기로 히브리인들의 율법· 전통· 신화· 노래· 수수께기· 우화· 잠언· 기도문들은 수세기 동안 문자형성 이전부터 구전으로 전달되어 백성들의 마음속에 계승되었다. 팔레스틴의 히브리 유목민들은 자신들의 삶속의 이야기들을 몸짓을 하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전달자에 의해 강한 인상을 받으며 호소된다.(결혼· 무용담· 이방 족속의 이야기등) 부족의 신성담이 父子지간에 전달되고 부족은 팽창하며 예배 장소가 설립되고 특별한 이야기들은 부족의 일반적인 언어로 대중들 속에 전달된다. 전달되는 이야기속에 사상과 신앙, 독특한

---

19)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5년 6월호), pp. 37-38.

경험들이 섞여 애국심과 참된신앙, 행동욕구등이 이야기되었다. 또한 문서와 정경에 대한 평가를 본다면 이시기는 점차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들의 직무를 통해 기록된 문서들이 나타나는데, 발굴된 '팔레스틴의 비문'들에서 초기 히브리어 글자가 적혀 있다. 또 기록된 많은 문서들이 신성한 권위를 가져 정경화를 형성하여 후세들의 교재(Text)가 되는데,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등이 공적으로 승인(BC 5C경)되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영향으로 형성되었고, 예언서는 BC 3C이후에 완성되었으며, 성문서는 서기 118년에 완성되는데 (얌리야(Jamnia)의 랍비회의에서 전도서· 아가서를 제외하고) 정경으로는 확정되지 못했다.[20] 다음으로는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3R(읽기, 쓰기, 셈)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개 히브리인들이 팔레스틴(가나안)정착시 현지인들의 체제에 따라 적용했다고[21]보나 증거는 없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다. BC 10-11세기에 벌써 주변지역에는 설형문자(楔刑文字)가 있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는 기원전 1000년경에 발명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했고 사용자 계층은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궁중관리'들로 제사장들이 최초로 사용했을 것이며,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들은 이 지식을 가장 값지게 사용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후기 예언자들은 광범위하게 문자를 사용했고, 왕조형성후 궁중 기록문서 보존이 필요(동맹, 정책, 선포문, 전쟁터에 왕의 메시지 전달, 왕의 행적보존, 궁중서기, 서기관들)했다.(삼하11:14, 왕상21:8 참조) 그러나 통일왕국 시대에 3R지식의 보급의 범위에 대해선 평가나 증명이 불가능하지만(신6:9, 27:8, 여호수아18:9) '사사기 8장 14절'과 '다윗과 이세벨'의 논쟁에서 볼때 일찍이 글자가 있었고 읽고 쓸수 있었다는 것을 추론 할수가 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론도 할수 있지만 문제는 율법의 기록과 같이 전체 국민이 다 알도록 기록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것은 그렇게

---

20)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0년 2월호), pp. 82-87.
21) I. J. Peritz, OLD Testament History, p. 118. (상게서, p. 87.에서 인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작이라 추론할수 있을 것이다.(신27:2-3,여호수아24:25-27) 두번째로 상업이 중요시되어 화폐와 무게 및 측정법 같은 지식이 필요하여 가정에서 부모나 교사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럼 히브리인들의 종교와 도덕은 어떠했을까 할때 지금까지 언급된 성서 구절들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들의 종교와 도덕을 살펴보면, 춤은 종교와 축제 행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문학도 원래 구전 형태로 시작된 종교와 도덕적 성격內에서만 존재, 초기에는 가정과 부족의 모임 안에서만 종교교육이 이뤄졌다. 용기, 충성, 순종, 복종을 가르쳤고 이런 교육은 이야기와 담화와 전승을 들려줌으로써 조상과 부족과 민족의 영웅들의 행위의 덕목으로 삼아 지켜 가도록 했다.[22]

(2)가정 밖에서의 자녀 교육

가정 밖에서의 교육은'공동체'교육과 '회당'교육으로, 공동체교육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축제, 전쟁, 사냥, 원정, 재판장이나 재판장소, 회당에 아동들이 아주 일찍부터 참여를 통해 자극되고 의도적인 의식적 인도를 통해 접촉시켜 왔다. 다음으로 회당교육은 통일왕국 시대에 제사장 조직에 의해 많은 신전과 회당들이 널리 분포되어, 예배드리는 장소와 종교적 의식 및 율법을 배우는 장소였고, 모든 상징과 의식들은 종교적 감정을 자극 어떠한 신념, 율법, 전통, 사상이었으나 모두 좋은 교사가 되었다. 성경에서 이러한 근거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건축'(기원전 963년, 예배와 제사행위에 큰 영향을 줌)과 '예레미야'(렘36:4, 공적 교육의 장소로 사용됨을 알수 있음)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23]

---

22) 상게서, p. 87-89.
23) 상게서, p. 89.

(3)선지자(예언자)의 교육[24]

통일왕국 시대는 모두가 다 교사의 역할을 한 것이다. 제사장은 성전 목회자· 관리자 였고, 예언자는 설교자이었으나 모두 훈련과 가르치는 역할을 추종자들에게 종교와 도덕 그리고 교육적 언어의 표현과 내용 및 형식을 통해 성취 시켜 나갔다. 그럼 여기서는 제사장의 교사역할 및 직무와 예언자의 뜻과 교사의 역할 및 교육활동· 교육방법· 교육적 성격등에 대해서 차례로 전개해 가고자 한다. 제사장의 역사는 출애굽 시대부터로(출28:29,레8장) 神과 인간사이의 중재자로, 율법의 해석자로(겔44:23) 문자와 의미를 전달했고, 가정교육과 함께 보충자로서 이 시대의 모든 것에 대한 합성물이었다.[25] 먼저 제사장의 면모를 들여다 보면 정확히 논하기는 어렵지만, 히브리인들의 '가장(家長)' 아버지는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 기원을 생각해도 별탈은 없을것 같다. 사사기 17장에 의하면 이미 사사 시대에 레위인들은 제사장 계급으로 인식된것으로 나타난다. 지파를 형성하고 율법을 가르쳤기(삿17:14) 때문이다. '미가'의 얘기가 초기 레위인의 제사장의 직분 모습을 알려 주지만 그이전은 잘알수 없다. 초기는 제사장과 예언자의 구별도 분명하지 않다. '요시야'왕의 종교개혁(기원전 621년) 이후에야 책임분담이 정확히 나타난다.그 당시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외곽의 많은 신전들을 수도로 이전하는 임무를 띄우고 신전들을 모두 예루살렘의 민족성전으로 편입시켰다. 요시야왕이 '율법서와 신명기'에 의해 단행한 개혁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중심 예배통일(왕하23:8, 신12:5,13,18,16:6), 다른 종교와 우상숭배 금지(왕하23:6,13-14,신12:2,13,16:21-22 & 왕하23:8, 신12:5,13,18,16:6), 종교적 매음행위 금지(왕하23:7, 신23:7-18), 무당추방(왕하23:24, 신18:10-11), 아동의 번제희생 금지(왕하23:10,1 3, 신12:31,18:10), 유월절의 엄수(왕하23:22, 신16:11)"로 종교개혁과 함께 '제사장 제도'가 공인

---

24)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0년 3월호), pp. 64-70.

25)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stian Education : Its History and Philosophy, (Chicago : Moody Press 1983), p. 24.

되고 궁중성소 책임과 제사장 후보자들을 교육시켰으며, 회당 책임자(서열이 형성)가 되었다. 제사장의 직무는 '회당'에서 '예언과 관리와 목회'를 하면서 교육하는 일로(신33:10) 민족에게 교육적 영향을 고취시켰다(삼하1-3징,성전중심 영구적 제도로 확정).제사장들은 야훼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 신성한 책임을 담당했고, 예언의 수단으로 야훼의 말씀과 언약을 해설 창조적 전달를 하기도 했다. 또한 종교와 역사속에서 교재를 연극으로 만들고 공적축제를 통해 연출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회당에서는 예배의 형태로 신자들을 가르쳤고 개인적 권리를 상실한 자에게는 회복시켜 주기도하고, 율법과 규례· 제사· 신화· 담화· 역사자료를 모아 처음에는 구전으로 후에는 기록된 문서로 전달도 하여(말2:7), 이러한 문서작성 노력은 위대한 문학을 탄생시켜 오늘의 종교교육과 도덕교육의 원리로 삼을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교재(Text)를 남겼으며, 히브리 공동체들은 제사장들에게 이 교재를 통하여 특수 담당교사가 되게 함으로써, 고대 이스라엘의 최초 제사장 계급이 형성되었다.다음으로 예언자(삼상9·10장,10:12)에 대해서 살펴보면, 히브리어 '코젬'(kosem)이나 '로에'(roeh)는 예언자나 선견자 두가지 의미로, 선지자(히브리어 단수nabi, 복수nebiim)는 초기의 선견자(roeh)로부터 발전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삼상9:9)으로 선견자나 선지자는 예언자를 의미하는데[26]남녀 누구나 될 수 있었으나 남자가 더 크게 활약했다. '나비'(nabi)의미는 '말하는 자, 외치는 자, 고(告)하는 자'로 '특별사명 수행을 위해 神의 소명의식이 있는 자'라고 정의되는 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의 사명을 직접적인 영감으로 전달된 것으로[27], '예언자는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는 자, 영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대변자로 인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등으로 말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전성시대는 종교

---

26) Lewis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 Macmillan Company 1954), p. 11.

27) F. Albright, From the Stone Age to Christianity, 1946, p. 232. (기독교 교육 90년 3월호, p. 67.)

를 대표했고, 그 시대의 이상(理想)을 대변했다. 예언자의 임무는 공적인 사건을 책임있게 수행하고 공적인 교사로 봉사하는 것으로, '야훼의 뜻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어느 시기 특별한 사건직전 메시지를 엄격하게 선포해야 했고, 종교개혁의 요구가 필요할 때, 사회개혁의 요구가 필요할 때'나타난것이 그들의 임무적 특징이다. 즉 각 시대의 위기상황에서 의미 있는 해석을 내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가르친것이다.[28] 예언자들은 공의· 사랑· 신앙에 중점을 두고 도덕적 교훈을 왕이나 상류계층에 공박함을 주저하지 않았고, 종교와 사회적 악행에 대한 규탄(우상숭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 외적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위대한 비젼을 보여주었고, 종교와 사회개혁을 주장한것이다. 예언자 단체들은 예언자의 이름이나 아들들의 이름으로 규탄되기도 했지만 개방된 평신도 제도로 남여가 포함되었고(삿4:5,왕후22:14) '침묵· 음악과 춤· 강렬한 자극적 행위'로 예언을 했다.가장 중요한 임무는 위대한 도덕적· 종교적 교사로 백성을 위해 봉사하고 어떻게 살것인가를 가르치며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미래에 대한 예언이 이유가 되어 미래 예언을 중요한 임무로 오해를 하기도 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양심가로 윤리적 유일신관(倫理的 唯一神觀)을 가르쳤다. 교육적 성격은 읽고· 쓰고· 문학· 웅변· 문장구성 등의 지식정도를 전달하는 정도(이사야 8:16 참조)였고, 교육방법은 상징(symbolism)· 구안적 교재· 연극방법을 사용하였다.(렘27·28장, 사20:3 참조) 이러한 그들의 교육방법은 오늘의 교육방법에도 높이 평가 될만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역할은 민족의 종교와 사회의 이상을 창시했고, 대중정치에 비판과 영향력을 주고, 개인과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설교자로 야훼의 높은 이상과 이스라엘의 사명에 근원과 채널이기도 했고, 민족의 위기시에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책망으로 가르쳤다. 특히 이들은 바알神과 대항해서 싸워왔고(왕하4:38-42),노동(왕하6:1-7)을 함께 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선지자의 생

---

28)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5년 6월호), p. 36.

도들(Sons of Prophets)로 '선지학교 또는 선지자들의 학교'로 불리워, 학생들은 함께 기숙을 하고 단체생활과 정신을 신념으로 뭉치고 활동을 하여 정신적인 지도력을 발휘 남·여 단체를 형성하고, 위기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듣고 행동(왕하4:23)을 보이는 등, 매월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한것이 기초가 되어 후에 '회당'(Synagogue)으로 발전되었다. 이외에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현자와 시인들이 히브리의 가정과 민족을 위해 중요한 교육의 역할을 했다.

2) 유대인의 교회 교육

(1) 토라(Torah)의 교육[29]

'토라'란 의미는 '가르친다는 뜻의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들을 통한 거룩한 교훈을 의미한다.(이사야30:9, 예레미야9:12,13)토라는 예언적 교훈의 형태를 수단으로 나타나 특별한 법률(축제, 안식일)· 율법의 규범서를 의미하기도 하고, 후에 율법이 神의 해답이며 의무와 권리들을 질문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출18:13-16, 신17:8-12, 삼상30:21-25 참조) 따라서 토리는 교육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다.[30] 토라의 율법책은 구약의 '모세 5경'에 들어 있는데, 즉 십계명에서 神과 인간과의 의무와 관계(출20:1-17, 신5:6-21)와 의식 규범(출34:10-26)및 사회법(신27:15-26)이 있어 사회적 의무규정이 있으며, 민법과 의식법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레위기의 성결법內). 율법을 교육하는 목적은 기원전 621년 '요시야'왕의 개혁때 유대는 불안한 정치적 배경으로 '율법책'(교육책)이 발견되어(왕하22,23, 신명기가 주축) 왕이 읽어보고 놀라 당황해 예언자 홀다(Huldah)에

---

29)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0년 4월호), pp. 71-78.
30) Lewis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 Macmillan Company 1944), p. 31.

게 의논한 후 온백성을 모아놓고 이를 직접 듣도록 큰소리로 낭독케 하여 백성을 교육하였고 이 문서를 출판, 이 민족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정표가 되게하고 책의 종교가 되게 하였다.

둘째 목적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순수 신앙적 공동체 결성 열망을 품고 돌아온 '에스라'는 삭막한 땅에서 다시 '야훼의 통치'를 재건하고자, 회중을 모으고 '율법의 책'을 가르치며 제사장들에게 이를 다시 반복케 하여 '제사법전'으로써 이 책을 '유대인의 국가적 종교의 법전'이 되게했다 (느헤미야 7,8장 참조). 애굽(이집트)에서 고대 히브리 민족이 광복되어 나오던 날 (유월절 사건)은 이 민족에게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선민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서 인간 교육의 神的 프로그램으로 행위규범과 교본으로 사회생활의 규례와 종교적 제의와 인간의 의식주의 문화 및 교육등 생활의 목적과 의미에 강조를 둔 것이었다.[31]구약이 정경으로 확정된 것은 서기 70-135년 사이 이었는데, "율법서(모세 5경,가장 권위적인 책)와 예언서(역사서와 16문서의 예언서)및 성문서(시편,잠언,욥기,룻기,애가,전도서,에스더)"등으로 편집되어, 이것이 '구약성경' 또는 기록된 토라로 유대교의 거룩한 문서의 한 부분이 되는데, 토라는 '구전토라'와 '기록된 문서토라'로 되어 이것은 '미쉬나'(The Mishnah)로 불려져 서기 190년에 '정경화'가 되면서, 해석에는 '바벨론과 팔레스틴의 탈무드 전승'에 따른다. 이것을 '예루살렘 탈무드'라 하는데 오랜 발전과정에서 구약의 '외전'으로서 교육적인 효과의 경향으로 2천년 동안 지나오면서 지금은 성인교육의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유대 문학적인 토라는 신성한 근원이 강조되는데 '하늘로부터 왔으며, 이를 믿어야 하고 교육해야 하며 부정'할 수 없었다. 유대의 '지혜문학'은 광범위하며 '희랍사상'과 같은 형태의 지혜도 담고있다. 잠언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

31)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 Moody Press 1964), pp. 47-50.

정신을 표현하는데 특수한 교훈과 원리가 탁월하며, 만일 토라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시편 119편의 토라노래와 잠언서의 지혜의 자리가 어떻게 동일하게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를 전도서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지혜의 추구나 희랍어의 유사한 하나님의 개념은 자멸과 공허한 정신과 메마른 마음과 모든 것을 헛되게 하므로 결국은 지혜자의 대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함으로써 토라가 최고로 교훈을 하고 있다. 전도서의 저자 시락(Sirach)은 지혜는 토라와 동일하며(전12:13), 유대인 철학자 필로(Philo)는 히브리 사상과 희랍 사상을 종합했고 이러한 작업은 두 사상의 갈등을 극복하여 이를 결합, 최고의 의미를 가져오는데 "지혜와 토라를 인격화"하는 것으로 토라는 인격과 영원성을 똑 같이 포함하게 되어 히브리 사상은 "지상의 사물은 하늘의 원초적 형상에서 왔다"고 믿고 이러한 신앙은 플라톤의 '이데아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특징의 "이데아(Idea)"사상의 원리에서 왔다. 또 다른 영향은 랍비적 사상에 기초하여 개인과 양자 그리고 영원성에 토라를 이해하려는 경향으로 성경과 탈무드를 밀접하게 하여 '미드라쉬적'해석을 하려 한다. 즉 토라는 창조 이전에 존재했고, 위경'희년의 책'은 창세기의 미드라쉬적 해석을 담고 있다고 한다. 위와같이 토라는 유대인의 최고 가치로써 인격화된 계시로 '알려져야 하고 순종되어져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토라를 가르치고, 연구하며 중요시하고, 하나의 규범도 세계의 어느것 보다 더 가치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토라는 오늘날의 헌법 이상으로 통일성과 계시적 영향력으로 삶의 모든 면에 연결되었고, 반복적으로 계속 아동들에게 교육되어졌다.32)

(2) 유대인의 가정교육(시127:3,신6:7)33)

---

32)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stian Education : Its History and Philosophy, (Chicago : Moody Press 1983), pp. 23-24.

33)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0년 5월호), pp. 70-77.

이 나라의 전 역사를 통해 가정은 기본적 교육기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모가 교사로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토라)'을 교재로 삼고 지혜를 추구했다. 자녀는 神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교육은 엄격했고, 몸의 체벌도 자유롭게 가하며 애정으로 부드럽게 대했다. 가정교육은 주로 종교· 도덕· 관습과 직업훈련들이었는바, 궁극적인 목표는 '神에 대한 개인적 책임 의식'을 발달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의 교육 이념은 '하나님 중심의 교육'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은 존재· 역사·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신앙의 기초 위에 세우고, 자신들과 언약하신 분으로 그분 한 분만을 믿고 섬기고 예배 드려야 할 것을 가르쳤다(레위기19:2). 토라는 교육의 내용이요 바탕으로 가정에서 이를 지키면 행복하고 성공을 얻게 된다고 믿었고(신28:1-13), 토라의 교육이 과제였다. 이들은 지혜를 중요시,성공의 비결과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으로 생각, 자녀에게 이 지혜 교육을 하는 것을 가정교육의 주제로 삼았다(잠31장).[34] 부모는 자녀교육의 책임자인 교사로서 자녀의 행동까지도 책임을 졌는데, 율법이 정한바에 따라 소년은 13세가 되면 스스로 율법에 대한 책임을 졌으며, 부모는 神으로부터 자녀교육의 책임을 부여받았다(신6:7-9).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으로 절대권을 행사했고 아내와 자녀는 노예 같아서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내국인에게만 팔수도 있었고(출21:7-11,유아기 때는 제외), 자녀를 산 제사로 드리기도 했다. 신명기법은 불순종 아동을 부모가 고발하고 벌을 주도록 부모는 검사로, 장로들은 판사가 되어 만약 부모의 고소가 성읍의 장로들에게 수용되면 모든 도시민들은 그 아동을 돌로 쳐 죽일수가 있었다(신21:21). 신명기 6장 7-9절 과 출애굽기12:26,27 절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즐겁게 가르치고 명절같은 의미도 잘 설명해 주도록 보여준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일반적으로 복종하도록 표현되었으나(잠1:8), 잠언서 31장은 어

---

34) Lewis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 Macmillan Company 1944), p. 7.

머니가 지혜의 교사로 가르치는 내용도 있다(31:1).'잠언과 집회서'의 종교와 도덕 지침서는 자녀들이 무책임하고· 변덕스럽고· 어리석고· 반항적인 본성을 가졌다고 표현하여,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를 금하고 엄격한 모습을 유지하라 충고했고, 아동의 체벌도 허용(13:24,19:18,23:13)하나 모든 가장들은 엄격하게 다스리지 못한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알수있다. 히브리 아동들은 일정기간 부모밑에서 성장하면서 학습과 교육을 받은바, 이는 하나님의 위임명령(잠22:6)으로 유대인의 탈무드는 어린이의 생활과 교육을 다섯시기로 구분하여 종교적 의식에 따라 실천하고 가르친다.[35] 이를 살펴보면,

첫째 신생아의 출생의식을 거행하는데, 목욕후 소금을 뿌리고 강보에 싸맸는데(겔16:4,눅2:7), 첫 男兒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출13:12). 첫 男兒가 구원받기 위해 부모는 1개월후 하나님께 5세겔(화폐단위)를 드렸다(민18:15). 둘째는 출생후 8일째 되는날 男兒는 할례를 받고 부모는 이름을 지어 주었고(창17:12-14,16:15,17:19),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神子로 교육시켰다. 셋째로 어머니는 신생아가 아들이면 7일과 33일을 합한 40일간, 딸이면 男兒의 수에 2배가되는 14일에 66일을 합한 80일간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여, 어머니는 이 기간은 어떠한 성물도 안 만지며 성소 출입도 삼가고, 이 기간 말일에 정결 예식으로 '1년된 양1마리를 제물(가난한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번제'를 드렸고, '여인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1마리를 제사장 앞으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여인을 속죄하는 속건제'를 드렸다(레위기12:1-8). 넷째로는 '이유의식'으로 모유(창11:7)· 유모(창14:59, 왕하11:2)의 젖을 먹이다 2-3년이 되면 젖을 떼는데(삼상1:22-24), 젖을 완전히 떼면 하나의 축제를 갖기도 하였다. 다섯째로 탈무드에 의하면 소년이 13세가 되면 율법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성경은 언급이 없지만 고대 전설과 전승 및 관습에 따

---

35) F. H. Swift, Education in Ancient Israel. (전게서 5월호, p. 73.)

르면 족장시대부터 후기시대까지 청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 종교적 의미, 정치· 종교적 의무, 특별의식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할례의식이나 유아의식을 성경 그대로 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교육적 의미로도 입증이 어려울 것 같으나 오늘날은 이와 아무 관계없이 단순한 관습으로 변화 되었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각종 상징적 도구를 통해 종교교육을 실시했는데, "지지트(zizit,옷술을 의미,신22:12)는 청· 백· 실끈을 꼬아서 옷의 네귀에 술을 달았는데 이는 그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 원하고 말씀속에 산다는" 것을 알수 있고, "테피린(Tefillin,단수로 테필라(tefillah), 필렉테리(phylacteries)라고도함)은 남자 13세 이상 되었을 때, 기도시에 사용하는 상징적 물건으로 테피린은 기도· 필렉테린은 '지키자 방어하다'에서 온 '표시''기호'라는"뜻도 있다.[36] 이것은 작은 양피지 꼭대기에 가죽끈으로 막아서 만든 것으로 예배자들은 테피린 하나를 두눈사이의 이마위에 묶고 다른 끈은 왼쪽 팔 아래쪽으로 묶는다. 테필라는 가죽으로 만들어 4부문으로 나뉘어 '출애굽기13:1-10,13:11-16, 신명기6:49,11:13-21'의 성경구절을 붙여서 하나는 이마에 하나는 왼손에 매었다. 테피린을 사용해 온 역사는 잘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 23장 5절은 많은 참고자료를 담고 있다. 이 전승의 기원은 출애굽기 13장 16절에 잘 언급되어 있다. 본래 이 표는 피부위에 붙인 것이며 눈사이의 이마와 손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 후에 보이는 대상은 미간이나 손에다 붙여서 피부 위에 붙이는 것을 대신하였다. 이런 의식으로 청년은 성인의 정치· 종교· 사회적 책임을 위해 먼저 수용했는데 특별한 준비 기간과 특별한 종교의식을 행함으로써 여호와의 말씀을 늘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bar mixwah(계명의 아들)란 유대 남자가 13살이 되면 스스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37]

---

36) The Universal Jewish Sncyelopedia Vol, VII. "Phylacteries" by Max Joseph. p. 522. (상게서 5월호, p. 76. 에서 인용)

37) K. Kohler, "BAR mizwah", Jewish Sncyelopedia, Vol, II, p. 509.(상게서 5월호, p.76. 에서 인용)

13살 이전 男兒는 특별한 준비 기간이나 종교교육을 받기 위해 회당으로 들어가 회중앞으로 나오면서 아버지는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를 자기 아들의 행동 책임에 대하여 "복되거라 너는 이제 어린아이의 책임을 벗어나 내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면 소년은 성경의 해당된 구절들을 따라 읽는다. 축도를 따라 읽는다. 성경구절을 따라 읽고 성경을 덮는다' 회당 예배가 끝난후에 가정에서는 선물을 주면서 가정축제를 갖는다". "타리트(Tallit)는 기도용 숄(prayer shawl) 또는 겉옷이라고도 부르는데 꼬아서 만든 실끈을 단 긴 겉옷이다. 이 의복은 아침기도 詩에 입었는데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의무를 기억하기 위함이었다".[38]"메주자(Mezuzah)는 '문설주·문간'을 의미하는바 이스라엘은 문지방을 신성시하여 말씀을 기록했고(신 6:9),나무와 금속으로 만든 작은통에 신명기6:4-9 과 11:13-21 를 기록하여 넣고 문설주에 달았다.[39] 출애굽詩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계약을 믿는 표시로 사용된 것인데 누구든지 집밖으로 나갈때나 집안으로 들어올 때 '메주자'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축복을 기원했다. 이는 시편 121:8편에 나타난 '유대사상'속에 깊이 연관된 것으로 유대 청소년들은 이를 잘 알고 철저히 실천하였다". 이상과 같이 유대인들은 아동들의 생활 속에서 시기마다 특수한 종교적 의미를 주기 위한 행사를 실천해 왔다. 유대인들은 아동에 대한 신앙적 종교교육의 책임과 임무를 직접 수행함은 인상적이었고, 가정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 '가정의 자랑과 대중의 의견, 종교적 신념을 존중· 관찰, 맡은 책임을 강화시켜 나간 것이다.

(3) 유대인의 학교교육[40]

---

38) Lewis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 Macmillan Company 1944), p. 25.
39) William Barclay, Educational Ideals in the Ancient world, (Michigan Baker Book House 1959), pp. 35-36. (전게서 5월호, p. 77.)
40)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0년 6월호), pp. 69-78.

이기간 동안의 교육의 변화는 매우 형식화되었고 제도적인 배경을 갖게 되었다. 히브리인들이 제도적 교육에 헌신하였던 곳은 '회당, 초등학교, 중등학교 혹은 서기관 학교가 있었다.

"회당(synagogue)"이란 단어는 교육과 예배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했으나 후에 변해서 건물에 적용되어 법적으로 도시나 마을에 25명의 남자 어린이들로 하나의 회당을 설립할 수 있었다.[41]회당은 예배와 교육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안식일에 2번 모임을 가졌고 축제와 금식을 하였으며 주중에는 함께 장사를 하였다. 예배의식은 주로 기도와 축도로 남자들은 모두 참여하여 쉐마(Shema)를 암송하고 예배와 경건은 의식으로 훈련되었다. 예배의 교육적 부분은 율법과 예언서를 읽는 것으로 율법과 예언서를 히브리 원어로 읽은 후 회중들을 위해 번역 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예배에는 남· 여 아동들이 참여 그중 소수자들만이 성경을 읽고 번역을 할 수 있어 문학 연구에 큰 동기를 부여 해 주었다. 끝으로 성경 낭독후에 "데라샤"(derashah,주석· 해석의 뜻)가 계속되어 그날의 학과에 적용시켰다.[42] 학자에 따라 주장이 다르나, 공식적인 학교교육의 시작을 기원전 75년경 '시몬 벤 쉐탁'(Simon ben Shetach)에 의해서,[43]이 시기에 공식 교육이 크게 발전했다. 당시 6세 남자아이들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는 회당에 소속되었고[44] 학교들은 철저히 남자들로 구성되었다. 교사와 학생의 비율은 1:25로 무보수의 서기관이나 바리새파인 들이 교사로 구성되어 위대한 사랑과 존경과 명예로 공동체 안에서 교육을 담당했다.[45] 초등교육

---

41) Leo Trepp, "Judaism : Development and Life", 3rded(Belmont. CA : Waelsmorth publlishing Co 1982), pp. 274-275. (기독교 교육 1990년 6월호, p. 71.)
42) Fletcher H. Swift, Education In Ancient Israel, (Chicagp : the Open Court Publishing Co, 1919), p. 94. (기독교 교육 1990년 6월호, p. 71.)
43) 상게서 , pp. 92-94. (기독교 교육 1990년 4월호, p. 71)
44) William Barclay, Education Ideals in the Ancint World.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59), p. 37. (기독교 교육 1990년 6월호, p. 71.)
45) Swift, 전게서, p. 96. (기독교 교육 1990년 6월호, p. 72.)

의 목적은 율법에 대한 책임과 완전한 이해로 교재와 율법이 사용되었다. 초등학교 이름은 "Beth Ha-Shepher"이며 벳 하세퍼는 '책의 집'이란 뜻이다.[46] 두번째 목적은 유대인 사상을 간직토록 구전과 반복적 암기 학습으로 가르치는 것인데, 반복적 암기 학습 법은 학생의 기억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했다.[47] 초등학교에서는 3R을 배웠는바 히브리어를 읽고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48] 히브리어 모음은 발음· 읽기· 기억도 사실 쉽지 않다. 만일 모음없는 자음만으로 글자를 읽어보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한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을 영어로 읽어보자: "GD CRTD TH HVN ND TH RTH" 자음으로만 된 이문장은 오래봐야 그뜻을 알수 있지만, 여기에 모음'aeiou'를 결합 발음하면,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란 뜻을 알게 될 것이다.[49] 초등교육 방법은 '하잔'(Hazzan)이란 교사가 회당에서 교육을 담당,[50] 율법을 암기하고 반복하는 것으로 초등교육은 '내용과 의식과 민법과 형법'을 가르쳤다. 아동교육은 맨 먼저 부모가 설명해 주는 것이 있고 연령 수준에 따라서 율법의 기원과 전통과 의미에 대하여 가르쳤다. 학습자는 성경의 내용을 배우고, 종교, 도덕, 태도, 역사, 법률, 3R을 배웠다. 이러한 것은 문학에 포함시켰고, 모세5경을 주 교재로 사용했고, 다른 교재로 시편과 잠언과 집회서와 수학을 가르쳤는데, 히브리 소년들에게 잠언과 집회서는 특별 교육 교재로 종교와 도덕의 내용과 교육적 태도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 내용은 5가지로써 첫째 '쉐마'(Shema,신6:4-9의 내용)를 초등학교에서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실시, 말씀 한마디 마디 문자 하나 하나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게

---

46) Barclay, p. 38. (기독교 교육 1990년 6월호, p. 72)
47) 상게서, p. 72.
48) Swift, 전게서, p. 98. (기독교 교육 90년 6월호, p. 72)
49) E. B. Castle, Ancient Education and Today (Baltimore : Penguin Books, 1961) p. 179. (기독교 교육 90년 6월호, pp. 72, 73.)
50) Nathan Morris, The Jewish School, (London, Eyre and spottiswoale 1937) p. 18. (상게서 6월호, p. 73. 에서 인용)

하였다. 둘째로 '할렐'(Hallel,시편113-118장)교육으로 'hallel'(하나님을 찬양)과 'Challel '(하나님을 모독)을 100번씩 암송하도록 하여 그 의미와 행위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세번째는 창조론 부터 홍수의 역사까지 가르쳤고, 네번째로 레위기 1장 8절을 가르쳤으며, 마지막으로 아동 각자가 갖고 있는 이름 첫자부터 끝자까지를 문자로 하여 배우는 개인적인 교육교재의 내용을 갖고 있었다.[51] 또한 학교에서는 체벌도 가하도록 성경은 언급하고 있으며, 율법을 철저히 구전(Oral teaching)교육으로 배우는데 구전은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구전교육은 기본적인 교육방법인 바, 반복(repetition)과 교수(instr uction)는 유대 아동교육에서 기본적인 핵심이다. mishnah란 말은 그 자체가 '반복과 교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52] 유대인의 교사들의 교훈은 생명력을 지니고 가르쳤고, 성공을 가르칠 때 먼저 하나님께 신뢰할 때에 축복을 받는다는 자세를 가르쳤고(16:20, 28:25, 29:25, 3:5, 16:3, 18:10을 참조),지혜 탐구를 중요시하게 교훈해 준다.[53] 헬라의 지배시대에도 유대의 교사들은 문학에 있어서는 어느 민족보다 위대했다. 구약성경을 가르쳐 아동들에게 일찍이 거룩한 의식과 관습과 공·사적인 기원과 의미를 올바르게 알도록 하여 '책의 백성'이 되었으며,[54]"서기관 학교"교육에서 '소페림'(서기관)의 역할은 서기관 교육을 탄생시켜 일찍부터 특수전문 교육기관으로 중등교육을 담당했다. 서기관의 기원은 이미 히브리 시대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율법을 매일 선포하고, 학생들에게 해석과 해석방법, 조상들의 결단과 적용'을 모두 가르쳤다. 성전뜰이나 회당안에서 청년과 성인 남자들을 집단으로 가르쳤고 유명한 서기관마다 자기 그룹과 학교를 갖고 있었다.[55] 서기관 학교의 유명한 교사들로 '샴마이'(Shammai)와 '힐

---

51) Chorles Ashby, Our Educational Heritage, unpublished note(1985) p. 22. (기독교 교육 90년 6월호, p. 73)
52) William Barclay, 전게서, p. 39. (기독교 교육 90년 6월호, p. 74)
53)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0년 6월호), pp. 74-75.
54) Swift, op. cit, p. 99. (기독교 교육 1990년 6월호, p. 76.)
55) 상게서, p. 100. (기독교 교육 90년 6월호, p. 76.)

렐'(Hillel)같은 대 서기관들이 학교를 발전시키고 출중한 교사로 활약하면서 서로 대립도 했는데,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Gamaliel)이며, 그는 다소의 사울(Saul of Tarsus)의 스승이기도 하다. 이런 서기관 학교들은 헬라어를 배우는 장소에서 오히려 히브리 문학과 성경을 배우는 장소로 히브리 문학을 구전으로 배우며 암기하도록 했다. 서기관 학교의 두번째 '할라카'교육은 구전문학 연구방법으로 2가지인바, '할라카'(Halakah)는 구전에서 시작 기록된 문서로 연구를 넓혀 가는데 정치· 사회의 조건에 따라 적응하도록 교육하는 것인바, 구전의 율법을 공부하여 얻은 결단과 해석들을 고정된 형식에 따라 신성한 것을 깨달아 가도록 한 것이다. 할라카는 출애굽기 24장12절을 기초로 하여 기록문서와 구전율법으로 수세기 동안 기록하는 것을 금지했고 서기관들이 암기하도록 하였으며, 많은 문장들과 단어들을 철저하게 외우도록 하여 가능한 모든 해석들이 검토되었고 여러 해석방법들이 학습되고 실천되었다. 할라카 교육의 둘째는 '하가다'(Hagadah) 혹은 탈무드 교육으로, 하가다 는 문자적으로 '이야기'란 뜻이며, 할라카와 방법에서 구별은 안되 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범위와 연구가 포함되어 윤리· 주석· 설교· 등의 방법을 통해 잠언· 우화· 전통· 역사 및 과학을 연구한다. 하가다는 율법이외의 요소들을 취급하는 바, 일반법률· 제도· 관습들을 학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해석하며 이 구전의 문서들은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탈무드 가 있다.[56] 그럼 이것들의 교육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로 구전의 율법· 잠언· 훈계· 속담· 구체적인 사례· 사실과 상상력으로 제자들에게 율법의 원칙을 적용 훈련시켰고, 비유와 유비로 설명· 안식일과 축제일에는 서기관들 사이의 공적인 토론과 지적인 강의를 통해 민중들에게 강론을 했으며·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교훈하며 무보수(자유업에 종사)로 가장높은 지혜를 위해 봉사하여 '지혜의 교사'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학자들에 대하여 감사했고· 선조들 중 학자들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

56) Swift, 전게서, p. 101. (기독교 교육 90년 6월호, p. 77)

생각했고, 가난한자를 위해 십일조도 바치며 때로는 성전회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도 했다. '랍비'란 신약에서 선생으로 불렸는데 그리스도 시대 이후로는 바리새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57] 또다른 '현자'들이란 교사그룹은 지혜를 가르치는 것을 의무로, 그들의 교훈은 잠언과 집회서와 시락의 아들과 예수의 지혜서와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발견되는데,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것'이라 가르치며 종교성과 실천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했다.[58]

(4) 유대인의 여성과 교육(잠19:14,31:10)[59]

유대 여성의 사회 활동은 Peritz의 견해에 따르면, 여성의 위치는 가정에서나 회당에서 종속적인 위치였고, 아버지는 예배나 의식에서 책임적 위치에 있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손에서 일찍부터 훈련되고 교육을 받았다. 어머니는 아들 교육에 보조자적인 위치이면서 종속적인 위치였다. 어머니의 기본적인 책임은 열등적인 위치의 친딸을 교육시키며 가정을 돌보는 일이었다. 유대사회는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했고, 이상적인 여인상은 잠언 31장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훈계한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잠 31:10-31참조) 거기서 여성에게 가장 큰 덕행은 '경건과 자비와 절제'로 자기 남편의 관심에 정성을 바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가정의 최고 관리자이며 종교적 의무의 헌신적 실천의 위치였다. 그럼 유대 여성의 교육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그것은 가정이 여성의 최고 교육기관이었고 축제· 성전· 회당이 가정외의 교육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 이어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다. 기록된 전승에 의하면 유대 여성들은 성경으로 교육되었고 성경교육은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졌다. 유대 여성의

---

57) Trepp, 전게서, p. 34. (기독교 교육 90년 6월호, p. 78.)
58) Carol J. Causey, "The History of Hebrew Education", edited by charles Ashby Our Educational Heritage.(1985) (기독교 교육 90년 6월호, p. 78.)
59)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0년 7·8월호), pp. 82-89.

교육목적과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목적은 '유능· 근면한 가정주부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숙한 아내와 딸을 만드는데' 있었고, 교육내용은 교육의 변천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그중에서도 교육의 범위와 한계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그것은 초창기부터 가정의 의무· 음악· 춤· 종교· 관습과 도덕이 언제나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한 교육과 훈련의 본질과 방법은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소녀들이나 여성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갖는 직업은 '요리· 물레질· 털실 짜기· 염색과 가축 기르는 일· 포도 재배와 추수 및 방앗간 일'이 포함되었다. 후기에 와서는 3R(읽기, 쓰기, 셈하기)교육과 가정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부를 축적했다. 3R교육의 적용이 여성들에게는 언제부터인지, 그 기원은 확실히 알 수 없고 논쟁도 있지만 성서의 여러 곳에서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 근거를 얻을 수 있다.(왕상21:8 이세벨 왕후)[60] 따라서 유대 여성의 교육은 가정에 한정되었지만, 지식과 능력과 활동 표현과 재능 및 전문 직업은 수준이 높았고 이에 따라 참여하였다. 그들은 婦와 母로서 남성들의 직업에도 참여하고, 지식 직종에 참여도 하고, 이러한 실제 여성의 지혜는 구약에서 다방면에 걸쳐 나타난다. '법적 논쟁자 사사 드보라', '드보라 등의 여성 예언자'로 그들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고, 남편의 조력자로, 婦와 母로서 임무 속에 자신을 보충하고 발전시키며 완성시켜 나가 자신의 삶과 개성을 지닌 하나의 독립 자로서 남편과 상대자이며 동등자 였다.

3) 초대 교회의 교육

구약 시대의 유대교적 전통 속에서 생성된 초대 교회는 "위대한 인류의 교육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과 초대 교부"들이 이룩한 기독교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먼저 유대교의 전통 속에 생성되어 출

60) 상게서, pp. 82-88.

현하는 초대 교육의 태동부터 살펴보고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사도 시대와 교부 시대의 順으로 전개해 가고자 한다.

(1) 초대 교회 교육의 태동

고대 희랍의 지혜에 근원을 둔 그들의 철학, 이른바 "소크라테스의 도덕주의, 플라톤의 관념론적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재론" 등이 하나의 헬레니즘(Hellenistic)으로 발전되어 신앙과 이성· 회의주의와 종교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며, 알렉산드리아의 건설을 통해 헬라문화를 발전시켜 서구 문명의 요람이 되다시피 해 신약 성서적인 기독교 개념과 문화와 언어가 희랍화되고, 신흥 로마제국의 등장으로 희랍 문화는 로마에서 꽃을 피웠고 기독교는 강력한 로마제국의 풍토에서 출발하였다.[61] 초대 교회는 이러한 환경속에서 종말론적 유대교 전통의 의식을 자각하고 새 이스라엘 의 교육 공동체로서 자각속에 '선포하는 교회'로 등장하게된다.[62]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메시야 대망 사상은 편협한 국수주의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적 차원에 빠져들었으나 그들의 역사와 종교와 교육은 미래의 영광스런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와 메시야의 출현을 강조하고 가르쳤고, 율법을 통해 가르쳐 왔다. 이와 같은 영향은 교육에서도 '유대인들이 개발한 교육이 기독교 교육의 이론과 실재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초대 교회는 유대교의 전통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초대교회의 교육이 태동한것이라 생각된다.[63]

(2) 위대한 교육자이신 예수는 누구인가?[64]

---

61)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stian Education : Its History and Philosophy, (Chicago : Moody Press, 1983), pp. 33-60.
62)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5년 9월호), pp.30-32.
63)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 Moody Press 1964), pp. 75-77. (김근수 · 신청기 역, 기독교 교육사, pp. 109-112. 교사의 벗 1979년 10월호, pp. 22-23.)

우선 여기서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부터 탐색을 하고 그분의 교육적 사역을 전개 하고자 한다. 그럼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 이시다. 무슨 이유에서 선포자이신가? 구약 시대의 예언자나 제사장 그외 여러 인물들도 하늘나라의 소식통 이었는데 왜 예수만을 특별히 호칭을 그렇게 달고 있는가? 여기에는 단순하지만 않는 사실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구약시대의 수많은 유대의 선지자들로 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야'로 오신분이며 직접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분으로 미래에 오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인간들에게 은총과 심판안에서 계시하실 하나님을 문제삼고 있다. "때가 찼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준비하여 헌신하라"는 그의 첫 '복음'이 유대에 울려 퍼졌다. 율법 교사들의 '비유'형식을 빌려서 그들보다 더 탁월하게 가르치셨다. 비유는 청중들이 비유를 통하여 처음은 분명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형식이다. 예수는 직접적인 화술을 사용하신 것이다. 청중들은 듣는 순간부터 결단으로 인도된다.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는 단순한 민중들· 농부와 가정주부들· 목자와 어부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언어와 그림을 이끌어 내어 사용하셨다. 비유는 해명과 설명과 긍정과 수용을 가지는 힘이 있었던 것이다. 비유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관찰하면,

첫째 좁은 의미의 비유(GI-eichnisse)는 하나의 정규적이고 전형적인 사건을 수용하여 이를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게 하는 설명의 형식이다.(마 13:33, 누룩의 비유를 참조) 둘째는 비유(Parabel)가 흥미 있는 사건들을 우화의 형식으로 수용하여 일상성을 극복하는 설명의 형식이다.(마20:1-16, 포도원의 비유 참조) 셋째는 비유가 예화로서 비교하게 하는 대신 청중을 직접적으로 경고하여 생각과 행동을 고치도록 촉구하는 가르침의 형식이다.(눅10:25-37,선한 사마리아人 이야기) 예수는 비유를 논쟁에서는 전투의

---

64)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87년 9월호), pp. 52-56.

수단으로, 설교에서는 제자화로 사용하셨고, 초대교회는 이 비유들을 언제나 다시 설교하였으며 복음서 기자들은 이를 기록하였다. 비유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은 대단히 다양하다. 하나님은 사랑의父이시며,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자신을 인간에게 인식시키기로 결정하심을 비유로 가르치셨고, 동시대 人들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기도 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들의 것이다.(막10:14) 하나님 나라는 식물의 씨 가운데 가장 작으나 거대한 나무를 만들어 내는 '겨자'씨(막4:30-32)와 같고, 누룩(마13:33)과 같고, 열매(막4:26)맺는 것과 같다고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다. 즉 말씀에 권위를 갖고 가르치신 것이다.[65]

둘째로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처럼 그는 회당에서 가르치고 토론하고 권위 있는 대답으로 율법 해석의 대가요 권위자로 인정을 받았고, 예수는 비유의 직접성과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밝히심으로써 랍비의 일반성과 율법의 맹목성에 쐐기를 박았다. 예수는 율법을 확실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사회로 돌려 봉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하나님의 뜻은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과 고난과 고민과 방황함과 소외된 계층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요 이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는 유대 율법을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 내면화시켜 날카롭게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셨다.(마5:21 이하 참조) 선한 사마리아人의 이야기(눅10:25-37)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웃을 비켜 가 버린다. 그러나 천박하고 보잘것없는 종교적 이방인 사마리

---

65)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stian Education : Its History and Philosophy, (Chicago : Moody Press 1983), pp. 66-67.

아人은 즉각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예수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상호 거부함이 없이 조화를 이루는 아가페적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그 분은 대담하고 솔직하게, 예리하고 신랄하게, 민중들의 욕구에 대해 연민과 고도의 예민함을 지니고 진리에 대한 타협을 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교육 방식으로 가르친 대로 실천한 완벽하신 교사이셨다.[66]

구약에서는 이 사랑이 서로 상이한 계명들이었으나(신6:5,레19:18), 예수는 이를 이중계명으로 만들었다(마22:37-40 참조). 이 이중 계명을 율법의 결정적 중심으로 만들어 모든 형태의 제한들과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고, 무조건 타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을 한자로 '敬天 愛人'이라 하는바, 예수는 이 敬天愛人의 일원성을 자신에게서 분명히 드러낸다. 예수는 아버지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그의 뜻대로만 인간을 위해 살으셨다.'초대 교회'는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에 충실하였다(요일4:19-21참조). 초대 교회의 이와같은 자세는 예수의 가르침과 실천에 얼마나 익숙해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하여 사랑을 바로 배울때, 우리는 비로소 이런 사랑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일원적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 기독교 교육은 복음의 교육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육이며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한 교육이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 근거하고 있다. 예수는 어떤분이신가? 에서

세번째로 예수는 "全的他者"이시다(막10:45).[67]이말은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서 드러난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는 '사랑,자비,신뢰,평화,헌신,포기, 용서의 자세'였다. 시대의 경건한 자들이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생활과 의식구조에 있어서 평민들로 부터 스스로를 구별짓고 거리를 둔다.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소외 시킴으로써 그자들위에 군림할 수 있었다. 이

---

66) 상게서, p. 67-73. (유재덕 역, 기독교 교육사, p. 69)
67)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87년 10월호), pp. 52-57.

러한 성격이 침해 또는 도전 당하는 곳에서 그들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우리는 예수가 바리새人과 사두개人들의 비난하는 것에서 분명히 확인된다(눅15:2,15:11-12 참조). 죄인들과의 공동체를 예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의미로 여기셨다(막2:17). 그는 이해하기 힘들정도로 냉혹한 교사이기도 하다. 복음서(마18:6, 눅9:60,62절)는 이러한 절대적· 전적 추종을 강요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부드러움의 특징이나 강함의 특징이 모두 예수의 복음 자체 안에 근거하고,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기적 자아 집착과 자아 중심성을 지적하는 심판자이실 뿐 아니라 바로 인간들에게 자신의 삶의 공동체를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따라서 예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산 사람" 이다.

네번째로 예수는 "모든 질병들을 지배하는 분"이시다(마1:34).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은 다양하게 기록된 증거들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인간이 가지는 병은 그 근원이 인간의 마음에서 온다는 말도 있다. 성경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 예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그의 권능을 민중의 가슴에 깊이 심어 주었다. 즉 종의 모습을 갖추고 남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경건하고 모범적인 회생적 지도 방법에 의한 생활과 실례대로 인상깊게 가르쳤다.[68] 일반적으로 이적(기적)에 대한 과정 구성은 첫째 처음에는 대체로 병의 심한 정도에 관한 설명이 있고 나서는, 환자는 상이한 동기와 경로를 통하여 기적으로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 님과 만나고, 치유되고, 치유의 완전함이 즉시 증거된다. 이적에 대한 둘째 과정은 예수의 이적들은 흔히 일종의 징표로 이해되고 있다.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다(눅11:20). 세번째 과정은 예수님이 이적을 요청하는 곳에서 늘 이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현재

---

68)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stian Education : Its History and Philosophy," (Chicago : Moody Press1983), pp. 68-69. (유재덕 역, 기독교 교육사, pp. 70-71.)

하심과 사랑이심을 증거 하셨다. 그러나 자신의 권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기적은 언제나 다르게 설명되어 질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결코 하나님의 역사 증거가 될 수 없다(마12:24). 병의 치유는 예수의 권위적 말씀을 믿게 하고, 질병과 죽음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었다. 그는 질병과 귀신들린 상태속에서 악의 세력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역사는 기다리던 하나님 계시를 암시하는 '표적'들이었다. 기적이 무엇인가를 근대 과학의 탄생과 더불어 그 자체가 의문시되어 예수의 그런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기적을 무엇으로 의미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기적은 거기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역사 하심을 보게 되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다. 우리는 기적이 자연법칙의 파괴가 아니냐고 묻곤한다. 그런 질문을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제기 할순없다.기적은 과학적으로 관찰하면 자연 현상일 수가 없거나 자연의 한 예외적 특수 현상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신앙 자에게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의미로 가득찬 확실한 사건인 것이다.

다섯째로 예수는 "하나님 新民의 건설자"이시다(마16:24). 새로운 백성의 건설자란 말이다. 예수님은 경멸당하고 멸시당하며 온갖 오류와 잘못들로 뒤범벅이된 연약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천국이 임할 때까지 지속되는 삶과 고난과 소명의 공동체를 요구하셨다. 특별한 헌신과 참예를 요청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의 무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을 이루었다. 이를 우리는 그를 따르는 거대한 제자들의 무리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만을 특별히 제자로 선택하고 보내셨음을 잘알수 있다(마19:28, 눅22:30). 집회와 모임이라는 희랍어의 '에클레시아'(ekklesia)는 교회(마16:18)로 번역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였다. 출애굽기 19:5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다. 바로 이 새 계약의 약속을 예수는 이어 받아서 12제자들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에클레시아를 사용하심으로써 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모임을 바라보고 계셨다. 예수 부활사건을 계기로 교회는 탄생되는데 이러한 초대교회는 12제자가 심어놓은 공동체였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흩어졌다 다시모인 제자들을 예수는 다시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나누었던 식사들은 초대 교인들에 의해 그들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애찬과 성만찬으로 계속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탄생되었다. 예수는 어떤분이신가?의

여섯째로 예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시다(막1:15,마6:10,눅11:20).[69]복음서는 이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분의 행동과 요청은 도처에서 사람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공한 것이었다.(막6:2-3,마11:2-6). 복음서는 예수의 고유명칭을 "人子, 그리스도, 神子, 다윗의 아들, 구주, 주님, 랍비"등으로 호칭하였는데, 자신도 스스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셨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메시야라는 말이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말은 약속된 종말적인 왕에 대한 이스라엘의 희망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기대하였던 정치적인 메시야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눅24:2 6)과 평화와 사랑의 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분명해졌다. 그리스도의 지배는 우리를 위한 봉사자요 그의 권세는 우리를 위한 사랑 힘이다.'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도 복음서에 자주 나타난다. 이것은 예수를 가리켜 부른 호칭이지 제자나 교인들을 부른 호칭은 아니며 예수 자신도 그렇게 부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이며 고난과 부활을 하셨으며 현재도 활동하고 있음을 강조하셨다.(눅19:10,막2:10,28 ,8:38,13:26,14:62,8:31,9:31,10:33f, 마8:20,11:19,24:27)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행동하셨고 확신했으며 하나님께서도 확신하셨다.

일곱째,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다.[70] 그의 민중을 향한 말의

---

69)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87년 11월호), pp. 48-54.
70) 상게서, pp. 50-53.

내용과 지배 계층의 증오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미 예견하셨고 죽음의 길을 갔다(눅18:31, 마26:66). 예수 수난의 역사는 복음서의 가장 오래된 전승의 내용이기도 하다. 법정에서 예수는 신성 모독죄로 기소되었다. 막14:62의 말씀이 그 증거로 채택 되었다. 예수께서 이 말씀으로 인자가 최고의 법정보다 더 높은 위치의 심판자로 있음을 주장하신 것이다. 대제사장은 예수가 오래 전부터 백성을 유혹 한다고 의혹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처벌권이 로마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황제의 대리인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으며 사형 집행 압력을 가 하였고, 사람들은 예수를 '유혹하는 자'라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 확인하게 된다(마27:63,요7:12,49).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 이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에는 유태인과 이방인 모두가 참여했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복음서 저자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의 죽음을 증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예수는 유월절 전날인, 유태력으로 니산(Nissan)월(3월 중순-4월 중순)의 7월 14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날이 서기 30년 7월 14일 금요일이다. 알베르까뮈 같은 무신론자는 마가복음15:34의 말씀을 들어 예수의 종교적 실존이 실패로 끝났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프로 테스트하면서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예수의 죽음을 인간적 측면에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 들은 예수와의 유대를 느끼고 있다. 예수의 죽음 직전 외치심은 무신론자의 주장처럼 배신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전체적인 강도를 드러내고 있다.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서인 시편22:1의 말씀을 외침으로써 비상구가 없고 내버려진 자가 된 느낌을 표현하셨다. 예수는 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위해 책임과 소명을 하셨기에 그의 죽음은 희생 제물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심층적인 하나님의 체험과 약속과 소망이 응축되어져 있는 명절, 유월절에 죽으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서 그 의미가 빛나고 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예수를 '유월절 양'(고전5:7),'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1:29)이라 불렀다. 기독교 신

앙의 깊은 체험 속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모습이 있다(고전 1:18). 만약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모든 신앙과 사랑과 소망의 능력이 함께 못박힐것이다. 바로 그렇기에 십자가상의 예수의 무력은 그와 비슷한 시련을 당하는 이들에게 깊고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71] 이다(눅24:34). 신약성서에서 부활의 증거를 숱하게 볼 수 있는데, 가장 오래된 증거를 고전 15:3-7에서 본다. 4복음서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특별한 경험과 제자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 그들의 관심은 부활의 사실 확인에 있다(요20:31). 복음서들은 모두 부활하신 날 아침에 빈 무덤이었다고 기록하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장소와 시간과 증인들에 관하여서는 많은 기록의 차이가 난다. 복음서들은 부활하신 자의 현실을 인상깊게 강조하려 했고 가능한 표현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은 초상화 화가와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다. 초상화 화가는 그리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고 표현해 내기 위해 많은 개별 특질을 무시하거나 다른 부문에서 색칠하거나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서 기자들도 사건의 많은 특징들을 서로 일목요연하게 연결이 안된 채로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령 따위 모든 오해들을 강력하게 배척하고 있다(요 20:19-26,눅24:41-43).부활의 기록은 신앙을 깨우치고 확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신앙으로 쓰여졌다(눅24:5f). 텅빈 무덤은 부활 자의 영육이 온전한 전인으로 부활하였음을 지적하는데 적대자들도 텅빈 빈 무덤을 가리켜 시체를 도둑맞았다고 강조한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부활 사건을 대하는 인간들은 경악과 불 신앙과 의심들이다. 제자들도 그러했다(막16:6 이하,눅24:11) 제자들은 부활의 의미를 부활체험후에야 전체적인 깊이를 인식했다(눅24:32이하). 오늘날 부활의 소식에 접하는 인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의심은 인간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현실과 만나게 되는

---

71) 상게서, pp. 53-54.

표적이다(요20:24-29).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처형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거이다. 이근거위에 교회는 서 있다.

(3) 예수 님의 교육[72]

예수는 위대한 교사이다. 기독교는 이 예수의 복음과 교육 위에 세워진 집이다. 잠시 여기서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고 넘어 가고자 한다. "복음"이란 헬라어로 "euaggelizomai"(유앙겔리조마이)란 동사를 사용,"복음의 전달"이란 말로 바울은 가르치고 있으나 원래 "euaggelion"(유앙게리온)과 같은 '복음'이란 의미이다. euaggelizomai를 그대로 직역하면 '복음의 복음화'(gospelling the gospel)란 말이 되지만, 중복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교하라, 전파하라, 복음화 한다"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73] 그럼 예수의 교육은 무엇인가?

첫째로 "종족 중심 사상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의 파개"이다. 여기에는 4가지의 새로운 과제가 부여되었다. 그것은 먼저 '모든 인류의 하나님'으로 의 개방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종족 중심적 선민 사상을 모든 인류의 하나님으로 바른 신앙 형성의 기초를 열어 놓으셨다. 바로 여기에 예수의 교육 혁명적 성격이 근거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소명은 세상 만민을 위한 것이었으나(창12:3,22:18,26:4,12:3), 이스라엘 민족은 시온주의라는 선민 사상으로 이데올로기화했다. 여기에 예수는 신학적 용어로 종말론적 약속이라는, 모든 인류가 우주적인 창조주 선포에 동참하여 모든 인류의 하나님을 가르치게 된 것이다. 배타적 유대주의를 배격하고 만민주의적 신앙을 열어 놓은 것이라 하겠다.

두번째는 예수의 "새로운 가르침" 들이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의 해석

---

72) 상게서 12월호, pp. 54-58.

73) 루이스 J. 쉐릴 저. 이숙종 역, 기독교 교육의 발생,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4), p. 102.

(막2:27,37f), 최후 심판의 비유(마25:31-46), 이외 마태복음 25:35-36,40,28:18-20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각양 각색의 종교적, 사회적, 인종적 형태의 소외 계층과 선한 자와 악한 자,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고 함께 하며 가르치신 예수의 보편성은 성령의 임재(행1:8)의 약속이 시간과 공간을 포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임재 약속은 인간 평화의 실현을 전제로 기원하는 것이었다(요한복음 20:21 -22). 이렇게 예수는 철저한 유대주의 神觀을 열린 신앙의 세계화로 재창조하여 무지와 무능력을 깨우쳐 주셨다(행10:11f). 세번째는 전 세계에 주신 교육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로운 세계지배"(행11:18) 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육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행위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에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화로운 세계 지배의 목적을 위해 세계를 주신 것이다(엡1:22).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건설"을 목적으로 주셨다.

끝으로 "예수는 '너'에게로의 관심의 전환을 표방" 하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육'이라 하면 형식적이고 계획적인 학교교육이나 의도적인 교회의 학습활동을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은 인간 스스로 한계와 능력을 깨닫고 동굴속에 스스로 갇혀있는 상태에서 탈출하도록 함에 있다. 이러한 본질적 교육이 생성하는 곳에서 지금과는 다른 형식적 제도적 교육이 시작될수 있다. 예수의 교육은 성령에 의한 新 교육시대의 문이 열렸다. 기독교 교육의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것임으로 교육은 예수의 교육에서 깨우치고 각성하여 새로운 능력의 부여와 획득이라는 세계와 이웃을 사랑하는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헤겔'의 말대로 정신의 원심적 추동을 활성화하는 교육을 예수님의 교육에서 보게되는 것이다.

다음은 예수님의 교육에서 "말씀과 삶의 일치교육"을 2가지로 논의하고자 한다.[74] 첫째는 예수께서 '온전한 교사의 표상' 이셨다. 교사는 "소명

---

74)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88년 1월호), pp. 54-58.

의식과 學生愛와 내용적· 방법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예수는 이러한 것들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갖추신 분이다. 소명과 확신(요5:30), 敎育愛, 모든 지식을 소유하신 분이셨다. 그래서 율법의 원래적 의미로 율법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뜻을 가르치셨다(마5:43-44 참조). 그는 학생의 상태를 투시 적으로 알고 계셨고 언제나 학생의 영혼에 정확하게 불을 붙일 줄 알았던 방법의 소유자였다. 오늘의 일반 세속적 인문주의 교육이 쓰고 있는 "스프랑거의 지렛대의 원리"를 이미 그는 알고 사용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교육이 예술이었다. 예수는 학생에게 소유로부터의 해방을 가르치고, 학생의 생활과 경험과 관심을 통로로 하는 교육 방법을 사용하셨고, 말로 가르치고 몸으로 실천하며 손으로 지적하여 바로 잡아 주는 권위 있는 대 교사이셨다.

두번째로 예수는 "가까움과 멀음의 변증법적 교수형식"을 취하셨다. 예수의 교육형식은 자연적이요 비형식적 이었다. 주로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셨으며, 일상생활과 평범한 활동을 통로로 복음을 생활 경험과 자연과 사물에 비춰서 지극히 단순하게 가르쳤다. 가까운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으나 복음같이 먼 것은 너무 멀리 보이는 것이요 낯선 것이기에 다른 말로 설명해도 잘 알수 없다. 이를 예수는 자연스럽게 해명되도록 가르치셨다. 예수의 숱한 가르침에서 이러한 가까운 것에서 출발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세계에서 지극히 자명적인 것들에 대한 눈을 새롭게 뜨게 만들었다. 현세에서 내세로, 지상에서 하늘로 주무관청의 이전을 체험 한자들을 무신론자들은 미쳤거나 현세의 초월 자로 본다. 한번 자신의 일상성에서 잠을 깬 사람들은 그들이 새로 찾은 진리를 위하여 일상적 생활 세계를 무가치하게 여긴다.(요4:29).예수는 이렇게 지극히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삶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도록 가르치셨다. 예수의 교육적 특징은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렇게 생활하심으로 가르치셨다. 예수의 자신 속에서 이상적인 교사상과 교

육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예수의 교육에서 "공동체 교육"을 다루고자 한다.[75] 먼저 '공동체라는 교육형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들과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그들 한사람 한사람이 전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일당백의 위대한 일꾼으로 교육시키셨다. 즉 사람들이 있는 생업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마4:19), 그들과 함께 衣食住를 나누고, 가르치셨다. 그들과 함께 도시와 시골을 누비며 복음을 선포하고 신유적· 권능적 능력을 행사하시며, 사회에서 지탄받는 소외 계층과 삶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한 제자들을 반복적으로 재교육하여서 세상에 보냈다(마9:36-11:1) 두번째는 그럼 '공동체의 성립조건'들은 무엇인가? 에 궁금해진다. 마태복음 28:29-30의 말씀은 "두사람, 이 세상, 한마음, 예수 이름, 간구함"을 조건으로 가르쳐 준다. 공동체는 두사람 이상의 모임으로 이 세상에 있고 한마음을 이룬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속되는 공동체이다. 공동체의 위력은 공동체의 기도에 있다. 또한 그 위력은 예수의 현재하심에도 있다(마7:22,28:29,24:9, 행4:17f, 히13:15) 세번째'공동체 교육의 단계들'은 "절대 동등권 인정"으로 대화의 기본 전제인바, 예수는 가장 비천한 인간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동등권을 부여하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어, 인간을 구원의 길로 교육하신 하나님의 행위이다.

공동체 교육의 두번째 단계는 상이성의 인정으로 "용납의 원리"이다. 너와 내가 모든 인간들의 상이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행위(벧4:10), 남을 위해서는 전부인 것이다. 나에게 주신 은총의 관리는 상이성의 인정에 기초하여 너에게 주신 은총을 그 고유성에 있어서 용납하고, 너와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이 봉사되도록 하는 일이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가족된 기쁨과 지체간의 조화와 평화가 있

---

75) 상게서 2월호, pp. 33-37.

다. 그는 가르치기 전에 실천하셨고, 그대로 사셨으며, 교훈의 고상함이나 거룩한 성품 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권위적인 교육 방법론으로 분명한 목표를 갖고 가르치셨다.[76]

세번째는 "감정이입"으로 이는 용서와 화해의 원리이다. 자신을 남의 감정 세계와 역할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과 남의 행동 동기를 인식하고 나의 행동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요청된다. 교육은 시계추처럼 언제나 다시금 너의 세계로 뛰어드는 행위이다(요8:1-11 참조).

네번째는 "자아 주장의 포기"이다. 이는 개방성과 발전의 원리이다. 원죄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인간 자아의 주장'이다. 나의 주장을 개방할 때 거기에는 대화가 있고 발전이 있다.

다섯째는 "믿음"으로 결속의 원리이다. 믿음은 공동체의 결속의 띠인데, 공동체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지속된다. 끝으로, "두 사람이라는 복수의 형식"이다. 이는 공동체 작업의 원리이다(막6:7,눅10:1). 둘씩 둘씩은 공동체가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실천의 원리이다.(창2:18,1 :27)교육은 지금까지 기독교적 교육이 실천되어지는 곳에서 교육의 형식이요 통로로써 계속 확인되고 있다.

(4) 내일의 세계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77]

예수와 12제자는 로마의 사회 문화와 정치 경제적인 구조 안에서 교회의 기초를 닦았다. 교회는 고대의 희랍과 로마의 정신세계와 히브리의 종교세계위에 세워졌으며 이 고전 고대의 두 상이한 세계를 복음의 빛 아래서 만나게 하였다. 사도들에 의해 교육 공동체가 탄생된 것이다. 다락방(눅22:12f,행2:1,46,12:12)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였다. 사도들을 합해 약 120명의 신도들이 모여 "다

---

76)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64), pp . 77-81.

77)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88년 3월호), pp. 35-39.

락방 신앙 공동체가 성경에서 확인되는 첫 교회이다. 오순절과 더불어 제자들은 기다리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으며 예루살렘에 모인 세계 각국의 언어들로 말씀을 증거 하였다. 살아 계신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의 첫 출발을 이룬 '교육 공동체의 탄생일"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초대 교회의 4가지 특징들을 잘 묘사하는데, 그것은 초대 교회의 존속과 성장을 약속해 준 교육의 기본 형식들이다. 그 특징들은 첫째, "가르침"이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새 신자 교육의 핵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행2:1)과 예수의 부활(행4:33)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하였다. 둘째는 "교제"로서 공동체(Gemeinschaft)를 이뤄 '매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서로서로 섬기고 위하며 공동소유로, 교제를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불가 분리 서로서로 묶여져 있었다. 셋째, "떡을 뗌"을 '밥을 나누며'로 번역해도 무방할 이 사건(마14:19, 행2:46,20:7, 마15:36,26:26등)은 '하나됨과 나눔'을 연습하고,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음을 기억하고, 공동체의 공동식사를 즐기며, 이를 계속 실천하여, 종말론적 만찬을 미리 선취하는 체험을 하는 것이었다.

넷째는 "기도"로서 초대 교회는 기도를 통한 높은 공동체적 소속감을 간직하고 있다. 중요한 기도서는 시편이었고, 유대인들 '18 간구들'(Achtzehnbitten)과 주기도문, 새로운 시편들과 노래들을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자유롭게 카리스마적인 기도를 드렸고(행16:25,고전14:15,골3:16,엡5:19), 대표적인 사도들의 기도는 사도행전 4:24-30절의 내용이었을 것이다. 사도시대 교육은 성서 교육과 성찬식과 공동체의 모임이 있었고, 또하나는 가정에서의 교육이 주류를 이뤘다.[78] 끝으로 "교육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현재하심을 언제나 역사적· 사회 문화

---

78)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stian Education : Its History and Philosophy, (Chicago : Moody Press 1983), pp. 79-81.

적인 맥락 안에서 분명히 드러내 줌으로써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교회는 개체 교회로서 신앙 공동체와 구체적인 회중과 하나님의 백성 전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바, 개체 교회는 지역적· 사회적인 특수성 아래 있는 교회이다. 이 개체 교회들(살전1:1,갈1:2,고전1:2갈1:13)은 각각 교육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교회는 구원받고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어 실제 교회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통로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교회에 속해야 한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육의 본질적 원리이다. 초대 교회 교육형식들은 로마의 갖은 탄압과 박해속에서도 강하게 교회생활을 지배하여, 결국은 국교화가 되었고, 이후 중세와 근세에 이르는 그 기본적인 형식이 그대로 존속되어 교인들의 생활을 지배해 왔다.

(5) 사도들의 교사로서의 교육[79)]

먼저 사도(마3:14)들은 첫째로 전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에 보내어진 사람들이요, 둘째는 12제자는 후에 교회에서 사도로서의 직분과 위치를 갖게 되었다. '누가'에 의하면, 사도들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눅1:2)"이요, 예수에 의해 이미 "선택된 말씀의 증인(행10:41)"들로,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고(행1:5,8),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이요, 복음의 첫 선포(2:14ff,4:33,5:29)들 이었고, 첫 표적과 이적을 행함(행2:43,4:12)과 성령을 베푸는 첫 전권자(행8:17), 초대교회의 절대적인 지도자(행6:6,15:2ff), 공동 재산의 첫 관리자(행4:35), 교회의 성장과 선교의 최고 결정 기관(행8:14,11:1,1 5:4),박해와 핍박의 첫 표적(행5:18,12:1ff)자들로 적극적인 교회 교육의 역사적인 주인공들이었다. 두번째는 사도들의 5가지 공통적 특징들이 있다. 그것들은 "예수 제자로서 공동생활과 부활의 목격자와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고, 기적(고후12:12)과

---

79)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88년 4월호), pp. 41-45.

부활 예수께서 직접 과제를 주신 사람"들이다. 따라서 사도들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교회 지도자들이었다. 세번째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교사였고 이미 유대의 교사였던 바울은 당시의 유명한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그는 유대 사회의 엘리트적인 인텔리로 유대교와 희랍철학에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였으며, 교사요 해설자로 최초의 신학자였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후 교회형성후에 사도로 부름을 받고(갈1:15), 스스로 그리스도 일꾼(고후5:20)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 그는 각 지역 교회가 처한 시련과 문제들을 꿰뚫어 보고 이를 극복하도록 개 교회 중심으로 구별하여 가르쳤다. 바울의 전도 중심의 교육은 희랍의 언어와 문화로 당시 지배 계층에게 이해 가능하도록 정리되었다. 네번째는 카리스마적 직분으로 교사는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과 선택된 소수자들에게만 붙여진 대단히 '카리스마적'인 교회직분의 표현으로, 그들의 과제 영역은 서로 날카롭게 구분되지는 않았다(행2:42,11:26,13장,엡4:12). 마지막으로 섬기는 직분에서, 목회서신(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은 바울은 사도의 원형이요, 공동체 지도자의 표상으로, 사도의 유산을 보존하고 복음을 현재화하고 있다. 신약성경은 교사와 같은 직분이 개인에게 구체적 활동과 봉사직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 사도직도 교회공동체를 섬기는 (diakonia) 직분이다.

(6) 교육제도의 탄생[80]

고대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회당은 자연스럽게 기독교와 교회의 성장 조건과 배경을 형성하여 비유대인 신자들의 증가로 교회는 유대 사회의 교육 전통과 형식을 조절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 신자들의 구약적 율법 중심 생활과 신앙을 새로운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일과 이방 신자들의 특별한 교육이 필요 하는 과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정

80) 상게서 5월호, pp. 40-44.

한 제도와 형식의 틀을 갖춘 제도적 교육 형식의 최초 교육이 탄생하였다. 여기서 '세례 준비 학교'(Catechumenal School)가 탄생되어 '주로 이방인의 초신 자들을 기초적인 성경과 교리를 가르쳐 세례 받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교인으로 교육'을 하였다. 서기 1세기-2세기에는 이방 신도들의 증가로 각 도처에 이 학교가 설립되고, 3세기는 정규적 교육 기관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성경과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을 갖다 '세례예비생'(Catechumens)이라 불렀는데, 세례 예비 교육의 기본 형식은 반복적인 교육과 성구 암송, 일정한 예배 모범의 훈련이었다(눅1:4,행18:25,21:21, 24,롬2:18,고전14:19,갈6:6) 교육기간은 대략 2-3년으로 초급반은 성경 낭독과 설교를 통해 기초적 이해와 신앙생활 훈련을 하였고, 중급반은 기도를, 고급반은 보다 높은 수준의 교리와 예배 의식을 가르쳤다. 이러한 교육은 당시 부도덕한 사회생활과 혹독한 사회적 핍박 때문에 매우 철저하게 교육되어 졌다. 이러한 교육은 성공을 이루어 회생적 신앙의 전통을 가져오게 하고,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대화로 개인및 소수의 집단에게 대화와 문답식의 교육 방법으로 '교리문답서'를 가르쳤다. 그러나 유아 세례가 일반화되고 국교화가 됨에 따라 초신자 수는 감소하여져 서기 6세기에는 사라지고 대신 가정교육이 새롭게 재형성되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세례 준비 학교의 교육의미는 오늘의 교회가 '입교자와 세례후보생'의 교육을 충분히 철저하게 수행하는지의 반성을 준다. 교회가 성장하고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교육이 필요하자 희랍문화에 대응할수있는 고도의 지식을 갖춘 성직자가 필요하여 '교리문답 학교'(Catec hetical School)가 출현했다. 초대교회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이미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설립되어 이후 교인이 모이는 대도시에 '기독교 연구의 과학적 접근'[81]을 시도하는 센타 들이 생겨나 기하학, 천문학, 철학, 윤리학, 변증법 등이 가르쳐졌고, 성

81) Lewis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 Macmillan Company 1944), p. 201.

경과 기독교의 전승과 신학이 연구되고 교수되어, '헬라 문학과 문화'가 기독교의 시녀가 되게 하는 장소였다.[82] 2세기에 접어들어 교회에 감독 제도가 정착되고 성직자의 직능 분화로 계급적 서열제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교리문답 학교는 '성당 학교(Cathedral)혹은 감독 학교(Episcopal School)'로 불려져 신학자들은 연구와 교수를 주업으로 삼으며 회랍의 학문 세계로 빠져들어, 기독교 계시 신앙을 회랍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려 하여 교리가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 끊임없는 이단 논쟁을 야기시켰다. 그래서 '오리게네스'(Origenes)는 기독교 관점에서 헬라 문화를 교리문답 학교의 중학 교육과정으로 삼았고, '저스틴 마터'(Justin Martyr)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기독교인이라 가르치기에 이르자. 이에 대항하여 '터툴리안'(Tertullian)은 헬라 문화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회랍적 이성을 어리석은 것으로 낙인찍어 서기 401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는 모든 이교 서적을 교회와 학교에서 금서로 처분하였다. 세례 준비 학교와 교리문답 학교는 말씀과 생활의 교육에서 지식과 형식의 교육으로 변모시켜 교회가 말씀의 진리를 교권 주의와 형식주의로 대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앙과 개인 영혼 구원이란 복음의 최종적 통일성을 보존하면서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루게 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제도적 교육은 '코스모폴리탄적인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가 형성되어 '인간 평등사상'이 정립되고, 학교는 당시의 여러 이질적 문화와 정신과 생활 형식을 하나로 연결시켜 회랍 문화의 수용을 통해 기독교의 복음을 세계화하여 이러한 교육적 차원은 오늘의 기독교 교육의 통상적 과제요 문제로 확인되고 있다.

(6) 초대교회의 도덕교육[83]

가정교육이라 할 가훈(Hanstafel,엡5:22-6:9,골3:18-4:1)은 가족 구성원들

---

82)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 Moody Press 1964), p. 88.

83)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88년 6월호), pp. 37-41.

에게 주는 가르침들로 구성되어 신앙공동체안에서의 공동생활과 새로운 윤리도덕의 근거를 두게 했다. 악행과 선행의 목록(고전6:9-10,갈 5:19-24,, 벧전2:18)도 한나라의 국민과 시민과 교인이 지켜야 할 생활 의무를 가르쳐 준다. 가훈의 사회 윤리적 성격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서 그 시대의 사회질서와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전제하고 있어 세속사회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 사이를 정리해 주고 가정의 중심 위치를 확인시켜 준다. 파이데이아(paideia,엡6:4)는 '주님 안에서의 교육'과 '기독교적 도덕 행위의 강조'와 '가르침'의 이념을 갖는데, 기독교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는 척도로 사회가 바뀌고 기술 문명과 정신문화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삶의 조건들의 와중에서 추구되어 졌다. 따라서 오늘의 교회는 초대교회적 권위를 상실하고 강한 구속력을 가진 도덕교육을 하지 못하고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서로 상이한 가치가 공존하고 저속한 대중문화가 범람하며 폭력과 섹스의 상품이 청소년들의 영혼을 갉아 먹는 현실에서 초대 교회의 도덕교육은 현대 교회에게 이러한 도덕교육의 과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다져갈 것을 교훈하고 있다.

2. 中世의 敎會 敎育

이미 앞에서 언급한바 와 같이 중세 시대는 정치· 사회· 종교· 문화의 각 분야에서 혼란과 대립으로 탐구 정신은 소멸되고, 교회는 예배보다도 무지와 미신이 만연하고 각종 우상 숭배가 성행하여 학문적인 정열이나 인도주의적 봉사를 떠나 술책과 괴리가 판을 쳤던 시대인바[84]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

84) Elmer H. Wilds and Kenneth V. Lottich, "The Foundation of Modern Education," 4thed.(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70), p. 159. (기독교 교육 1991년 7·8월호, p. 74. 에서 인용)

1) 중세 초기의 수도원 운동[85]

그러나 다행히 중세 초기 수도원 운동을 통하여 교육의 기능이 강화되고, 기독교 교육 역사에 중요한 교육의 역할을 하게 되어 새로운 특징적 사상을 탄생시켰으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여 후일 사상적 근원지로서 중간 역할도 하였다. 그러므로 중세 교회의 교육은 이러한 수도원에서 행한 교육과 후기의 '스콜라 학파'의 교육으로 대변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수도원의 운동부터 논의하고자 한다.

(1) 수도원 운동의 기원[86]

'수도원 주의'(Moasticism)란 말은 희랍어 Monos="홀로"(alone)에서 와 Monos는 monastery에 그 기원을 갖고 있다. 수도원 주의란 말은 세상과 관련을 끊고, 수덕(修德)을 연습하는 금욕적인 생활을 가르키는 것으로 수도자를 monk라고 부른다. 수도생활은 "인간적인 애정과 세상의 보화와 자유 등의 포기를 요하는 희생의 생활이며, 봉헌의 생활"이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이므로 수도자란 말은 monk와 Religious란 말을 표기하기도 한다. 수도생활의 기원은 기독교 초기 2세기 경 금욕과 은둔생활을 위하여 사막생활을 한 것으로 4세기에 공동생활로 변모되어 수도원 운동의 형태를 만들었다. 수도생활은 금욕주의와 신비주의에 기원을 두고 있다. 즉 금주와 어·육류食및 결혼을 금하고, 기도와 사랑의 일로 수덕의 연습을 전념하였다. 성경에서는 복음서의 "만일 네가 온전히 되기를 원하거든 네게 있는 모든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곳과 사도바울의 독신생활(고전7:25-33)에 기원을 두고 있다.

---

85)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1년 9월호) pp. 43-48.
86) 상게서, pp. 44-45.

(2) 수도 생활의 의의[87]

예수께서 권유(마19,12,21장)하셨고 사도바울도 실천할 것(고전7:7)을 강조한, 수도 생활의 목적은 수도자들이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을 위해 자기 생애를 바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특별한 직무에 생활"하는 것으로 각 수도회마다 다르다. 수도 생활은 3가지의 '덕목'을 갖고 있다. 그것은 먼저 '청빈'은 수도사들이 스스로 무소유하는 것으로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시는 말씀에서 의미를 찾는다. 둘째 '정결'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독신을 고집하며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참사랑을 실천하는것이요. 세째는 '순종'으로 모든덕을 총망라 수도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겨 참된길과 제일 가치있는 덕행인바, 이상 3가지 덕목은 오늘날도 중요한 덕목으로 이해되고 있다.

(3) 수도원의 형성[88]

3세기 끝 무렵 애굽(이집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동방 지역에서는 먼저 '성 안토니'(St. Anthony)가 771년경 예수의 '무소유의 교훈'을 실천, 20세에 사막에서 노동과 기도 생활, 그의 모범과 청빈의 교훈으로 '예배와 말씀과 실천적 생활'을 하였고, 두번째는 '파코미어스' (Pachomius,292-348)로 20세에 입교·세례를받고, 341년 군제대후 수도를 시작·수행중 불규칙적인 은둔생활의 열정으로 평생 10개의 수도원(Dend erah의 Tabennisi수도원과 남· 여 수도원 등)을 세웠다. 다음은 서방 지역의 유명한 수도원들중 '성 베네딕트'(St. Benedict)의 수도원으로 서구 문명에서 서기 550-1150년까지 중요한 역할(Benectine Centuries)을 하였다. '베네딕트'는 3년동안 굴속 생활로 육체의 정욕과 죄악을 물리치는 연단을 쌓고, 안디옥에 제자들을 위한 12개 수도원을 세워 12명의 수도사와 1인의

---

87) 상게서, pp. 45-46.
88) 상게서, pp.46-48.

감독자를 배치 그는 수도사의 생활들을 돌보았다. 이 수도원의 특징은 '규율'(Rule)로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아니고 질서와 규범을 통한 지혜로 수도원을 운영하였는데, "영주"(Permance)는 종신 영주적 거주로 사회 혼란기에 수도원 제도를 안정시켰고, "순종"(Obedience)규율에 순종을 의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순종을 강조했다. 이 수도원은 수도사들이 육체노동과 기도 생활을 핵심으로 요구했다. 이상 중세 초기 수도원은 다양하게 발전 했는데 엄격한 공동체의 유래와 금욕 생활이 강조, 새로운 힘으로 애굽과 그리스와 후기 로마 문명인과 귀족계급과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로마 멸망 때까지 작용, 지배계급· 신학자· 저명한 교회 지도자들이 수도사중에서 나왔다.

2) 중세기 수도원의 교육[89]

(1) 수도원 교육의 목적

수도원 교육의 기본적 목적은 '내세를 위한 삶'을 준비하는[90] 것으로 수도원 운동이 발전하여 역사적 지배의 힘을 갖자 교육의 목적도 복잡해졌다. 대부분의 학교는 교회· 사원· 수도원안에 설립되고 성직자는 중세 말까지 가르치는 직업이 없었다. 중세 초기는 성당 학교에서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수행, 매일 책을 읽고 연구· 승려들은 매일 글자를 익히는 것이었다. 또한 교회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 다양한 기술훈련을 배워야 하고, 이러한 학교들은 6-11세기까지 유럽에서 교육을 지배하고[91] 있었다.

---

89) 상게서 1991년 10월호, pp. 48-54.

90) Wilds, Elmer H. and Lottich Kenneth, "The Foundations of Modern Educ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70), p. 162. (상게서, p. 48.)

91)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 Moody Press 1964), pp. 103-104.

이 학교에서 문자 교육과 수공 훈련은 강조되었으나 도덕과 종교교육의 기초는 등한시했고, 교육과 문학 활동은 순수 기독교와 기독교 교육에는 제한되어 있었을 뿐이다.[92]감독 학교와 교구 학교와 수도원 학교들은 교육 장소의 역할만 했는바, 소년들은 10세에 수도원 학교에 입학· 교육을 마친 후 8년후에는 수도원에 들어 갈 수 있었다. 중세 수도원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면, 하나는 수도사의 양성 목적으로 내교(內校,Internal School,견습수련생의 교육장)에 내원(內員,Scholar Interior,성직자 후보생)을 두었고, 다른 일반 학생들은 평신도 훈련을 받아(外校,External School) 수도원 외곽에서 학교에 다녔다(外員,Scholar Exterior).[93] 이러한 아동(Young Oblatcs)들은 수도원이나 수녀원(Convent)에 다니며 공부를 하였는데, 이러한 교육이 내교와 외교로 구분되기는 성 갈다(St. Gall)라 홀다(Fulda) 수도원으로 이런 수도원 학교들이 절정에 달한 시기는 8·9세기 살레망 대제 때였다.

(2) 수도원 교육의 내용

수도원 교육은 초급반과 고급반으로 구성된바, 초급반에서는 라틴어를 교육하는데 주력, 자유롭게 읽고· 쓰고· 계산할 수 있는 인문 교육의 기초 학문을 배워서 졸업하게 되면 고급반으로 진급, 문법· 수사학· 변증학 등 3학(trivium)과 산수· 음악· 기하· 천문학 등 4학(Quartrivium)을 배웠는데, 3학과 4학을 합해 제7 인문 학과(The Seven Liberal Arts)라 하여 중세기의 대표적인 교양과목으로 이것을 배움으로써 신학의 기초 학문으로 삼았다. 수도원 학교의 교육 내용은 聖과 俗의 두부 분으로 한 선생이 개별적으로 교육하여 세속적인 학문 연구들은 7개의 인문 학과에 두고 있다.[94] 3

---

92) 상게서, p. 104.

93) Kimball Wiles,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Foundation of Western Education," (Mekrill Books INC 1966), p. 115. (기독교 교육 91년 10월호, p. 49.)

학은 문학에 특징을 두고 4학은 수학에 기초를 두어서 고급반에 속했다. 7개 인문 학과의 기원에 대하여는 '보에티우스(Boetius,408-524) '가 초기에 분류한 텍스트 가운데 유명한 '카펠라'(Martianus Capella)의 "머큐리와 필로로지(문헌학)의 결혼"(Marriage of MerCury and Philolog y)에서 7개 인문 학과에 대한 설명과 '카씨오도로우스'(Cassiodorus,기원 568년경)의 '연구원들'(Institutes)이란 2개의 교육 논문에서 7개 인문 학과를 잘 설명하고 있다.[95]7개 교양과목의 내용을 소개하면, '문법'(Grammar)은 문학을 소개하려는 것으로 기본적인 읽는 기술을 포함하고, '수사학'(Rhetoric)은 주로 기록된 문장으로써 교회 역사와 경전의 율법 지식들을 포함하고, '변증학'(Dialectic)은 일종의 형식논리학(Logic)으로 초기 수도원 학교의 교육과정에 교회의 축제일과 경축일을 계산하는 일을 기초로 하였으나 그 이상을 배웠다. '수학'은 10세기 이전에 실시 아랍 세계 개념을 담고 내용도 확대시켜 갔다. '기하학'(Geometry)은 처음엔 건축 기술 이나 지도의 작성을 목적으로 시작, 기하학과 지리학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배웠으나 후에 유크릿드(Euclid)의 완전한 체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천문학'(Astronomy)은 축제일이나 금식일 의 날짜를 계산 목적에서 시작하였다. '음악'은 교회 음악을 연구하고 교회 예배에서 거룩하게 음악을 만들려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그런데 수도원 학교의 교육과정은 현재의 관점에서 이해하려 해선 안된다. 특히 7개 인문 학과는 그대로 해석할수 없다. 수도원학교와 성당학교는 모든 분야의 학습을 포함했다. 라틴어는 모든 서양의 학습에 있어서 도구로 사용되었다. 11-12세기 유럽 학생들은 지성인으로 논리학· 의학· 시민법과 교회법· 신학을 배웠는데, 기독교 지식 밑바닥은 13세기 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적을 재발견해 갔다. 점차 수도원· 사원학교에서 교육되는 의학· 법률· 신학의 내용들은 수도원에서 가르쳤고 세속학교의

---

94) Lewis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w York : Macmillan Company 1944), p. 257.
95) 상게서, p. 258.

성직자들도 가르쳤다. 이러한 것들이 후에 와서는 교육혁명을 일으켜 학생들은 유명교수들을 찾아 다니며 함께 모여 공부를 했다.[96]

(3) 수도원 교육의 방법

수도원은 교회에 성직자들을 공급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임무이기도 했다. "도제제도"(徒弟制度,Apprenticeship)는 기독교에서나 세속사회에서 가장 특징적 학습 방법으로 본래 중세기 길드제도(Guild system)에서 사용된 것인데, 소수자들만이 도제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외는 도외시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97]"기술교육"의 일반 교육방법은 '문답식 교육'과 교사는 학생들에 대하여 헌신적이며 당국의 문서사본을 외워서 쓰도록 했고, 언어는 라틴어만 사용토록 하여 대중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훈련은 엄격하고 의로운 태도를 지켜가야 하며 교사들은 때때로 회초리를 사용했고, 개인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았다. "명상과 묵상"이 수도원 교육의 특징으로 신비가들은 최고의 지식과 삶의 깊은체험은 신적인 영감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프란시스 운동은 대표적이었고, 수도자 버나드(Bernard of Clairvaux)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상징주의"의 교육 방법은 '미사'의 일상적 제의에서 문답식 교육으로 실시, 상징은 교육의 힘이 되었는데, 미사는 라틴어를 사용, 상징에 의해 예배는 주도되고 상징 그 자체 의미가 교육의 필수적인 수단이었다. 살레만(Charlemagne)의 개혁자들은 주기도문이나 사도 신경· 어떤 특별한 죄에 공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98]

이외에도 기독교 예배는 기독교 축제들이 교회력에 따라서 여러가지 상징적인 표현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농민들이 예배의 상징적 표현이나 아

---

96) Lewis J. Sherrill (이 숙종 역), 기독교 교육의 발생, (서울 : 대한 기독교 서회 1994), p. 303.
97) 상게서, p. 304.
98) 상게서, pp. 272-281.

이들의 회중앞에서 상징 표현이 중세 예배에서 필요하기도 했다.

연극과 음악은 교육 방법으로 사용, 상징적인 교육 방법은 문답식교육의 기본내용이었고, 연극을 통한 교육방법은 문맹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수난극및 여러형태의 종교연극은 좋은 교육방법이었다. 연극중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지옥과 천국구원을 가시적으로 표현할수 있어서 매우 효과를 나타냈다. 이전 교육방법은 평신도가 쉽게 참여할수 있는 카톨릭 지역의 도시나 농촌에서 지금도 시행함을 볼수있다. 그외 교육방법에는 '교회건축'이 건축의 예술을 통해 좋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99]

3) 스콜라 신학과 교육[100]

(1) 스콜라 신학의 발달

"스콜라 신학"(Scholasticism)은 10-13세기 기간을 지배한 지적 생활과 교육의 형태로 주로 대학을 형성하는데 주력했고, 문학과 지식을 훈련하는데 광범위한 역할을 하였다. 분명한 목적은 종교적인 교리를 명확한 철학의 표현으로 만드는 것으로 전적으로 권위를 상실해 가는 시대에 신중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고를 갖고, 새로운 정신과 사상의 세계를 탄생케 했다.[101]이시기에 기독교 사상에 지배적 원리들을 형성한 선구자는 "칸터베리 안셀름"(Anselm of Canterbury,1033-1109,이태리 출생의 유명한 스콜라 철학자)이다. 스콜라 신학의 발전에 그는 신앙 문제에 이성(Reason)을 적용, 신앙신조는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believe in order to understand)라고 하여 신앙을 통한 문제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신앙이 이성에 앞선다고 말하여 신앙은 계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연구해야 완전하게

---

99) 상게서, pp. 280-281.
100)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2년 1월호), pp. 51-60.
101) Lueua Cole, History of Education, (New York : Rinehart & Co, 1950) p. 165.(상게서, pp. 51-52.)

되고 완성된다는 것이다.[102] 그의 신학은 그의 "논문강화(Prosl ogium)와 독백론(Monlogium)"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그는 자신의 증명에서 '완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한 속성이라면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는 존재'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가장 중요한 신학 방법론은 신앙을 통해 알게 된 진리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성을 적용한 것이다.[103]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 유명한 두학파는 '실재론자(實在論者,realists)와 유명론자(唯名論者,nominalists)학파'들로 서로 다른 사상의 근원과 계보를 가지고 있었다. 실재론 자들의 주장은 플라톤처럼 일반개념이 실재라는 것이고, 유명론 자들은 보편적 개념이 '오직 이름뿐'이라는 것과 존재는 다만 개체(個體)만이 실재라는 것이다. 11세기의 그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서 철학에서는 실재론자 였다. 스콜라 신학의 두번째 인물은 '아벨라르드'(Peter Abelard,피터 아블라 라고도 함,1079-1142, 브리타니(Brittany)태생)로 실재론과 대립되는 인물로 토마스 주의에 영향을 남긴, 그의 '긍정과 부정'(Yes and No)에서 158개의 신학적 문제(성경과 고대 저술들의 해답이 불일치함을)를 제시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新 논리를 가지고 일반개념·種·類는 다 본질도 실재도 아니라 하고, 주관적·객관적 세계의 種의 실재와 보편적 실재를 인정,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주장했다. 신앙의 질문들은 13세기 결정적 요소들을 개인적 판단에 맡기는 방법으로 동시대 교수방법 중 하나로 시인되고 있다.[104]스콜라 신학의 세번째 인물은 "피터 롬바르드"(Peter Lomvard)로 '4권의 문장서'(Four Book of Sentences)를 저술, 신학을 조직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神論-종말론까지

---

102) Justo L. Conzales, The Story of Christianity, (서영일 역, 중세 교회사, 서울: 은성. 1990), pp. 150-152.
103) 상게서, p. 152.
104) 상게서, pp. 153-154.

신학의 주요 문제들을 취급, 대학의 신학 교수 기본 교재로 사용되었다. 선구자적 스콜라 초기 신학자들은 대학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유럽에 다시 소개되었다. 대학들은 도시의 발전으로 성장하고 학생들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밀려들었고, 성당 부속 건물이나 다른 형태의 학교에서 수업을 했으며, '일반 학문 연구소'(general St udies)가 출현했는데 여기서 유럽의 명문 대학들이 설립되었다. 현대적 형태의 의미의 중세 대학 구성원들은 권리 옹호를 주장하게 되고, 선생과 학생들의 '길드'(guild,조합의 형태)가 생기고, 12-13세기 기간 학문의 중심지로 대학이 성장과 명성을 날렸다. 의학과 법률과 신학 등이 일어나 파리와 옥스포드가 신학의 중심지가 되었고, 신학연구는 주로 성경과 문장서에 대한 주석과 설교와 논쟁들로 구성되었다.[105] 스콜라 신학의 후반기는 13C초-15세기초까지로 중동인의 학자들(아랍· 유대인)에 의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이 소개되었고, 그의 다양한 학문을 번역해 갖고 있었으며, 교회는 이를 읽고 논쟁하고 같은 학자들간에도 의견 차이가 다양해져 기존 교회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 이성의 결과로 논쟁과 혼란을 거듭하였다.[106]

(2) 스콜라 신학의 주요 공헌자들

아리스토텔레스의 全 철학을 스콜라 신학에 최초로 소개하고 교회 예배에 도입 한자는 '할레의 알렉산더'(Alexander of Hales,1245년경)이다. "보나벤투라"(Saint Bonaventura,1221-1274)는 전통적 플라톤이나 어거스틴주의적 이론들을 재확인, 신앙의 필수성을 주장, 철학에 플라톤 사상을 강조, 사상과 교육에 신비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알버트 마그누스"(Alb ert Maghus,1203-1280)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처음으로 체계적 형식에 따라 아랍의 주석서에 적용시킨 大 인물이다. "토마스 아퀴나스"(Tomas Aq-

---

105) 상게서, pp. 154-155.
106) 상게서, pp. 154-156.

uinas,1225-1274)[107] 는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와 교회의 가르침을 조화 시켰는데, 기독교와 문화와 학문을 서로 반대나 모순이 없게 하려 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는 "이방인에 대하여(Summa Contra Gentiles)와 신학 대전(Summa theligica)" 이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자신의 신학 구조로 취하여 후에 교리들과 계시로 이 신학을 구축, 교사로서 그의 공적은 뛰어나다. 그의 사상은 탁월하고, 문장은 진실 했으며, 가르치기를 철학과 신학은 원래, 그 영역에서 독립적인 과학이라 하고 이 두 과학을 구별하는 표준은 그 주제를 다루는 방법에 있다고 하였다. '교리의 연구는 권위에 의존하고 우주의 합리적인 연구는 과학적 해명에 의존한다'며, 철학은 이성의 빛으로 자연 질서를 연구하는 것이고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초자연적 질서를 연구하는 것이라 했다. '신학 대전'에서 하나님·인간· 그리스도를 논하고 하나님은 원동자(原動者,the prime mover)이며 제일 원인이시며 그에게서 모든 것이 오고, 그는 마지막 원인이어서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고, 스콜라 신학은 그의 생존시에 절정을 달했다가 이후로는 쇠퇴하였다. "둔스 스코투스"(Duns Sxotus, 1270-1308)는 이성과 신앙을 분리, 절대 진리는 신앙이라고 주장, 신학이란 인간의 이성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학문이라고 주장하였다.[108] "윌리암 오캄"(William Oxxam,1280-1347)은 유명론 사상을 개정, 그의 작품에서 실재론의 체계를 공격, 신학적 교리는 전적으로 신앙적인 것이어야 하며, 이성에 의해서 증명하는 일은 인정할수 없다고 하면서 주장하기를 "보편성(universale)은 단순히 마음의 개념일뿐이지 옳고 그른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불변하는 의와 불의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있을 뿐이라"하여, 옳고 그름의 개념은 완전히 일시적이고 오직 하

---

107) Elmer L. Towns,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Michigan :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5), pp. 71-81.

108) C. B. Eavey, History of Chrisian Education, (Chicago : Moody Press 1964), p. 112.

나님의 뜻만이 옳을 뿐이라 했다.교회적· 정치적으로 그는 교회의 권위에 도전을 표시, 결과적으로 스콜라 신학은 마지막 쇠퇴기가 시작된다.

(3) 스콜라 신학의 영향

첫째는 대학의 발달이다. 대학이란 말은 자치 독립의 연구 단체로 표방, 교수와 학생으로 조직된 일종의 길드(Guild)로 된 특허 단체로서 자 유도시와 항쟁하면서 자치적인 학원을 형성한 것에 중세 대학의 특색이다.[109] 당시 대학(university)을 일반 연구소(Studium Generals)라 부르는 것은 누구나 어디에서 모여 와도 좋다고 하는 일반적인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종합대학(university)의 호칭이 되고, 학생의 합숙소(Collegium)가 현재의 단과대학(College)의 명칭이 된 것이다.[110]

둘째는 교황권과 제왕권이다. 대학은 어떤 권위에도 굴하지 않고 양 두 세력을 견제하는데 섰고, 독립적 자유의 성격을 가졌다. 대학의 교수와 학생은 병역과 납세의무를 면제받고, 학문의 제제나 처벌권, 학장· 총장 선출 등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대학은 학위수여· 기여금 모집의 권리를 갖고 있었다. 중세 대학은 보통 신학과· 법학과· 의학과· 문과 등 학과로써 성립하며, 문과는 3학과의 예비학과로서 교수했다. 대학의 교사는 일반적으로 교수하는 교사와 반대적인 교사가 있었는데, 졸업생은 전부가 대학 교사의 자격과 의무를 갖는 것이 보통이었다. 교사들의 학과 담당은 신학· 법학· 의학의 경우는 각각 전문 학과목별로 담당, 문과의 경우는 문과의 과정을 거쳐 교사의 면허를 받은자면 누구나 수학· 자연과학을 포괄하는 철학적 과학의 전 영역에 정통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수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다른 3학과의 예과인 문과에서는 문법· 논리학· 심리학· 자연 철학· 도덕철학 등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자들을 중심으로 교수되어, 수도원 학교나 본당 학교

---

109)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2년 1월호), p. 13.
110)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2년 1월호), pp. 57-58.

의 7자유과의 교수조직은 크게 변화를 가져왔다. 교수의 내용은 성경과 롬바르드(Peter Lombard)의 '명세집'과, 각 분과의 교수는 분과대학장(Deca-me)을 선출하고 분과대학장은 다시 총장(Rector)을 선거하고, 분과 임기는 1년으로 했고, 학위는 "Doctor, Master, Master Piec, BaChelor"등의 학위가 수여, 이 학위의 호칭의 연한은 대학학과 에 따라 일률적인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장 오래된 대학들은 이태리의 '사제느노, 프랑스의 빠리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캠프 리지 대학. 독일 오지리의 푸라그 대학, 위인 대학· 하이텔 베르그 대학, 쾨른대학 들이 있다.

(4) 중세의 교육[111]

지적· 영적· 사회적 훈련에 치중한 교육이 특성으로 당시의 교육은 서적 중심적이었다. 글로 쓰여진 말은 실제 권위의 본원이 되었고 중세 교육은 이것에 의존, 학교는 학생들에게 겸손과 복종을 고취한다. 많은 탁월한 학자들이 비판적 능력· 주도성· 창의성을 보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특질이 학생들을 격려하는데 까지 못갔다. 교육의 주요 목적은 라틴어를 읽게 하고,주된방법은 소정의 책을 외우는 것이었고, 전 교육과정은 교과서 내용을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전달하는데 있다. 중세 학교는 초· 중등교육이 수도원학교· 교수학교 (Parish School) 또는 노래학교(Song School)· 승원학교 등이 있어 라틴어를 읽고 기도훈련· 찬송가 부르는 법· 교회 봉사 등 종교의식을 배웠다. 고등학교는 12·13세기 대학 출현 전에는 7자유 학과를 배웠다. 또 사회적 훈련의 교육으로서는 기사도 교육이 있었다. 기사도 교육은 중세 기독교에 의하여 강조된바 '자비· 명예· 관대· 약자의 보호· 기독교에 대한 충성심· 전쟁에서 강인 용기 인내를 강조', 기사도 교육은 3가지 단계로 첫째는 7-14·15세까지의 소년에게 기사 견습을 통하여 궁정의 예

---

111)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stian Education : Its History and Philosophy, (Chicago : Moody Press 1983), pp. 95-115.

의 악기 사용법· 종교의식· 모국어를 배웠다. 둘째로 2단계는 14·15-21세까지 기사의 종자(從者)로써 배우며 승마· 사냥· 전투 연습· 노래· 무도 게임을 배웠다. 셋째 3단계는 기사가 마사(night)되는 단계로 대략 21세 정도로써, 종교의식을 통하여 기사호를 받았다. 또한 '직공 교육'(職工敎育)은 非 학교교육 기관으로서 도제 교육제도(徒帝敎育制度)가 있었다. 여기에는 견습· 직공· 동량의 과정을 거치는 교육 기간은 대체로 3년-11년이 걸렸고, 소년들은 7-8세부터 시작되었다. 중세 교육은 로마의 멸망과 함께 교리가 형식화되고, 라틴 교부들의 활동과 교권 주의 교육이 활발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변되는 스콜라 철학이 교회 교육에 영향을 주었다.

(5) 중세 교육의 영향[112]

중세 대학 교육은 오늘의 대학 교육에 다양한 면으로 영향을 준바 많다. 첫째 오늘의 대학이 조직의 구조· 관습· 학위 수여면 에서 유사하다. 둘째 오늘의 사회에서도 역시 높은 수준의 학문을 소유한 학자들을 존경하고 배우려는 점이 유사하다. 셋째는 고등교육을 받음으로 세계인이 인정되었는데, 오늘도 학습은 세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넷째는 교수직이 중세기에는 중세 대학에서 전문화되었는데 현대에도 전문화된 연구는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다섯째 대학이 중세에는 권력을 시민의 힘으로 만들었다. 오늘날의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건 세속적 교육이건 과거와는 비교될 수 없다. 오늘의 학교는 기술 혁명의 산실로 되어 가고, 이런 개념은 주로 인본주의 교육이나 실용주의 철학에 기초한 교육들이다. 오늘의 아동들은 생활 방식이 모두 철저한 체계와 능률과 효과 위주로 되어 가고 있다. 중세교육은 종교적·사회적으로 논리 중시 교육모습 이었으나 근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공식적논리는 뒤로 후퇴되어 있다. 스콜라 신학자들의 이성은 신앙에 종속되어야 함이 기본원칙 이었으나 오늘의 논리와 이

112)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2년 1월호), pp. 59-60.

성은 삶의 목적이 되어 버렸다. 중세는 완전한 선을 추구했는데 근대 시민 사회는 목적자체를 마지막으로 추구하고 있다.

13세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조명으로 스콜라신학의 방법론을 발전 시켜, 이 신학은 지적성장의 문을 열어,르네상스의 탄생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학습은 근대사회로 확전되어 도전과 반대의 긴장을 가능하게 하고, 암흑시대의 새로운 관념의 빛으로 암흑은 도전을 받았다. 이시대의 발견들은 신앙에 대한 이성의 도전, 르네상스는 봉건제도에 대한 민주주의 도전이었다. 중세대학이 인본주의 정신이 흐르고 교회 또한 세상의 잡음과 위기로 시끄러울때,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자기 희생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3. 近世의 敎會 敎育

1) 르네상스와 인본주의 교육

로마 카톨릭이 13C 이후 쇠퇴하여기, 철학과 교리와 교육에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 교회내 개인주의와 신비주의가 프로테스탄트의 방향으로 흘렀고, 산업 혁명· 르네상스· 종교개혁의 시대가[113] 열린다. 특히 르네상스는 교회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교회는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었던 '성경 원전 연구와 기독교 인본주의'(Christian Humanism)가 태동, 기독교 인본주의 자들과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등장 공헌했다.

이 시대의 '르네상스'의 교육에서 "게이루트 흐로우트"(Geert Groote, AD1340-1384)의 교육목표는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닮는"것이었고, 인문주의 거두 "에라스무스"는 '국가의 역할을 크게 강조'했으며, 그의 교육 방법론은 "아동 본성에 대한 세심한 연구와 학대에는 격노를 했고, 교육에서

---

113)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 Moody Press 1964), pp. 132-139.

놀이와 실습을 강조했으며, 목적을 달성시에는 칭찬과 보상을 선호하는 봉사 차원의 교사론을 주장"했다. 또'후쓰'(1369-1415)는 실천적인 기독교를 장려할 목적으로 학교 제도와 우수 대학교를 발전시켰다.[114]

또한 "비호리노 다 펠트레"(Vittorino Da Feltre, 이태리 태생)는 '즐거운 집'(the Pleasant House)라는 '정원 학교'를 세워 함께 기숙, 의식주를 돌봐주고, '미션스쿨'로 영적· 도덕적이며 정신과 신체와 인격이 조화를 이룬 건전 시민 육성이 목적이었다. 이같은 교회 교육은 '공동생활 형제단'에게 영향을 주어 전 유럽으로 확대되어 성경 원전 연구가 크게 일어났는데, '웨슬레'가 대표적 인물이다. [115] 공동생활 형제단 출신의 유명한 교사들 - 요한 세레(John Cele), 알렉산드 해기우스(Alexander Hegius,1433-1498), 유명한 학자들로 '요한 바젤(John Wassel)· 요한 스팀(John Sturm)· 에라스무스· 예수회(Jesuits) - 은, 학교에서 문법· 수사학· 논리학· 윤리학· 철학 등을 재훈련, 성직자와 평신도에게 성경과 일반 교양 교육을 가르쳤고 (요한 세레), 교육환경 개선에 심혈을 쏟아 학생들이 배움과 실제 생활 일치를 갖게 하여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가져와 성경중심 교육이 되었다.[116]

2) 종교 개혁기의 교회 교육

중세 말엽부터 약 200여년 이상 기성 교회에 대한 불만이 증가되었고 개혁을 시도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작되어 15세기 말엽부터는 '세속적 개혁 단체'와 경건적 개혁 단체'가 형성되어 성경 원전 공부와 초대 교회 교부들의 저술을 공부했다.[117]세속사적으로 최초의 종교 개혁 성공자는 "마

---

114)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stian Education : Its History and Philosophy, (Chicago : Moody Press 1983), pp. 125-133.
115) C. B. Eavey(김근수·신청기 역), 기독교 교육사, (서울: 한국 기독교 교육 연구원 1995), pp. 183-192.
116) 교사의 벗, (서울: 한국 기독교 교육 연구원 1980년 7월호), pp21-22.
117) 상게서 10월호, pp. 24-25.

틴루터"(Martin Lutter, AD.1483-1546, 독일 태생)로 그는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성서 연구를 위해 '언어 연구'와 가정교육만으로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교회와 국가'의 '의무 교육론'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영적· 지적등 다각적인 전인적 인격교육과 문화의 추구와 신앙적 교육을 목표로 정하고 만인교육설을 주장, 아동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회와 국가가 보통· 의무교육으로 성경을 주 과목으로 하여, 모국어· 외국어· 문법· 수사학· 논리학· 문학· 수학· 역사· 음악· 체육· 자연 등의 교육과정을 주장했다. 아동교육에 읽기와 쓰기, 문법을 가르쳐 신앙과 복음의 이해에 도움을 주게하고, 사랑과 이해로 가르칠 것을 주장, 아동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상당했고 신선한 교사의 봉사 상을 높이 평가하여, 근대교육에 큰 공헌자가 되고, 복음적이고 성서적이며 기독교적인 설교로 장년 교육에 힘쓰는 등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쯔빙글리"(Huldreich Zwingli, 1484-1531)는 "교육이론을 학습자와 하나님 및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두고, 교육을 上·下로의 개혁 방법을 실천하여 기독교의 원전들을 연구하고 복음주의적 실행을 감행, 학습을 경험에 기초 인격을 매우 중요시하고 사회와 완전 일치하는 공동체적 교육을 실현, 현대 교육 기법의 선구자"가 되었다.[118]이 시대의 개혁의 기수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영향은 유럽과 미국에까지 미쳐 "개인구원과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성서적· 복음적인 新 프로테스탄트的 교육을 강조, 일반 대중 교육을 위하여 대학교를 세우고 헌신" 하였다. 또 같은 때 "멜랑히톤"(Philip Melanchton, 1497-1560)은 루터의 교육적 견해들을 학교에서 정립하고 구체화시킨 인물이다. 이때부터 역사적· 전통적인 세계 유수 명문대학들이 세워져 종교개혁은 교회 교육의 개혁이라 할 수 있다.[119]특히 루터의 교과과정은 보편

---

118) Elmer L. towns,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Michigan :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5), pp. 103-134.

119) Elmer L. Towns(임영금 역), 인물 중심의 종교 교육사, (서울 :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3), pp.213-238, 249-260.

적 만인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훈육과 암송과 이미지와 예증 및 성경과 신학의 내면화를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방법론을 주장했고, 멜랑히톤은 성서와 신학 중심의 교육을 말했으며, 쯔빙글리의 교육적· 신학적인 도시화, 칼빈의 실제 생활 방식의 칼빈주의화와 스코틀랜드의 교육적 농민화를 이룩한 낙스의 교육관 등은 역사적 기독교 교육의 교육적 유산들이다,[120]그러나 이러한 종교개혁의 거센 바람도 근대의 중엽이 되면서 차츰 퇴색해 간다. 교회의 세속화의 현상 때문이었다.

3) 17,18세기의 교회 교육[121]

17·18세기는 산업 혁명과 근대 자본주의 성립으로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였다. 중세와는 다른 세속적인 세계(secular world)가 성립되고 이성의 시대(Age of Reason)가 되면서, 교회의 교육의 직무와 교육자의 권리를 세속 국가로 넘겨주고, 제도적으로 정교 분리(Separati on of Church and State)의 원칙을 수락하게 된 것이다.

(1) 변모하는 학교교육[122]

산업 혁명으로 도시화와 생활의 분권화가 되면서 교회 주관의 학교교육이 전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어 새로운 학교들이 출현하여 천년의 교육기관들과 대치, 새로운 평등사상과 세계의 초등교육에 대한 열망은 이 새학교들의 큰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첫째 재정 기부자의 자녀의 '사립학교', 둘째 성직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밀접한 감독과 조정 아래 교회와 연결이 짙은 학교, 셋째 재정적 자립으로 중세적 공립의 '자선학교'(Charity School) 등이 백성들의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초보적 종교 교훈의

---

120)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유재덕 역), 기독교 교육사,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2), pp. 151-164.
121) 기독교 교육,(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5년 12월호), pp. 34-38,14.
122) 상게서, pp. 34-35.

일반 교육(commoni education)으로 발전, 일반 학교는 일상용어를 가르쳤고 시민적 기초 훈련을 교육했다. 이같은 교육과 병행해서 낡은 형태의 고전 학교(classical school)도 계속 유지되어 소수의 선택 자들에게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쳤다. 학생들은 졸업 후에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를 교육하는 아카데미 나 대학에 진학했다. 그럼에도 새로운 형태 학교교육의 계속적 출현은 교회 학교 교육의 행사 능력을 점차 감소시켜 나갔다.

(2) 정통주의 교회 교육(orthodoxism)[123]

세속의 저항에 소극적으로 자기를 폐쇄하는 입장인바, 유럽에서는 프로테스탄트의 정통 주의, 미국에서는 근본주의(fundamentalism)로, 이 입장은 자체 속에 완고한 폐쇄성을 지닌다. 즉 논리적으로 완결함을 내세우면서 다른 입장을 일체 허용 않는다. 17세기 프로테스탄트 정통 주의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 없고, 개혁자들의 교리인 '신앙義認' '성서제일주의' '만인제사설'등을 그대로 전통으로 고집했다. 이들은 개혁자들의 교회 교육 방법을 그대로 전수 받아 우선 성서 교육은 고정된 권위를 존중했고, 카테키즘 교육과 견신례 교육이 교회 교육의 중심을 이루었는데, 카테키즘 교육은 극도로 형식화되고 율법화되어, 카테키즘 교육에서는 주로 암기와 암송이 강요되고, 카테키즘 교육의 형식화와 율법화가 그 특징이다. 따라서 정통주의 교회교육은 형식적으로는 옳을지 모르지만 내용상으로는 프로테스탄트의 역동적· 생동적 성격을 이미 상실해 버린것 이다.

(3) 경건주의 교회 교육(pietism)[124]

정통 주의와는 반대의 입장으로 세속 세계에 적극적인 반응을 표방하는 입장이다. 주로 중세기의 신비주의와 독일의 신비주의 흐름에 그 전통을

123) 상게서, pp. 35-36.
124) 상게서, pp. 36-38.

두고 17·18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교회 내면적 개혁 운동을 경건주의라 한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정의적· 내면적인 경험과 그것에 연결된 경건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이 입장은 좁게는 독일 경건파를 넓게는 구미의 각 신앙부흥 운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한 강력한 저류를 이루고 있다. 이 흐름속에 살던 자들은 공적· 전통적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 입 장에 선다. 그러나 대부분은 평신도 형태의 운동을 취하며, 기독교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교회안에 교회'라는 형태를 취했다. 결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생활양식은 대체로 극히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것이었다. 독일 경건주의 경건파 창시자인 '스페너'(Spener. P. J.,1635-1705)는 내적인 신앙 경험을 강조, 육성할 필요에서 소그룹을 조직, 영적 신앙 훈련을 실시했다(딤전4:7 참조). 이 집단을 '경건한 집회'(Collegia pietatis)라고 불러 경건주의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이 운동이 각지에 퍼지면서 그는 이를 정리하여 서기 1675년에 '경건의 염원'(Pia desideria)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에서 그는 6가지 실천 강령으로, "첫째 적극적으로 성서와 친하고 연구를 중요시하고, 둘째 자각적인 평신도 전도 운동, 셋째 실천적 그리스도교를 전개, 넷째 종교적 논쟁을 폐지하고 다른 신앙의 입장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일, 다섯째 학문과 실제를 병행시키는 성직자의 교육, 여섯째 설교를 보다 단순화· 실제화 시키는 일"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그 당시의 학교 제도를 비판하면서 학교가 신앙을 육성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125] 스페너의 제자인 '프랑케'(Franke. A. H, 1663-1727)는 당시 실천적 교회 교육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빈민 학교와 고아원과 귀족 자녀의 학교와 교사 양성 학교와 고등교육 교육기관을 종합한 '프랑케 학원'을 세워 기숙사 중심의 師第공동의 전 생활적인 종교교육을 실시했다. 그의 교육은 주로 자선 적이었고, 영혼의 함양과 성서의 연구를 중요시 한 것이었다.[126] 독일 경건주의 교회

---

125)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 Moody Press 1964), pp. 179-181.

126) Elmer L. Towns,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Michigan :Grand

교육은 한마디로 적극적인 성서와의 친밀감과 소극적인 이 세상의 악과의 격리를 요구하는 교육이었다. 경건주의 또다른 유파는 '모라비아 교도'(Moravians)들로 세계 최초의 교육학자라 할만한 "콤메니우스"(Comme-nius, J. A, AD.1592-1672)는 조국과 종교를 잃고 방황하는 모라비아인들과 같이 유랑생활을 하며, 유명한 "대 교수학(Didactica Magna,1657)"을 출판했다,[127] 그러나 실천적인 면에서 모라비아의 형제단적 전통과 경건주의를 결합하는데 공헌한 인물은 독일의 "진젠돌르프"(Zinzendorf, 1700-1760)이다. 특히 그는 경험파의 입장에서 인간교육속에 영혼의 깊이를 주었을 뿐 아니라 모든 아동 존중을 역설했다.[128] 모라비아 교도들의 교육의 특징은,

첫째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책임이었다. 동기가 '경건을 위한 교육'의 요구에 결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보다 내면적인 철저함을 더했으며, 특히 교회 공동체로부터 탈락자들의 교육으로 발전했다. 둘째는 신앙적인 回心을 위한 교육이었다. 이들은 참다운 교회를 내적인 경건으로 훈련하고 획득함을 말하고 이 경험이 다른 말로 '회심'의 강조가 된다. 이것은 당시 프로테스탄트의 새로운 입장인데, 이 회심의 강조가 후에 영국의 감리교 체험주의 운동과 미국의 부흥 운동(Revivalism)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셋째는 자선적 학교교육(charity school educa tion)으로 국내전도 추진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윗헤른(Wichern, J. H.), 플리드너(Fliedner, T.), 뢰헤(Loehe, W.)등이 이 방면의 공헌 자로 이들은 주로 사회사업을 통해 缺格아동에 대한 교육에 크게 공헌했다. 우리는 교회 교육에 대한 경건주의 공헌을 계속 말할수 있을 것이며, 교회교육과 세계 복음화의 과제를 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129]

Rapids BAKER BOOK HOUSE 1975), pp. 190-198.

127) 상게서, pp. 177-188.

128) 상게서, pp. 200-208.

129)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stian Education : Its History

(4) 합리주의 교회 교육(Rationalism)[130]

이 입장은 19세기초에 나타났던 것으로 세속 세계의 도전 앞에 자기를 받아들여 순응해 나가는 위치에 섰다. 즉 근세 사회가 몰고 온 理性의 존중과 과학적· 도덕적 합리성의 중요시 진화론적 사고의 수용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수용된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측정하고, 기독교를 정정· 수정하거나 재해석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결국 그 원리와 모순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는 입장이라 하겠다. 이 경우 성서의 외형적인 권위가 이미 기준이 될 수는 없고, 세속 세계에 내재하는 법측성· 이성· 과학성· 합리성· 진화성이 기준이 된다고 할수있다. 이와 같은 합리주의가 교회교육에서 구체화된 것이 19세기 초엽의 '종교교육 운동'이다. 18세기말-19세기초에는 카톨릭과 같이 프로테스탄트도 외국 전도를 개시했다. 외국 전도는 우선 기독교 문화의 移植으로 시작, 복음 선교· 복음 교육· 신유 등의 방법이 채택되었고, 주일학교 외에 '미션 학교'교육이 크게 개척자적인 역할을 다했다. 미션스쿨은 교육과 함께 전도 및 기독교적 국민 문화 형성을 목표로 하여 발전하였다.

2) 초기 영국의 주일학교 운동[131]

주일학교의 창설자 "로버트 레익쓰"(Robert Raikes,1736-1811)[132] 는 영국태생으로 언론 경영자로 일생을 보낸 인물로, 설립 경위는 우연한 기회에 레익쓰는 업무를 끝내고 글로스터의 외곽 지대 빈민촌을 지나가게 된다. 이곳 현지인 들은 공장의 노동자 계층으로, 그 2세의 아동들은 그가

---

and Philosophy, (Chicago : Moody Press 1983), pp.184-186.

130)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5년 12월호), pp. 38,14.

131)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6년 1월호), pp. 28-32.

132) 엘머 L. 타운즈(임영금 역), 인물 중심의 종교 교육사,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3), pp. 343-358.

볼 때 놀라울 정도로 난폭한 범새끼 같았고 비참함과 부도덕함이 극치에 달한 모습이었다. 특히 주일날은 비참과 난폭의 양상이 격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격심한 충격을 받았다. 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유행했는가? 그것은 산업 혁명과 그러한 부산물로 잉태된 것이 이러한 모순이었다. 그래서 산업 혁명에 의해 피해를 입어 빈곤과 비참속에 빠져 버린 아동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특히 교육적인 작용을 통해 이를 이루자는 뜻을 지녔다. 18세기 영국은 사회사적인 일대 전환기에 들어서 사회가 참담했고, 사상적으로 청교도들에게 반동 사조가 출현했고, 영국의 경험주의 사상과 구라파 대륙의 합리주의 사상의 영향 밑에 理神論이 풍미했고, 정치· 사회적 불안과 교육적· 정신적 진공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혀 다른 생활양식의 변화로 국가적· 사회적 과도기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레익쓰는 직·간접으로 당시의 영국의 어려운 사회상을 돌아보고, 주일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레익쓰는 1780년 7월 글로스터의 쎄인트 캬사린즈 거리(Saint Catharines Street)에 그리고 같은 해 시내에 3개의 주일학교를 개설했다. 처음엔 남자 아동들만 수용한 학교였으나 1·2년후에 여자 아동도 수용한 학교도 개설되었다. 초기는 6-12·14세까지 모집했다. 한 주일에 10씰링의 보수로 각 학교마다 1인의 여 교사를 채용 아동들을 지도하게 했다. 수업은 주일 오전10-12점심-오후17:30분까지 공부하며 사이에 교회에서 예배도 드렸다. 교육 내용은 주로 읽기와 쓰기와 산수와 카테키즘(신앙요리 문답)교육이었다. 이러한 주일학교는 단순한 종교교육 기관의 의미를 떠나서 국민 초등교육과 일종의 실험적인 교육으로, 3년후 그는 자신이 경영하는 '글로스터 저널'紙에 무명으로 결과를 발표, 이후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어 각지에 주일학교의 붐이 일어났고, 후원회(William Fox가 주동,1785)가 결성되어 '범죄를 막고 근면의 미덕을 기르며 무지의 암흑을 추방하여 지식의 빛 아래서 살게 하려는 것이라'했다. 그의 자비로운 성격과 불우 아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강인한 집념은 방대한 교회 교육

기관인 주일학교를 태동시켰고, 이 운동의 성공으로 교회 교육은 본 궤도에 올라,[133] 이후 주일학교는 눈부시게 발전되어 영국과 미국에 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러한 초기 영국의 주일학교 교육이 가져온 교육적 의의는,

첫째 창시자가 당시 팽배하던 사회문제를 해결 책의 수단으로 교육을 택한점이다. 여기에 자신의 신앙과 정열과 용기와 인내로써 추진해 나간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둘째는 문제사적· 실제적으로 당시의 주일학교 운동은 '프랑케'의 빈민 교육 시도와 연결된다고 본다. 주일학교 교육적 노력이 사회구제나 불우한 아동구제를 꼭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해도 당시 주일학교 운동은 세속화의 사회에 대한 교회 교육적인 하나의 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 것만은 틀림없다. 셋째는 레익쓰와 협조자들의 주일학교 교육 운동을 전국화가 성공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운동이 평신도 중심의 신앙 부흥 운동과의 계몽 운동과 연결로 영국 민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과 구체적 생활 모습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시 말하면 초기 영국 주일학교의 특징은 한 사회의 의식 가에 의한 자발적인 행위로 출발된 사회 봉사로서 교회 교육과 일반 사회교육이 합해져 작용된 운동으로, 교회 공동체로 부터 탈락해 간 자들에 대한 교육적인 관여라는 초기 주일학교의 모티브가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후에 선교 대상국에 이 동기의 주일학교가 전도 적인 교육으로서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하지만 후에 일반 학교의 국가 의무교육 제도 확립으로 이런 주일학교 교육은 1880년에 가서는 성격이 변화하여 단지 교회 교육의 한기관으로 남게된다.

3) 19세기 미국의 주일학교[134]

미국에서 주일학교의 시작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확실한 것은 영국

---

133) 교사의 벗, (서울: 한국 기독교 교육 연구원 1981년 4월호), p. 20.
134) 기독교 교육,(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6년 3월호), pp. 66-70.

의 레익쓰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고 봄이 유력할 것이다. 레익쓰 형태의 주일학교의 프로그램이 미국의 뉴욕과 필라델피아와 보스톤 등지로 급속도로 퍼져 갔다. 미국의 첫 주일학교는 1780년대 '버지니아'州 감리교 계열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이후 '필라델피아' 주일학교 설립(1790), '남 캐롤라이나'州의 주일학교 설립 방안 채택(1790)등 영국의 자선 형태 의 타입과 동일했다. 가난한 아이들로 시작 대개 6세-14세의 아동들을 문맹 교육과 일반 종교교육과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초적 교육을 실시 미국 초기 공립학교 교육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1) 종교교육에 대한 각성[135]

미국의 독립과 함께 제정된 헌법은 政敎分離의 원칙을 채택, 남북전쟁 이전부터 이를 적용하기 시작, 주 5일 수업의 일반 공립학교 개설을 계기로 주일학교들은 교육 목적을 수정해야 했다. 그것은 주일학교가 주일에 하루종일, 일반학교 교육적 교육내용으로 교육을 해 왔는데, 일반 공립학교 교육이 이를 보다 많은 시간으로 수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출현한 공립학교들은 종교교육을 '일반적인 상식 내용적 기독교'(common Christianity)만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같은 정부 정책에 교회가 종교교육에 관한 책임을 다하려는 운동이 일어나 각 교파별로 교육기관의 필요를 절감하고 그 기능을 다하고자 교육 방향을 정비했다. 당시 주일학교는 성서에 관한 다양한 학습 내용과 교리문답 자료들을 가지고 적절한 커리큘럼의 자료를 삼았는데, 이시기에 미국 교육은 이중적 내지 평행 선적 형태 속에서 발전해 갈 수 있어서 극히 다행한 일이다. 이외 식민지 시대때부터 형성되어 온 '가정학교, 공립 초등학교, 라틴어 문법학교, 고등교육은 중부의 학원교육과 라틴어 문법학교, 각 교파들의 학교, 사립모형 학교, 고등교육, 남부의 가정교사의 교육과 기타 학교양식및 고등교육이 서부로의 확장

---

135) 상게서, p. 67.

과 세속화에 주일학교 교육운동은 급속히 확산되어 갔다.[136]

(2) 미국 교회의 부흥 운동[137]

1815년부터 미국 초기 주일학교는 큰 변혁을 겪게 된다. 당시 교회의 복음전도적 부흥 계열에서 나온 주일학교 운동 때문이다. 근세 유럽의 회개운동이 미국에 와서 특이하고 선풍적인 '신앙 부흥 운동'(Revivalism Movement)을 낳았다. 여기에 주일학교 운동이 활용된 셈이다. 이렇게 해서 재래적인 주일학교의 교육 내용과 학습 방법이 변화· 축소되고, 성서 공부에다가 주일학교 교육의 비중을 크게 두었다. 이 성경공부는 전 신도층으로 확대돼 무보수 자발적 봉사의 교사가 있게 되고, 주일학교 운동은 평신도 중심· 아마추어 중심의 교육으로 변모되었다. 당시의 지배적인 관심은 학생들의 내적· 종교적 改心(conversion)으로 교육의 목적이었다. 이 부흥적인 영향으로 주일학교 운동은 전국 각지로 확장돼 20세기초에는 각 지방 주일학교 협회가 조직되고, 이 조직들이 '미국 주일학교 연맹(ASSU)'을 결성 40년을 이끌어 갔는데, 이 연맹의 목적은 "필요한 교육 자료 출판, 성서 학습내용과 교재선택, 주일학교의 전국 전도 운동 전개"등이었다. 이 목적에 따라 기독교 교육에 활용할 많은 문서들을 출판, '성구 발췌 공과'·'합동 문답집'등이 있었다. 이 연맹이 주류가 된 주일학교 운동은 '미시시피 개발 사업붐'을 타고 전역에 확장되었다.

1830년대의 일시적 反向風과 각 교단별 출판물의 범람과 남북전쟁으로 ASSU의 일시적 쇄신이 있었으나, 이제 주일학교는 세계적인 무대로[138] 가기 위해 수차례의 주일학교 대회를 통해 1907년 제5차 세계 대회에서 구미 각국이 모여 '세계 주일학교 협회'(WSSA)를 결성을 촉진, 하나의 복

---

136) 케니스 O. 갠글 & 워렌 S. 벤슨(유재덕 역), 기독교 교육사,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2), pp. 256-280.
137)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6년 3월호), pp. 68-69.
138)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6년 3월호), pp. 69-70.

음적· 선교적 기관임을 주장했다. 1872년에는 '국제 통일 공과'를 펴낼 조직 단계가 지어졌고, '세계 통일 공과'는 세계 각처의 주일학교가 전 학생이 동일한 주일에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었는데 이 공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널리 채택됐고, 미국 초기 주일학교 운동은 주로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 유지됨이 특징이고 의미가 있다. 대표적인 지도자는 '시카고 출신의 침례교 지도자 쟈꼬브(B. F. Jacobs, 1834-1902)와 감리교 목사 죤·빈센트(John H. Vincent,1832-1920)로, 빈센트 목사는 주일학교 교사훈련 기관을 창설한 공헌자'이다.

미국 초기 주일학교 운동의 주요 관심은 '성경공부를 통한 아동들의 改心의 경험을 주는 일'이다. 미국의 주일학교는 처음부터 교회적인 배경이 뚜렷했고, 3가지 유형으로 발전했다. 그것은 "개체교회 주일학교(The Local Church School,멤버 육성키 위해 교회 존재 지역은 가리지않고 설치)와 도시 전도학교(The City Mission School,교회 인접 지역의 결손가정 아동교육을 위해 설치)와 개척지 주일학교(The Pioneer Sunday Schoo l, 서부 개척시대)"로 나눠 발전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주일학교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를 고비로 복음적 진리를 상실해 감에 따라 쇠퇴해 갔는데 그 원인은 "대외 활동의 지도 체제에 자유주의化와 세속 주의 영향과 복음주의적 교회의 폐쇄 주의" 때문이었다.[139]

4) "종교교육 주의" 교육 운동[140]

(1) H. 부슈넬과 종교 교육 운동

19세기 말-20세기 초, 주일학교가 "종교교육 운동"(Religious Educat

---

139)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 Moody Press 1964), pp.266-269.

140)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6년 4월호), pp. 70-74.

ion Movement)의 무대로 활용되면서 근대의 종교교육이 발전되어, 인간 이성에 기초한 과학적· 도덕적 합리성의 원리를 기준으로 신앙을 재고, 기독교를 수정 내지 재해석하려는 입장의 교육주의적 종교교육 운동인데, '죤듀이'(J.Dowey)의 '진보주의 교육'(Progressive Education)의 일반적인 영향과 'H. 부슈넬'(Horace Bushnell,1802-1872)의 저서 "기독교 양육"(Christian Nurture,1847)의 종교 교육적 영향으로 일어난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H. 부슈넬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141] 그의 저서 '기독교 양육'은 유명한 고전물로 '아동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만 하고 그 외는 어떤 존재여도 안된다'는 것이며, 기독교 가정의 자녀에 대한 '회심훈련'의 강조를 하지말것 등 극단적인 칼빈파의 극단적 부흥 운동에 강하게 반기를 들어, 이 입장을 정리한 것이, 이 저서이며 그는 청소년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 기독교적인 성장의 교리를 명확히 하고 종교적인 훈련 방법을 밝히 제시함으로서 "근대 종교 교육 운동의 아버지"라 불리우게 되었다. 그는 개인주의에 반대하며 '가정과 교회'의 공동 책임을 강조, 가정을 '神의 은총의 통로'로 교육을 위한 '유기적인 힘'이라 말하고, 감정적· 단회적인 회심의 체험은 결코 인격적인 변화와 교육을 이룰 수 없다고 믿어 세례를 부인하고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있다.

(2) 종교교육(R. E. A.)운동[142]

부슈넬의 입장으로부터 진화론과 연결, 아동의 정상적 종교성의 발달과 법칙성을 선취, 이상적인 종교적 인격으로 갈 수 있다고 종교적 운동은 이론을 정비했다. 즉 영아 기부터 성인기까지 인간 전 생애에 대한 교회의 끊임없는 성실한 배려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운동이 종교교육 협회 (R. E. A.)의 모체가 되었다. 그것은 1900년초 무겁고 억눌린 주일학교와

---

141) Elmer L. Towns,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Michigan :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5), pp. 278-287.

142)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6년 4월호), pp. 72-73.

강력한 도덕적· 종교적 기초를 요청하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의 종교와 교육의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자들은 종교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의 적절성을 인식하기 시작, 주일학교 교육의 침체와 무력화에 쐐기를 박고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려고 조직한 교육 단체가 R.E.A.이다. 버틀러(N. M. Butler)· 코오(G. A. Coe)· 반다이크(H. van Dyke,사상가· 문필가)등이 이 운동을 주도했다. 1903년 제1차 '시카고'대회에서 밝힌 주된 관심은 "청소년들에게 오늘의 종교· 도덕 교육은 극히 적절치 못하며, 그것은 다 른 교육 내용들과 불완전한 관련점, 청소년들의 종교· 도덕교육 기관인 주일학교는 높은 이념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 가정과 일반 학교와 기타 기관들이 교육적으로 정비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등이다. 이와 같은 취지는 초 교파적 초교회적으로 멤버를 구성하여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전통이 흐르고 있다. 이 운동이 일관되게 표방하는 광의 적인 목적에는, "교육적인 이념으로 미국 내의 종교 세력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 종교적 이념을 통해서 국내의 교육 세력에 영향을 주는 일, 대중들 앞에서 종교교육의 이념과 필요와 가치의 감수성을 예리하게 진작시키는 일"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협회의 일부는 딴 세력과 통합, ICRE를 이루었지만, R.E.A.는 지금까지 현존해 오고 있고 Religious Educ ation의 교육 전문지는 좋은 예가 된다.

(3) 그후의 교육적 흐름[143]

17세기 말 부터 20세기까지 지배적인 '세계 주일학교 연맹'(WSSU)의 영향은 교육 이론이 발달하면서 이 이론이 개교회 주일학교에 밀려들자. 그 연맹의 통일 공과를 거부하고, '아동 중심'(child center)의 '계단 공과(Graded Lesson) 커리큘럼을 개발하게 되었다. 19세기부터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은 1884년 젊은 학자들에 의한 '미국 초등교육 연맹'의 발족과

143) 상게서, pp. 73-74.

1890년대 교회 교육 방법들에 대한 연구 그룹이 일어나 주일학교 개혁에 관심을 고조시켰다. 각 교파별의 교단 내의 통합 공과의 개발· 출판은 큰 시련과 도전이었다. 주일학교 교육적 측면에서 1905년'국제 주일학교 연합회(ISSA), 1910년 '복음주의 주일학교 협의회'(SSCED)가 결성되어, 처음에는 협력이 잘되었으나 나중에는 교육적 접근 방식의 골이 깊어 대립의 관계가 되었고, 1922년에는 이 두기관이 '국제 주일학교 종교교육 협의회'(ISSCRE)로 타협에 의해 합병되고, 2년후에는 '국제 종교교육 협의회'(ICRE) 발전되었고, 1930-1940년대는 주일학교의 교육 중심적 입장이 의문시되고, 교육자들은 가정과의 협력을 매우 주요하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기 시작했고, 신학의 재평가 작업으로 이들 모든 종교교육은 큰 도전 앞에 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활발했던 주일학교 운동은 그 보편성과 창조성을 상실하고 지도자들은 새로운 성서적· 신학적 기초를 추구하게 이르렀고, 교회의 교육적인 책임(education ministry)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각종 교회 교육의 조직과 협회, 단체 등이 결성되어 교회 학교의 교육을 위해 활동을 하나 별다른 성과를 못 올렸다. 그후로 미국식 교육에 있어서 "죤 듀이"(John Dewey)의 등장과 "조지 알버트 코우"(1862-1951)의 인격주의 교육관, 몬테소리의 정수주의 교육, 성서 학교와 근본주의 교육, 실존주의 철학과 카톨릭 사상이 있었는바, 실존주의는 '新 정통 주의 변화와 세속적 실존주의 및 종교적 실존주의로 분류가 되어 지는 등 계속 유지되었고,[144]이러한 사상과 함께 "심리주의와 복음주의"의 흐름이 있다."심리주의"(Psychologism)는 다양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우리는 "복음주의"(evangelism)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

144)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stian Education : Its History and Philosophy, (Chicago : Moody Press 1983), pp. 292-328.

4. 現代의 敎會 敎育

1) 20세기초의 교회 교육[145]

1900년대부터 계속된 미국의 종교단체의 조직과 갱신 등은 재래의 주일 학교 교육에 다른 형태의 교육이 폭넓게 촉진되어, YMCA와 기독청년면려회(Christian Endeavor)의 청년운동과 후에 각 교파의 청년운동들이 발전되어, 매일 휴가 성서 학교(The Daily Vacation Bible School)와 주간 종교학교(The Weekday Religious Education School)도 탄생했고, 하계·동 계의 다양한 수양회와 캠프 활동이 개발되었다. 교육내용면에선 새로운 형태의 '부별 공과· 종합 계단 공과 등이 주일학교 교육 생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R.E.A & ICRE는 1900-1920년대의 중요한 당시 중요한 교육운동의 주체가 되었다. 이러한 구조들은 공립학교들의 구조와 시설의 발전에 발맞추어서 교인의 양육을 위한 책무완성에 적합한 교회의 교육조직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같은 교회교육의 주된 형태는 미국 교회생활의 우세한 힘으로서 성장하고 있던 것과는 용이하게 부합되지 않는다. 당시의 주일학교는 평신도 중심체제,아마추어적인 교수형태,엉성한 커리큘럼으로 교회 지도층의 심한 반발을 샀고 당시 교회 지도층은 신앙고백 일변도의 목사 중심의 지도 체제를 통해 교육을 주장해 왔다. 당시 기독교 대학들은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프로테스탄트의 교육제도는 일관성과 계속성을 상실해 버렸다. 한편 로마 카톨릭은 철저한 교구 제도로 일관성 유지는 할 수 있었으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주일학교를 전통적 교파들 스타일과 공립학교적 요소의 양면을 결속해서 형성시켜 나갔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다른 나라들은 극히 비관적이었다. 러시아가 공산화로 모든 종

---

145)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6년 5월호), pp. 64-65.

교교육이 금지되고, 그 외의 국가도 세속화(secularization)경향이 짙어져 형식적 학교의 종교교육을 유지해 오던 독일도 존재의 의미가 미미해져 갔다. 이때 미국에서는 종교심리학에 기초해서 발전해 오던 종교교육이 좌절되고, 사회적인 원리를 도입한 종교교육 이론의 건설이 시도되기도 했다.

(2) 20세기 중엽의 교회 교육[146]

이 시기에는 이른바 '다원화 사회'(plural society)가 형성되고 보다 광범위하고 과격한 상대적인 '同質文化'(homogeneous culture)를 형성했고 이것이 공립학교의 존재를 통해서 용이하게 '통상적인 기독교'(Common Christianity)를 촉진시켰다. 한참 성장해 가는 세속 주의에 교회들은 스스로 당황해 깊은 우려를 느꼈다. 더이상 바람직한 효율적 교육 전략을 명령할 수 없음을 스스로 감지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주일마다 행하던 임시 형태 학교의 교육적 노력도 심각한 제한성이 분명히 드러났고, 그것은 대중 교육적 공립학교 제도가 발전하면서 종교교육의 제한된 노력도 점차 감소시켜 나갔기 때문이다. 역시 20세기 중반에 고등교육 기관의 발달로 기독교 대학들은 교회와 세계와 학문 세계에 자체의 관계성을 참신한 활기와 깊이를 가지고 실험해 보는 일이었다. 기독교 대학들은 이제 기독교의 교육적·사상적 센터로서 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보다 넓은 사명 속에 그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활기 있게 노력해 나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모든 국가는 더욱 세속화의 길을 치닫고, 이에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국가는 종교교육(특히 공립학교의 종교교육)이 약화 내지 중지되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이를 부활시켜 존속케 됐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말았다. 2차 대전 후의 교회 교육은 또 하나의 변화를 겪는데, 미국의 교회 교육이 재평가 작업을 가졌고, 로마 카톨릭은 교구 학교(Parochial

146) 상게서, pp. 65-67.

School)가 잘 균형 잡혀진 교회 생활을 위해선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주장이 합당한 것인가?에 회의를 품기도 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1950년대의 부흥이 뒤늦은 변화를 겪기도 하지만, 1947년 미국 NCC의 교회 교육 재건을 위한 4년간의 조사연구가 '폴뷔스'(P.Vieth)교수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그 연구보고서 '교회와 기독교교육'에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제 교회교육은 종교교육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검토되고 발전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주일학교의 명칭에도 이를 지양하고 "교회학교"(Church School)라는 폭 넓은 개념을 채택 사용하기에 이르렀다.[147] 이러한 기독교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커리큘럼 작성작업이 착수되어, 미 장로교회에서는 1948년에 '기독교 신앙과 생활 커리큘럼'(Christian Faith and Life Curriculum)을 펴내 20여년간이나 사용되었다. 그러나 에큐메니칼 운동이 고조될 당시에 교회교육은 교파와 교회자체의 특수한 전통들이 강조되었다. 이것은 교육전략적 기본문제는 자각했으나 중요성과 심각성은 인식을 못한채 교육적인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주일아침 1시간정도 모였던 미국의 대부분 교회학교가 그 아마추어적 약점에 쐐기를 박았다. 그것은 새로운 교육자료들과 지도자훈련을 위한 노력의 경주와 그동안의 무계획과 방임적 경향을 극복하고 교회학교 교육을 위한 시간및 범위의 확장과 그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주요한 시도들이 가해진 것이었다. 또한 가정과 가족이 도시화의 세계속에서 새롭게 자리잡혀지면서 가정을 통한 기독교교육의 시도도 일어났다. 개신교와 카톨릭은 모두 예배와 성례전의 기독교 교육상의 위치를 재설정하면서 그 형식과 내용이 아동· 청소년· 성인 등 각 연령층의 특성에 따라 새롭게 정리되고 강조되어 "예배의 교육화"라 하게 하겠다.

---

147) 상게서, p. 66.

(3) 1960년대 이후 교회 교육[148]

현대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데 이에 따라 기독교 교육도 시대적인 도전 앞에 서게 되었다. 특히 미국 교회는 자체의 위치 변화가 극한 세계 속에서 자체의 삶과 봉사에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게 했고, 교회는 현대의 다양한 세계가 지니는 복합적인 다양성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적절한 대처의 의미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성인들을 훈련키 위한 자체의 위치를 분명히 규정해야만 했다. 비평가들은 교회의 생활과 교육의 새 형태가 필요함을 계속 역설했다. 신학교의 입학 지망생도 감소하고 성직자들도 자신들의 책무(교회 지도자들의 훈련)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미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는데, 이같은 변화만의 사실로 해서가 아니라 그 변화의 단계와 정도로 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교회 교육의 역사를 탐색하고 나섰다. 그것은 어느정도 동일한 사정들이 존재했던 다른시대에 있었던 효과적인 교육형태들을 이해하고, 현재의 교육형태들이 어떤힘에 의해서 또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역사 탐색이다. 60년대 이후 인류사회는 너무 급속히 변화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과 서구 제국이나 기타 신생 독립국들의 기독교 국가들은 한결같이 기독교 교육의 변화 속도도 늦출 수 없는 사정에 봉착했다. 특히 신생 독립국들 중 내셔널리즘 국가들은 미션 학교나 교회 학교에 곤난(困難)한 상황을 부여하거나 교육을 금지하기도 했다. 현대 기독교 교육의 문제는 오랜 전통의 "기독교 문화의 붕괴와 세속 문화의 성립"이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교육이 성립될 수 있느냐의 근본적 물음에 대한 대답이 단적으로 말해 준다. 그리고 거기에 근본적인 대답이 없이는 기독교 교육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다는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성을 다시 잘 음미한다면 그 문제 속에 바로 그 타결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한다. 이것은 오늘의 모든 기

---

148) 상게서, pp. 67-68.

독교 교육자들의 바램이라 할 것이다.

오늘의 세속 문화는 그 속에 자율성과 자족성과 자기충족성을 주장한다. 그 자족의 세계 속에서는 '기술화'(Technology)에 의해 인간의 모든 힘과 권리가 대치되는 시대이며, 인간은 참으로 인간다와 질수있느냐 아니면 소외되고 비인간화 될수밖에 없느냐의 기로에 선 시대이다. 또한 자율성의 문화세계속에는 기계와 컴퓨터에 의해 인간의 노동, 관리가 대치되는 시대이다. 이런세계속에서의 인간은 더욱 풍족해질 '여가'로 부터 자신을 상실할수도, 여가를 실현시킬수도 있는 인간의 근원적 문제가 노출될수도 있다. 이런의미에서 세속사회야말로 더욱 준엄할 시대이고 더욱 종교적인 물음이 필요한 세계이다.[149] 이 종교적· 기독교적· 궁극적 물음에 인간은 의식해야하고 대결케하고 대답케하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20세기말의 기독교 교육이 가야할 방향제시가 아닌가? 하는 점도 여겨진다. 이렇듯 세계각국 교회들은 교육의 과제들 앞에서 매우 유동적이고 무엇인가 새로움을 태동시키려는 자리에 놓여 있다. 이미 그 싹들을 여러곳에서 보고 있지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수 없다.

2) 현재와 미래의 교회 교육[150]

(1) 현대적인 인격주의 교육

현대는 산업화와 기술화, 각종 공해와 극도의 정보화, 가치의 다원화와 인간의 소외 및 "비인간화"(dehumanization)등 어려운 문제들을 인류 전체가 풀어야 할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실로 전 우주적(groba l) 인 상황 변화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변화는 여러 신학 형태로 받아지면서 긍정과 부정이 양면에서 반응을 일으켜 왔다. 이런 시대적 상황변

---

149) 상게서, pp. 67-68.
150)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6년 6월호), pp. 46-51.

화속에서 교회 교육도 학문과 실천으로써 시대의 도전 앞에 격심한 변천을 경험했고 스스로 자극제가 되어 廣意 의미의 교육에 도전해 왔다. 그럼 廣意 의미에서 '인격주의(personalism)교회 교육론'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우선 대표적인 학자부터 거론하고 싶다.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로 영국의 '로널드 골드먼'(Ronald Goldman)교수로, 그의 저서'유년기에서 청소년까지의 종교적 사고'(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1964)와 '종교를 위한 준비성'(Readiness for Religion, 1965)에서 발달과정에 따라 성장하는 아동에게 성서가 어떻게 응용되는가에 관심을 두고, 교육 내용인 신학 배경은 '죤 로빈슨'(John A. T. Robinson)에게서 얻고 발달 심리 과정은 스위스 老 심리학자 '쟝 삐아제'(Jean Piaget)의 영향을 입고 있다. 골드먼은 아직 종교적 준비가 충분치 못한 아동에게 지나치게 종교적 성과를 기대하고 기독교 교육을 과하는 처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린이들이 종교와 접하며 종교를 형성할수 있는 발달의 단계와 시기를 제시했다. 그는 12세이전의 아동들에게 추상적인 언어전달 자체는 종교교육에서 금물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의 교육론은 60년대 이후의 기독교교육계에 충분한 도전과 충격이었을 것이다.

(2) 선교론적 교회 교육[151]

'하나님의 선교'의 신학에 근거한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동기로, 이 입장의 대표적인 학자는 '레티 럿셀'(Letty M. Russell)로 뉴욕 동부 할렘(East Harlem)街에서 경험한 교회 교육 목회에 입각, 저서'기독교 교육의 새 전망'(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속에서 선교 교육론을 전개 시켰다. 그는 기독교 교육을 단지 교회가 지니는 제반 과제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재래의 교회 교육에서 단지 교회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반창고'(bandaid)로 사용할 "교회의 사유물화"에서 기독교 교육을 해방해야 한

---

151) 상게서, pp. 47-48.

다고 했다. 그녀는 기독교 교육 수행기관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사명공동체'자체로 보는 입장이다. 여기서 '교회'란 일체의 교육적인 주체를 가르키는 것으로 그의 표현대로 '교회란 하나님의 교육하심이 거기서 성립되는 하나님의 장(場,context)'이다. 그러기에 그는 교회를 '증인들의 공동체'라 부른다. 이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들이 모인 모임을 그는 '共同体(마18:20)'라 했다. 이 공동체가 곧 고정된 '콘텍스트'이다. 선교교육에서 교회교육과 기독교선교의 구별은 다만 관점과 시각의 차이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초청에 참여하는 교회가 지닌 역할의 한 면은 '파견자 교육'이 성립하는 장이라는 본질적 측면이다. 이것을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교회는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파견자교육이 실천되는 기관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 백성을 양육하여 준비시켜서 모든 자에게 참 인간성을 회복케 하시려는 '하나님선교'에 참여토록하는 교육현장이다. 선교론적 교육에서 증인공동체의 구체적 구조와 형태를 다양한 기능과 그 때 그 장소의 상황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는 있으나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에 맞춰,

첫째 가족으로서의 교회구조(family structure), 둘째 교회의 정기적 봉사활동을 위한 형태로서 '대응적 상설 봉사형의 구조(Structure of permanent availability), 셋째 임기응변적 편성임무에 응하는 '기동부대형의 교회구조(task force structure)'을 그는 제시했다.[152]증인공동체는 구조가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어서 각 타입에 필요한 교육과정에서도 확실한것을 단정적으로 제시할수 없다고 했으며, 일반적으로 이같은 교육의 장에 교육과정의 구조는 월등히 '대화'(dialogue)인 성격이 요구되는데, 하나님과 세계와의 대화로서 증인 공동체의 삶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고 기쁨으로 수용한다. 교육의 방법은 '참여'(participation)라는 형태를 취해 교회 공동체의 생명과 통합에 참여함이

---

152) 상게서, p. 49.

교육에서 불가결의 요건이 된다. 다시 그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 힘있게 일해 오시는 일체의 활동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이다.' 즉 성서가 말하는 참 의미의 '자유의 축하잔치 (Celebration of freedom)'이다.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모든 인간적인 이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때 럿셀의 교육론은 현대 세계의 과제인 '인간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 교육적인 노력이라 하겠다.

(3) 意識化의 교회 교육[153]

현대사회의 과제인 인간성 해방의 문제를 대중의 의식화라는 입장에서 추구해 온 하나의 노력을 브라질의 교육학자 '프레이레'(Paulo Freire)의 저서 '눌린 자의 교육학'(Padagogy of the Oppressed,1968)에서 교육의 목적을 '해방을 위한 문화 운동,' 즉 사람의 인간다운 현존을 위한 인간 해방에 두고 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의식화'(conscientization)의 교육을 주장한다. 그의 교육론은 실험적인 실천에서 나온 것인데, 그 방법은 시행법(praxis)으로 집약된다. 이것은 행동-반성-행동의 반복을 통한 교육이다. 프레이레의 교육 실천은 문맹 교육, 즉 언어 학습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면서도 언어 이상의 것을 형성케 함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는 브라질 동북 지방 농민의 상용 언어를 연구한 결과, 언어는 그 자체가 지배의 도구여서 사람들을 가축처럼 '길들이는(domesticate)'교육을 다해 왔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같은 교육과정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말이 교육의 뿌리를 이루는 '의식화'이다. 의식화란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눈을'뜨게 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프레이레는 문맹교육의 객관적 내용인 읽고 쓰는 일을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우리는 인간이라는 의미를 배우게 한 것이다. 럿셀의 '선

153) 상게서, pp. 50-51.

교교육'과 인간의 해방을 문제삼는 프레이레의 '의식화'교육은 모두 교권에 눌린 기독교 교육과 인간을 기술화의 도구로 전락 시킨 일반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인 도전이라 하겠다. 그 도전은 새로운 '인간화'와 '인간성 회복'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감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같은 교육적인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계속 버리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앞에서의 바른 인간의 형성"이라는 문제는 기독교 교육의 영원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즉 새로운 21세기의 미래는 불확실성의 세계인바, 새로운 인간 가치의 형성을 부정적으로 볼수밖에 없어 기독교 교육의 과제로 남는다.

(4) 복음주의적 미래 교육[154]

20세기말은 교회가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혁명과 인구학적 혼란에 처해 있어, 위기에 와 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간에는 내적 갈등이 많고 어떤 종류의 복음주의적 부흥도 분명하게 지역적 차원의 해결책을 상당수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미래 학자들은 변화라는 종속된 견해만을 외치고 있다. 이처럼 소란스런 시대에 복음주의적 교육의 발판에 제공되는 것은 정통주의 신학의 지속적인 연대감과의 면밀한 결속이다. 즉 복음주의 교육의 미래 전망에서 "복음주의 르네상스?와 미래주의 신앙 교육"를 주장하는 것이다. 가정교육과 교회 교육이 살아나야 한다. 교회교육은 성서에 대한 신학적 무지와 세속화 현상과 대립의 과정에 와 있기 때문에 또다시 박해가 올것이다. 여기서 복음주의 교육은 성서의 권위에 관한 헌신의 양보를 거절하면서도 급격하게 변모하는 인간욕구와 접촉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역사의 교훈에 대한 인식과 철학적 명료성은 교회교육에 있어 본질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21세기는 "복음주의 르네상스와 미래주의 신앙

---

154) Kenneth O. Gangel & Warren S. Benson, Christian Education : Its History and Philosophy, (Chicago : Moody Press 1983), pp. 347-364.

교육"이다. '미래 충격'(70년)과 '제3 물결'(80년)과 '권력이동'(90년)등 3部作으로 명성을 날리며, 사회와 문명을 비판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미래학의 전도사 "앨빈 토플러(69)"는 오늘의 위기속에 처한 세기말의 지구촌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경고와도 같은 '메시지의 성격'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정보화-세계화 사회로 대변혁이 예견되어 상호의존적 수평사회로 전이(轉移)와 다양성의 시대 도래로, 국가 주권은 무너지고 '세계주권'시대로, 정치 경제 기술등 '국제화' 구조조정을 스스로 혁파해야 미래국가로 진입할수 있는 무한경쟁과 정보화가 컴퓨터와 미디어 혁명으로 사회구조의 전이를 거의 완결시켜가고 있다. 인류사에 '제3의 물결'을 축으로 新 문명을 창조하고 있는 중이다.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의 출현과 함께 인류에게 무엇보다 시급한것은 '바른 인간 형성'의 문제이다. 오늘의 교회교육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될수는 없다. 오늘의 교회모습은 초대교회와 비슷하다. 초대교회의 순수한 복음주의 교육은 기독교를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시켰고, 바른인간 바른사회를 형성해왔다. 따라서 오늘의 교회는 초대교회의 복음주의 신앙적 교육 공동체로 돌아가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오늘의 인류에게 도구로 주신 문명의 이기를 잘 수용하여 미래사회의 新 이상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즉 교회교육의 개혁이다.

IV. 敎會敎育의 目的· 內容· 方法· 特性· 經營管理

1. 敎會 敎育의 目的

교회 교육의 목적은 기독교의 문화권內에서 교육적 공동체들의 교육적 문화 유산을 전수하는 일이다. 그럼 교회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 여기서는 고대, 중세, 근세, 현대의 순으로 구분하여 다시 고대에서는 히브리人 시대, 유대人 시대, 초대 교회의 순으로 분류해서 교회 교육의 시대별 목적들을 탐구 하고자 한다.

히브리 민족의 교육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교육"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인바 매일 삶속에 필수적인 질문들이 고대 히브리人들의 사상과 구약 성경에 장장 마다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백성들의 삶속에 교육을 통해 물어 졌다. 이러한 교육은 각 시대별 교육 주체들에 의해서 제사와 예언 및 시인들의 노래를 통해 거룩하신 神의 뜻을 가르쳐 전하고 찾았던 것이다.[1)]

유대교의 교육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으로 '토라'(Torah,가르친다는 뜻의 교훈)라는 '율법책'의 발견(왕하22,23)과 선정으로 사용(느헤미야 7,8)케 됨으로서,[2)] 가정 중심 교육,[3)] 학교교육(초등교육의 목적:율법 이해),[4)]여성 교육(유능·근면한 주부, 순종·현숙·神을 경외하는 母女를 만드는데)들에 그 목적을 두었다.[5)]

초대 교회의 교육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평화로운 지배(엡1:22)"아래 놓기 위한 것이요.[6)]

---

1)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5년 6월호), p. 36.
2)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0년 4월호), pp. 75-76.
3) 상게서 4월호, pp. 70-77.
4) 상게서 6월호, p. 72.
5) 상게서 7·8월호, p. 78.
6)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87년 12월호), p. 58.

둘째는 AD 2C의 교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가르치는 교회'로 변화되자, 교리적으로 정형화되고 윤리적으로 다듬어진 체계를 가르치고, 그것으로 신도들을 형성하고 훈련해서 크리스챤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일이었다.[7]

중세 교회는 '교회 학교'와 '스콜라주의'에서 그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수도원 교육에서는 내세의 삶을 위한 개인 영혼 구원"에 있었다. 또한 "성당 학교 와 감독(본산)학교에서는 성직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었다.[8] 두번째로 스콜라 신학의"종교적 교리를 철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독교 교리의 시대적 권위 상실에 신중하고도 자유로운 독립적인 사고를 갖게 했으며, 중세기 교육의 주요 목적은 라틴어 습득"이었다.[9]

다음 근세 교회 교육의 목적은 이른바 '세속적인 세계'(secular world)의 도래로 "정통주의·경건주의·합리주의 교회교육속에 기독교 복음주의 교육"이 주요 목적이었다고 하겠다.[10]

현대 교회 교육의 목적은 한마디로 "다양한 교육적 주장들이 있지만,성서적이고 기독교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교육"이 주요 목적이라고 하겠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교회 교육은 "복음주의(evangelism)르네상스와 미래주의 교육"으로 모색을 해야 할것이다.[11]

2. 敎會 敎育의 內容

교육의 내용에서도 고대· 중세· 근세· 현대의 순으로 구분하고, 고대에서는 다시 히브리 시대· 유대인 시대·초대교회 시대로 분류하여 전개해 가고자 한다.

---

7)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5년 9월호), p. 32.
8)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1년 10월호), pp. 48-49.
9) 전게서 1992년 1월호, pp. 51,52,59.
10)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5년 12월호), pp. 34-38, 14.
11) 상게서 1976년 5월호, pp. 64-68.

먼저 고대 '히브리人의 교육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선민으로서의 종교적 의식· 구체적인 삶과 행동의 원칙"등이다.[12]

다음 고대'유대人의 교육내용'은 '회당(Synagogue)교육과 학교(Schule)교육'으로 "회당에서는 율법의 계율들을 축자적으로 암송하는 일이었고, 학교교육은 히브리 성서의 읽기와 암송단계로 시작(초등교육:벳 핫세퍼)·율법에 대한 해석을 공부(중등교육:벳 탈므드)하는 단계와 율법의 고등한 해석과 연구(전문적 고등교육:벳 함미드라쉬)의 단계"가 있었다.[13]

마지막으로 고대 교육에서 초대교회 교육내용은 케리그마(Kerygma-말씀: 교리적 성격으로 인간구원과 神의 은총)와 디다케(didach - 가르침: 도덕교훈적 성격으로 어떻게 神의 은총에 합당히 살것인가의 자각적인 말) 그리고 카테키시스(catechisis-아래로·반사적으로 울려나간다의 뜻의 동사, 문답敎示·입문자·교리문답 교육)"등이 있었다.[14]

중세교회의 교육내용은 "성례전 교육(성찬:매 주일마다), 종교미술 교육(교회건축등을 통한 미술적 교육), 종교극 교육(연극을 통한 복음의 진리를 교육), 순례자 교육(聖物과 聖地域을 순례(pilgrimage)하는 행위로 고행길을 감을 상징), 교회력 교육(church calendar, 인간시간 전체가 구속 역사의 반복이라는 관점의 인간 시간적 삶)"과, "수도원 교육 (초급반 - 라틴어 교육, 고급반 - 3학(trivium - 문법, 수사학, 변증학)과 4학(Quartrivium - 산수,기하,천문,음악)), 수도원 학교의 聖과 俗(한 선생이 개별적으로 교육)교육, 스콜라 신학(Scholasticism)교육"이 있었다.[15]

근세의 교회 교육의 내용을 보면, 17·18세기 국가와 사회의 세속화로 이른바 세속적 세계가 도래하여 여러 가지 인간 주변의 환경 변화가 일어나 다양한 학교(감독학교,사립학교,자선학교)교육이 생겨나 "읽고, 쓰고, 산

---

12) 상게서 1975년 6월호, p. 36.
13) 상게서, pp. 38-39.
14) 상게서 9월호, p. 33.
15) 상게서 10월호, pp. 38-40. 1991년 10월호, p. 50. 1992년 2월호, p. 51.

수 와 종교 기초 교육 및 일상용어 그리고 라틴어· 그리스어 교육(고전 학교:classical)"이 실시되었다. 정통주의(orthodoxism,고정된 권위의 성서교육· 형식화와 율법화의 카테키즘 교육(프로테스탄트的 역동성과 생동성 상실))교육, 경건주의(pietism, 내면적· 情意的경험과 경건을 강조· 독일의 적극적 성서 연구와 이세상의 악과 격리· 모라비안(Moravians) 형제단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관심 및 回心교육·자선적 학교교육(charty school education)으로 전도)교육, 합리주의(Rationalism,19C초 근세 사회 바람을 적극수용 이를 기준으로 신앙을 측정· 교회를 정정 또는 수정이나 재해석하여 기독교를 증명, '종교교육 운동'(R.E.M)이 구체화된다.)교육, 18,19C의 복음적 신유· 선교· 교육이 외국으로 전도되고 미션스쿨 교육이 기독교적 국민 문화 형성에 한몫을 했다.[16] 또한 영국의 '주일학교'의 "카테키즘(신앙 요리 문답)교육과 3R(읽기 쓰기 산수)교육",[17] 미국의 '주일학교'의 "초기 교리문답 교육과 문맹 교육· 수정된 내용의 교리문답의 커리큘럼의 형태"의 교육,[18] 종교교육 운동(Religious Educa tion Movement)의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이상적인 종교적 인격 형성의 공동체 "교육이 근세 교회의 주요 교육 내용 이라고 하겠다.[19]

현대 교회의 교육내용은 20세기 초의 "부별·종합 계단공과의 새로운 계단공과 커리큘럼"과 중엽의 "신·구교에 있어서 각 연령층의 특성에 따른 예배와 성례전의 기독교 교육상의 위치 재설정·정리·강조로 '예배의 교육화'가 이뤄지나, 기독교 교육은 보다 깊고 효과적인 이해를 위한 교육형태의 역사탐색"이 시도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인 물음에 심각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미 분명히 있다.[20]

---

16)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5년 12월호), pp. 34-38, 14.
17) 상게서 1976년 1월호, p. 31.
18) 상게서 3월호, pp. 66-67.
19) 상게서 4월호, p. 72.
20) 상게서 5월호, pp. 64-68.

3. 敎會 敎育의 方法

고대의 히브리인의 교육 방법에는 "구전을 통한 풍부한 사건의 지식· 율법· 신앙등 많은 전승들을 민족에게 전달하고 계승시켜 애국심과 참된 신앙과 행동욕구들이 이야기"되고,[21] 예언자의 교육 방법에는 "상징symbolism)· 구안적 교재· 연구방법을 사용(렘 27-28장,사 20:3 참조),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고 경고"했다.[22]

고대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는 "율법(토라: Torah, 교육· 가르친다는 뜻의 교훈, 사30:9, 렘9:12·13, 출18:13-16 신17:8-12 삼상30:21-25등을 참조)이 백성들 앞에서 낭독되고,[23] 가정에서도 교육되며 부모는 교사로서의 책임과 체벌· 여러 의식· 상징적 도구들을 통한 교육,[24] 학교교육에서 초등교육은 율법이 구전으로 아동에게 암기·반복시키고,[25] 여성의 교육에서도 교육과 훈련의 방법은 가정을 위주로 앞에서와 동일하다."[26]

초대교회의 교육방법은 "케리그마와 디다케를 구전과 문자를 통해 전달"되는 교육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27]

중세 교회는 "徒弟制度(Apprenticeship). 기술교육(질문-문답). 명상과 묵상.상징주의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이었다.[28]

근세교회는 "종교 개혁자들의 교육방법을 그대로 전수받았는데 성서 교육과 카테키즘.견신례 교육이 중심으로, 카테키즘은 주로 '암기.암송'이 강요되는 정통주의 교육과 기초적인 배움 및 라틴어를 배우는 학교교육,내적

---

21)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0년 2월호), p. 86.
22) 상게서 3월호, p. 69.
23) 상게서 4월호, pp. 75·76.
24) 상게서 5월호, pp. 70-77.
25) 상게서 6월호, p. 73.
26) 상게서 7·8월호, p. 88.
27)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5년 9월호), pp. 33-34.
28)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1년 10월호), pp. 52-54.

신앙훈련과 자선적 영혼의 함양과 성서연구및 아동.인간교육 그리고 회심을 강조하는 경건주의 교육, 종교교육 운동. 복음주의적 선교를 훈련하는 합리주의 교육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다.[29] 주일 학교에서는 카테키즘과 읽기 쓰기 산수가 교사에 의해 아동들에게 교육되었다.[30] 20세기의 현대 교회 교육은 "새로운 형태의 커리큘럼 개발등으로 활기를 띄나, 교육제도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상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아동과 청소년 장년을 위한 '예배의 교육화'가 주된 교육방법"으로 유지해 오고 있으나 세속화의 영향으로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31] 따라서 새로운 복음주의 교육형태로 기독교 교육의 영역을 확대해 나감이 미래의 과제라 하겠다.

4. 敎會 敎育의 特性

성경의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만물중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은 자신의 징벌과 구원의 섭리 속에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神적인 교육을 수행해 오셨다. 여기서 교육이 자연스럽게 발생된 것으로 選民이스라엘은 구약 시대를 거쳐오면서 많은 수난과 고통과 위험을 겪어오면서도 자기 민족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계속 유지해 왔다.

그들의 히브리민족 시대의 교육적 특성을 보면, "가정이 주된 교육적 기관으로, 교육을 베푸는 주체가 다양했고, 교육은 가정 중심의 개개인의 아동 교육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담당한 성인 교육이 있었으며, 그들의 교육은 보기 드문 일관성과 공동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교육내용은 하

---

29) 전게서 12월호, pp. 35-38, 14.
30) 상게서 1976년 1월호, p. 31.
31) 상게서 5월호, pp. 64-68.

나님께 대한 신앙과 선민으로서의 종교적 의식과 구체적인 삶과 행동의 원칙"등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교육"이 교육의 목적이었다. 특히 '가정 중심 교육'특성상, 가정은 하나님 뜻의 통로(channel)로 자녀들에게 먼저 神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여 그들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히브리인의 교육은 개인적이며 민족적이며 고도의 종교성과 통일성을 보존하여, 가정에서 구전을 통한 율법과 역사의 교육적 전통은 매우 정확하고 통일적인바, 애국심과 참된 신앙,행동욕구 등을 심어주고, 문자 발명으로 문서들이 정경화되어 제사장.예언자들에 의해 3R교육이 백성에게 교육되어져 종교와 도덕 및 교육적 언어와 내용.형식을 성취시켜 나갔다.

다음으로 유대교의 교육적 특성은 회당 교육에서 율법을 암송하고 예배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었고, 학교교육의 발생과 발달로 학교(Schule)교육은 회당에서 진행되어 오다가 회당과 독립된 건물과 제도가 생김으로서 시작되어 아동은 강제 출석 속에 교육받고 교육장소로 사용하며, 율법을 통한 교육적 유연성으로 민족의 불운한 환경과 고난과 박해를 극복해 나갔다.[32] 즉 토라의 교육을 통해 사회법과 민법과 의식법을 교육받고 국가 개혁을 하였으며, 이 율법이 유대인의 국가적 종교의 법전이 되어, 神에 의한 選民적 인간 행위 규범과 교본으로 사회생활의 규례와 종교적 제의 및 의식주의 문화와 교육등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고, 구약 성경과 탈무드는 오늘날까지 성인교육 형태로 전해져 내려왔다. 유대의 지혜문학은 희랍 사상과 결합한 최고의 가치로서 인격화되고 순종되어 오늘날의 헌법 이상으로 통일성과 계시성으로 삶의 모든면에 연결시켜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시켜 하나님 중심교육으로서 종교와 도덕과 관습과 직업훈련이 가정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종교의식.상징적 도구를 통한 종교교육은 성인의 정치 종교 사회적 책임의식을 심어주어 아동들이 종교적 가정적으로 자라게 하고, 형식화된 제도적인 공식 교육으로 고유의 유대사상과 종교성과 실천성

---

32)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5년 6월호), pp. 35-39.

을 갖게 하였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이방인 개종자들의 교육문제가 부각되고 신세대들의 새로운 교육적 책임이 자각케 되어 교육 공동체로서 자각을 했다. 초대교회 전기는 종말론적 성격의 선포하는 교회가 후기에는 가르치는 교회로 되자 교회안에 교사 계층이 형성되었으며, 교육 공동체로서 가정(고전7:14,엡6:1-4)과 교회가 교육의 장이 되어 말씀을 가르치고, 구전을 통해 입문적 기초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를 가르쳤고, 유아세례와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수용이 문제가 되어 이교문화에 도전"등을 주 교육내용으로 하였다.[33] 이 시대는 구약 시대의 유대교적 전통이 계승되고 회랍 사상의 영향과 위대한 교사 '예수'의 출현으로 초대 교회가 태동하여 '국수주의적이고 형식적이며 종말론적 의식적인 종교적 차원의 유대교 역사와 교육을 혁명적인 국제화 개방화'로 바꿔서 사랑과 자비로 神과 이웃을 섬기며 종말론적 만민주의 신앙을 열어 놓아 보편성과 인간 평등 사상을 낳았다. 인류의 평화와 열린 신앙의 세계화 창조로 새로운 능력의 부여와 획득이라는 전환과 '말씀과 삶의 일치된 복음의 교육'은 변증법적이고 공동체적 신앙으로서 개방성과 용서와 화해의 원리속에 예수와 사도들에 의해 유대와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고 교육되어져, 새로운 교육제도들의 탄생과 함께 유명한 교부들이 양성되고 배출되어 찬란한 초대 기독교의 사상적 문화적 종교교육을 인류의 역사 앞에 내놓았다. 특히 예수와 사도들에 의한 새로운 사랑의 복음적 공동체 형식 교육과 형식적인 제도적 교육의 회생적 순교적 신앙 전통을 갖게 하여 고도의 지식적인 성직자가 정식 학교교육을 통해 배출되어 초대교회 후기의 교부로서 헬라의 문화에 기독교가 대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문이 교육되었다. 성경과 기독교 전승과 신학이 연구되고 교육되어져 왔으나 말기에는 반대로 회랍문화와 사상에 빠져 교리가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 말씀과 생활의 교육에서 지식과 형

---

33) 상게서, p. 30,31.

식의 교육으로 변모시켜 교회가 말씀의 진리를 교권주의와 형식주의로 대치시켰다. 그러나 복음의 최종적 통일성의 보존과 기독교의 세계화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형성으로 인간평등사상과 희랍문화의 수용을 통해 기독교 복음의 세계화"로 오늘의 기독교 교육의 통상적 과제요 문제로 확인되었다. 초대교회의 가훈과 악행 및 선행의 도덕적 교육은 일개 국민의 시민적 의무를 가르쳐 주고 가훈은 사회윤리성을 가르쳐 준다. '파이데이아'(엡6:4)의 '교회 안에서 교육과 도덕행위및 가르침의 이념'은 기독교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는 척도로 사회의 변화와 기술문명.정신문화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삶의 조건들로 추구되어, 오늘날의 도덕과 가치관의 혼돈의 현실속에서 이러한 초대교회 도덕교육은 현대 교회에게 새로운 교육의 과제로 인식시켜 주고 있다.

중세 교육은[34] 각 분야의 혼란과 대립, 교회의 무지와 우상숭배 및 술책과 괴리는 중세 교회를 암울하게 했으나 중세 초기의 금욕과 신비주의에 기원을 둔 수도원 교육 운동의 "청빈,정결,순종"의 3가지 덕목의 의미는 오늘날도 중요한 덕목으로 이해되고, 규율과 지혜로 순종을 강조하여 엄격한 공동체와 금욕 생활의 강조로 형성하여, 내세 삶의 준비와 성직자 양성 및 문자.수공 훈련이 목적이었다. 라틴어로 인문 교육의 기초와 7개의 교양과목을 교육의 내용으로 하여, 후에 교육 혁명의 원조가 되었으며, '도제제도'와 문답식 및 명상과 묵상의 상징주의 교육 방법과 연극을 통한 교육방법 그리고 건축을 통한 의미의 상징주의 교육 방법이 있었다. 또 헬라철학을 기독교 진리에 적용, 종교적 권위를 상실해가는 시대에 신중하고도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고를 갖고 새로운 정신사상과 세계를 탄생케 한 스콜라 신학의 발달은 실재론과 유명론의 대립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스콜라 신학은 대학과 같은 교육의 발달을 가져오고 대학은 어떤 권위에도 굴하지 않고 자치적.독립적.자율적 성격의 교육기관으로 다양한 권리와 제도적

---

34)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5년 10월호), pp. 37-38.

행사 및 학위제도가 있어서 오늘의 전형적인 대학의 모델을 만들어 주었다.

지적.영적.사회적 훈련의 서적 중심적 교육인 바, 라틴어로 종교의식을 배웠고, 기사도 교육으로 사회적 훈련을 배웠으며, 非학교 교육으로 직공교육(職工敎育)이 있었다. "오늘의 대학 구조와 관습과 학위수여에 유사점과 高수준 학문의 소유자를 존경하는 유사점, 학문의 세계적 성격과 전문화된 교수의 학문적 연구, 권력을 시민의 힘으로 만들게 하는"등을 시사한다. 종교.사회적 논리와 신앙적 이성과 완전한 선을 중시했으나 오늘의 교육은 논리가 후퇴하여 논리와 이성은 삶의 목적이 되고 목적자체를 추구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조명과 이성의 발견은 도전과 긴장을 낳아 교회와 세상을 잡음과 위기로 몰고 갔지만 십자가의 예수만이 자기희생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근세의 교회 교육의 특성은[35] 르네상스와 인본주의 교육이 싹트고 종교개혁과 산업 혁명이 일어나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됨에 따라 인간사회가 급속히 변화하여 이성을 앞세운 이른바 세속화 사회가 등장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원전 연구와 기독교 인본주의'가 태동, 교육적 공헌자들의 기독교 교육은 성경중심 교육으로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가져왔으나 교회의 교육의 직무와 교육자 권리 및 제도적 정교 분리의 원칙을 수락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에의한 도시화. 분권화로 교회학교 교육이 변화되었다. 새로운 민간 단체들이 설립한 다양한 학교들이 출현, 민중들의 기초 언어 수리 교육과 종교훈련 및 시민적 기초 교육을 훈련, 졸업생들은 상급 교육기관에 진학을 하는 등, 점차 교회 학교의 교육적 능력을 감소시켜갔다. 여기에 대응하고자, 정통주의 교회교육에서는 카테키즘교육으로 암기와 암송을 시키고 전통을 고집했다.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경건주의 교회교육은 '스페너'가 적극적인 성서연구와 자발적인 전도 운동, 실천적 신앙과 수용

---

35)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6년 5월호), pp. 64-68.

적인 태도, 학문적이고 실제적인 성직자 교육, 단순화되고 실제화된 설교를 제시했다. 모라비아교도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철저했고, 신앙적 회심을 위한 교육을 실시 했으며, 자선적인 학교교육을 실시했다. 합리주의적인 교회교육은 근세사회가 몰고 온 세속적 사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재해석하는 교육으로, 세속세계의 내재성들이 기준이 되는데 19세기 '종교 교육 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외에도 주일학교 등 각종조직과 단체가 결성되고 부흥발전되어 교회교육의 성장 발전도 가져왔으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현대의 교회교육의 특성은 계속해서 각종 조직과 단체와 기관과 교육제도들이 형성되고 사용되어오나, 일관성과 통일성을 상실해 세속화의 영향과 날로 발전해가는 사회의 다원화와 동질문화의 형성, 급속한 현대의 과학기술 물질문명의 발전은 교회 교육을 앞지르고 있다. 세속적 인문주의와 실용주의 교육발전은 교회교육을 필요없게 만들어 교회교육의 전략성 부족 및 제한성에 더이상 발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새로운 21세기의 교회교육의 형성을 바라보게 되었다.

새로운 21세기의 기독교 교육은 급격한 과학 기술 문명의 발전과 변화 속의 불확실성 미래 사회에서 새로운 부정적인 인간 가치의 형성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복음주의 르네상스와 신앙과 미래주의 교육" 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벌써 세속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정보통신의 발달로 변모해 가는데 교회는 변화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교육적 파행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보화 사회가 형성되고, 인간 세계가 전자.정보화의 조직을 갖추게 되면 인간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부정적인 인간 사회의 형성이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래 학자들은 미래 사회의 인간화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낙관하고, 낙관주의적 긍정론을 펴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인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는 '복음주의 르네상스와 미래주의 교육'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21세기의 新기독교 교육으로 자리잡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기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5. 敎會 敎育의 經營 管理

여기서는 초대 교회의 교육 경영 관리를 돌아보고 오늘의 교육 경영 관리를 점검한다음 미래 교육의 경영 관리 차원에서 그 문제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초대교회의 교육적 경영 관리[36]

사실 교회에서 경영 관리라는 언어 사용은 크리스챤들의 정서 상 생소한 이론이다. 그러나 미래적인 교육적 차원에서 이러한 논리들도 수용하여 교육의 경영관리를 보다 철저히 개발하여 발전 시켜야 한다고 본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교육 혁명적 성격이 근거한 만민주의적 신앙과 새로운 가르침들과 평화로운 세계의 지배와 '너'에게로의 관심의 전환을 표방으로 '헤겔'의 말대로 '정신의 원심적 추동을 활성화하는 교육'의 새로운 교육시대의 문을 열게했다. '말씀과 삶의 일치 교육'차원에서 예수는 온전한 교사의 표상으로 '소명의식과 학생애와 내용적· 방법적 지식'을 갖추고 '변증법적 교수형식'(말씀과 생활로 교육)으로 가르쳤고, '공동체 교육'차원에서 '소수자를 선택하여 그들과 생활 공동체를 이뤘다. 이를 통해 개개인이 전세계를 복음화 할수있는 공동체 교육형식'과 '두사람 이상이 이세상

---

36) "본 논문, 제3장. 초대교육의 예수교육"(pp. 55-65.)부분 참조. * 예수와 사도들의 교육적 특징들을 교육 경영관리 원리로도 말할수 있음.

에 한마음으로 예수이름으로 결속된 기도의 공동체의 성립조건'과 '공동체 교육의 단계들로 절대 동등권 인정· 상이성의 인정으로 용납성의 원리· 감정이입의 용서와 화해의 원리· 개방성과 발전의 원리로 자아주장의 포기· 믿음의 결속의 원리· 두 사람이라는 복수의 형식'이 지금까지 교육의 형식과 통로로 확인되고 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예수의 교육들은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조 안에서 회랍과 로마의 정신세계와 히브리 종교세계위에 세워졌으며 복음의 빛아래서 '다락방 사건'(눅22:12ff,행2:1,46,12:12)으로 사도들에의해 교육공동체가 탄생된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4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가르침· 교제· 하나됨과 나눔· 기도'로서 사도시대는 성서교육과 성찬식과 공동체 모임과 가정교육이 주류를 이뤘다. '교육 교회'는 어느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교회자체의 하나님 교육기관이었다. 이는 개체교회로서 신앙공동체와 회중과 하나님의 백성 전체로서의 교회로, 지역적· 사회적 특수성과 교육공동체로서 구원의 통로이며, 이것은 초대교회 교육의 본질적 원리로 로마와 중세와 근세에 이르는 교육형식으로 존속되어 교인생활을 지배해 왔다.

사도들은 '사도의 직분으로 교육적 지도자요 관리자로서 교회교육의 적극적인 역사적 주인공들이며, 예수와 함께 한 자들로 특징을 갖고, 바울의 회랍적 언어와 문화로 지배계층의 이해가 가능한 전도중심의 교육, 카리스마적 교회직분과 섬기는 직분'으로 교사적 교육을 수행했다.[37]

이러한 초대교회는 교육제도의 탄생을 보게 되는데, 유대 신자들의 구약적 율법중심 생활을 복음적 新신앙으로의 개조와 이방신자들의 특별교육이 일정한 형식과 제도를 갖춘 제도적 교육이 필요하여, 이방인 대상의 '세례 준비 학교 교육'이 탄생되고, 이러한 교육은 '회생적 신앙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대화와 문답식 교육으로 오늘의 교회에 입교자와 세례 후보

---

37) 상게서, p. 61.

생 교육의 반성을 주고'있다. 발전하는 희랍문화에 대응코저 고도의 지식을 갖춘 성직자가 필요하여 '교리문답학교'가 출현 다양한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교회교육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여 '교권주의와 형식주의로 대치하는 오점도 남겼지만, 복음적 기독교의 세계화도 이루어 인간평등 사상을 정립하여 이러한 교육적 차원'은 오늘의 교회교육적 과제와 문제로 확인된다.[38]

초대교회의 가정교육적인 '도덕교육의 가훈(엡5:22-6:9, 골3:18-4:1)과 악행및 선행의 목록(고전6:9-10, 갈5:19-24, 벧전2:18)은 사회윤리적 성격'으로 '주안에서의 교육과 기독교적 도덕행위의 강조와 가르침'으로 현대교회에도 도덕교육의 과제적 교훈을 주고있다.[39]

2) 교회 교육적 경영관리의 문제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교육적 사항들을 살펴보고 오늘의 교회 교육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바를 점검 해왔다. 새로운 21세기를 낙관론자들은 이상사회로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부정적이다. 분열과 통합의 이중구조와 이데올로기의 종식과 세계적 방향성 상실이 미래 사회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지금의 교육적 구조로 미래사회에 진입한다면 적응력을 상실, 토플러의 말대로 '미래충격'에 걸려 교육의 방향성 마저 상실할것이다.

새로운 환경 변화로 전통적 가치관과 신념이 붕괴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사회현상들이 출현, "임시성과 일회성"이 발달하고, 교회는 "개교회주의 퇴조와 에큐메니즘이 발달하고, 평신도의 사역이 극대화되고, 조직교회에 대한 반대와 영성의 부활이 증대 되며, 선교의 통전적 이해와 디아코니아의 발달과 여성의 교회 정치 참여의 증대와 교회 마케팅

---

38) 상게서, p. 62-64.
39) 상게서, pp. 64-65.

의 발달"이 미래 교회에 나타날 특징들이다.[40]

그래서 교회 교육은 다음과 같은 경영관리의 문제들을 가지게 될것이다.

(1) 국경없는 시대의 선교론적 교육의 문제로서 교회는 이때를 호기로 삼고 최선의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41]

(2) 제자화 교육에서 사도화 교육으로 전환인데, 지금까지의 제자화 교육을 사도화의 교육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교육적 성장의 전기가 마련 될것이다[42].

(3) 교육의 네트워크 형성화로 교육기관과 교육자가 네트워크를 활발히 하여 교육의 전문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43]

(4) 평신도 사역의 극대화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적 패러다임에서 평신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44]

(5) 성직자 교육의 정립으로 '계속 교육'을 정규화하는 것은 이 격변의 시대에 책임있게 교육하는 성직자의 기본으로 '우주적 유기체 회복을 향한 영성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계속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장치를 하여 자질을 향상시킨다.[45]

(6) 교회학교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 총력 경주로 '다문화 수용의 교회학교와 교회 교육의 전문성'이다. 교회교육 현장은 지나치게 비전문적이요 폐쇄적이요 암기식 그대로 이다. 기독교 교육의 적격자가 교육에 임해야하고 방법론과 교육환경과 교육의 도구를 일신해야 한다.[46]

(7) 기독교 대학들은 21세기 생존전략을 위해 세속사회의 전분야에 걸

---

40) 기독교 사상,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6년 7월호), pp. 10-16.
41) 상게서 7월호, pp. 21-22.
42) 상게서, p. 22.
43) 상게서, p. 22-23.
44) 상게서, p. 24.
45) 기독교 사상,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6년 6월호), pp. 273-276.
46) 상게서, pp. 275-276.

쳐 함께 연구하고 살아남아야 한다.[47]

(8)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흥하는 교회로서 교회연합 차원의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하고, 멀티미디어에 대한 학문적(신학적)고찰과 성직자의 재교육과 신학교육의 커리큘럼 조정, 교회의 자기갱신은 개혁하는 교회로서 꾸준히 자기갱신과 미디어개혁, 사회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48]

(9) 21세기의 방향을 잡아주는 종교는 "종교자체의 재건과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고, 정신과 사고의 지도력 역할을 하고, 연결망 시대의 협력자로서 미래비전 제시와 창조적 '텔레파워'의 활용, 민주적 행동의 추진과 분배 정의와 공평성을 제시하고, Edutainment와 Edugames의 정신교육'을 가져야 한다.[49]

(10) 따라서 21세기를 대비하는 교회 교육의 경영 관리의 문제에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답게 사는것을 실천' 하기위해 "생명존중과 가치관의 제시, 미래형 관리능력의 향상지원과 기동성과 문제해결 능력, 전지구적 연대와 사고로 제시하고 인도해야 한다."[50]

---

47) 상게서 3월호, pp. 71-72.
48) 기독교 사상, (서울 : 대한 기독교 서회 1996년 2월호), p. 41-43.
49) 기독교 사상,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7년 2월호), pp. 127-129.
50) 상게서, pp. 130-133.

V. 要約 과 結論

본 논문은 교회교육의 변천과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여러 문헌들을 수집· 연구· 분석, 변천과 특성등을 탐색하고, 교회교육의 미래적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에 요약과 결론사항은 다음과 같다.

1.要 約

첫째, 교회교육의 성립배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 하였고, 종교적 도덕적 교육 공동체의 문화유산을 형성, 가정과 회당 및 학교에서 각 교육 주체들에 의해 율법과 전통이 교육되어지고, 그 후손의 위대한 교육자 예수탄생으로 마침내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교육이 성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둘째, 교회교육의 변천은 히브리시대와 유대인시대와 초대교회 시대를 고대 교회교육으로 시작, 중세와 근세교회 교육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른다

셋째, 히브리교육은, 가정중심의 개개인 아동과 성인교육으로 히브리어 기초 교육과 경전의 정경화, 예언자 직무는 교사와 봉사로 야훼사상과 이스라엘 사명· 백성들의 위로와 책망을 가르쳐 오늘의 교육에도 시사한다.

유대교육은 “토라의 율법교육과 지혜교육은 회랍사상과 결합, 토라는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교육, 하나님 중심 가정교육’으로 부모는 교사로, 토라(율법)을 교재로, ‘종교와 도덕과 관습및 직업훈련을 교육, 신앙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 학교교육은 아동들에게 일찍이 거룩한의식, 관습, 공·사적 기원과 의미를, 서기관 학교 율법교육은 찬란한 유대교 문화를 낳게했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혁명적 교육에 의해 “만민주의 신앙과 新 福音의 가르침”은 열린 신앙의 세계화를 창조, “敬天愛人”적 성경과 삶의 일치교육

과 변증법 교수형식의 공동체 교육, "인간 절대 동등권과 화해와 용서의 원리와 개방성과 신앙의 결속"으로 사도들을 교육, 교회교육 공동체를 "가르침과 교제"로 지적· 영적· 정신적· 육체적 생활교육을 시켜, 지도자와 교사로 기독교 세계화에 복음을 현재화, 후에 "세례준비학교(이방인을 교육)"의 "입교자와 세례후보생 교육", 희랍문화에 대응 "교리문답학교" 일반학문과 성경및 교회학문들을 교육, 고도의 지성적 교부들을 배출, 인간평등 사상과 기독교 복음을 세계화하여 현대의 과제와 문제로 인식되며, 도덕교육은 오늘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권위와 강한 구속력을 갖게 한다.

중세시대는 수도원 교육의 "청빈과 정결및 순종의 3가지 덕목"은 오늘날도 중요한 덕목이며, 수도원은 다양하게 발전 엄격한 공동체의 유래와 금욕생활를 강조, "명상과 묵상 교육", 상징주의 교육, 스콜라 신학교육은 오늘의 대학교육에 다양한 면을 시사한다.

근세교육은 개인주의와 신비주의, 성경원전 연구와 기독교 인본주의가 태동, 기독교 인본주의자들과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출현 공헌하나, 세속화 현상으로 교회교육은 그 역할을 차츰 퇴색한다.

현대교회 교육은 교육제도가 일관성과 계속성을 상실, 날로 성장하는 세속주의와 일반 학교교육에 더 이상 효율적 교육전략의 부재로 교회의 전통과 주장이 붕괴, 시대적 위기감을, 교육자들은 역사를 탐색하고 효과적인 교육전략을 연구, 새로운 미래교육을 모색하고 있다.

네째, 교회교육의 특성은 고대 이스라엘의 선민 신앙적 율법교육과 초대교회 예수와 사도들과 교부들의 희생적 사랑의 순교주의 교육이 중세에는 금욕주의로 변질, 오늘날까지 복음과 신앙적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회교육의 목적은 "神의 뜻을 찾는 교육", 내용은 "말씀과 가르침", 교육방법은 "새로운 방법", 교육경영 관리는"초대교회 경영관리를 미래시대의 교육경영 관리로 새롭게 재창조· 지구의 구원"을, 새롭고 미래적인 "복음주의 르네상스와 미래주의 교육"으로 해야한다.

2. 結 論

첫째, 교회교육의 성립은 예수가 유대인들의 종말론적 사상을 배격하고 기독교 신앙을 세계화· 개방화하여 혁명적으로 재창조한 것이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관과 민족적 사상은 부정되고 개혁되었다.

둘째, 예언자 교육에서 도덕과 사회정의를 위해 가르치고 예언을 하였던 교육적 풍토가 오늘날 예언자라하는 자들이 동양 무속신앙적 풍토로 왜곡시킨 점이다. 예언은 성경적· 복음적· 기독교적으로 해야한다.

셋째, 초대교회의 입교자와 세례후보생 교육에서 일정한 제도의 틀과 형식을 갖춘 교육속에 회생적 신앙의 전통을 낳았다. 오늘의 교회도 이러한 교육을 충분하고 철저히 수행하여 회생적 신앙이 되어야 한다.

넷째, 초대교회 도덕적 가정교육의 가훈· 악행· 선행 목록은 신앙공동체의 공동생활과 새로운 윤리도덕적 규범으로 오늘의 교회는 이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미래의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켜 계승해 가야 한다.

다섯째, 중세 수도원 교육에서 "청빈· 정결· 순종"의 3가지 덕목을 오늘날 교회가 계속 음미하고 발전시켜 가야 할 과제요 신앙의 원천으로서 미래 교육의 덕목으로 재창조하여 가도록 인식하고 다져 가야 한다.

여섯째, 교회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교육", 내용은 "말씀과 가르침", 교육방법은 "새로운 방법", "초대교회의 순교주의 신앙적 특성"으로, "21세기의 新 교육경영 관리"를 이룩해야 한다.

일곱째, 21세기 인류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수평적 이동의 패러다임으로 급격한 사회변화가 일어나, 교회교육도 변화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앞에서 바른 인간의 형성"이라는 문제를 갖게된다.

3. 提言

따라서 "복음주의 르네상스와 미래주의 교회교육"을 제창한다. 복음주의

르네상스 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위한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희생적 사랑"과 "초대교회의 신앙적 권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일종의 "교회교육의 개혁운동"이다. 새로운 21세기는 기독교 안에 전통적 신앙과 문화가 붕괴되고 다양성과 단회적 임시성이 상존함으로 새로운 "성서적· 복음적· 기독교 교육"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새로운 21세기 형 미래 교회가 창조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 "하나님과 이웃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21세기 형 새로운 사고와 가치관과 인간창조",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며, 미래형의 관리능력의 향상 지원과 기동성과 문제해결 능력, 지구적 연대와 사고"로 교회가 사회의 길잡이가 되어 스스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여 21세기는 분명하게 사회가 갈길을 제시하고 인도해줘야 한다. 즉 "미래형의 新 福音主義 新 信仰"을 가져야 한다.

두번째로 "미래주의 교회교육"은 "21세기의 전자· 정보화· 지식사회"에서 "인간문제"에 교회는 의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미래 교회교육적 구조변화는 지금까지의 역사적 방법의 교회교육의 구조로 미래사회에 진입하면 적응력을 상실하고 "토플러"(Alvin Toffler)의 말대로 "미래 충격"에 교회교육의 방향성마저 상실, 교회교육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의 변혁(paradigm shift)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교회는 『에큐메니즘의 발달, 평신도 사역의 극대화, 조직교회에 대한 반대와 영성의 부활, 선교의 통전적 이해와 다이코니아의 발달, 여성의 교회 정치참여의 증대, 교회 마케팅 발달"의 특징』들이 예상되므로 교육은 『국경없는 시대적 선교, 제자화 교육에서 사도화 교육으로, 교육의 네트워크 형성, 교회교육의 전문성, 평신도 사역의 극대화』로 교육의 세계화 재창조에 20세기 말의 교회는 21세기의 물결을 이해하고 새로운 적응력을 갖춘 교회교육이 되어야 할것이다.

參考文獻

1. 김거성, “멀티미디어 시대와 교회의 대응”, (기독교 사상,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6년 2월호.
2. 김근수, “요약 기독교 교육사”, (교사의 벗, 서울: 한국 기독교 교육 연구원), 1979년 1월호부터 - 1982년 4월호까지.
3. 김상근, “21세기, 인간의 반동과 하나님의 구원사, 그리고 교회”, (기독교 사상,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6년 6월호.
4. 노정선, “21세기 신앙 생존 전략 (기독교 대학은 죽을 것인가)”, (기독교 사상,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6년 3월호.
5. 맹용길, “21세기의 종교와 사회의 방향”, (기독교 사상,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7년 7월호.
6. 박근원, “컴퓨터 세대의 그리스도의 교육”,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86년 7·8월호.
7. 손승희, “2000년대를 향한 기독교 교육의 비젼”,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80년 9월호.
8. 오인탁, “기독교 교육의 역사”,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87년 7·9월호부터 - 1988년 6월호까지.
10.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기독교 사상,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6년 7월호.
11. 이병렬 저, 에레쯔 이스라엘,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0.
12. 장종철, “기독교 교육 사상사”,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0년 1월호부터 - 8월호까지, 10월호부터 - 12월호까지, 1991년 7월호부터 - 10월호까지, 1992년 1월호

13. 정웅섭, “기독교 교육사”,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75년 6,9,10,12월호부터 - 1976년 1,3,4,5,6월호 까지.

14. Briseoe D. Stuart, “Taking God Seriously” (이용태 역, 선지자가 본 하나님,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3.

15. Drane John W., “OLD TESTAMENT Faith” , (Publised by Lion Publishi Lcknield Way, tring, Hert, England), (이종수 역, 구약 신앙,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서원)1989.

16. Eavey C. B.(김근수 · 신청기 역), 기독교 교육사, 서울: 한국 기독교 교육 연구원 1995

17. Freedman David Noel & Smart James D., “GOD HAS SPOKEN ” ,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이희숙 역, 구약성서 이해의 요점, 서울: 종로서적)1993.

18. Gangel Kenneth O. & Benson Warren S.(유재덕 역), 기독교 교육사,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2.

19. Gonzales Justo L.(서영일 역), 중세교회사, 서울: 은성 출판사 1990.

20. Martens Elmer A., “GOD DESIGN” , (Inter - Varsity Press), (김의원 역, 하나님의 계획, 서울: 아가페 문화사) 1992.

21. Renwick A. M., “The Story of Church” (오만규 역, 세계 기독교회사, 서울: 보이스 사 1990.

22. Schultz Samuel T., “THE OLD TESTAMENT SPEAKS” , (송인규 역, 구약총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23. Sherrill Lewis Joseph(이숙종 역), 기독교 교육의 발생,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4.

24. Towns Elmer L.(임영금 역), 인물중심의 종교 교육사,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3.

25. Wood Leon J., "The Prophets of Israel", (copyright 1979 Baker Bood House Company Seventh printing, December 1987), (김동진 역, 이스라엘의 선지자,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1)

26. Eavey C. B.,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64.

27. Gangel Kenneth O. & Benson Warren S., Christian Education: Its History & Philosophy, Chicago : Moody Press 1983.

28. Sherrill Lewis Joseph,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44

29. Towns Elmer L.,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Michiga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5.

Abstract

A Study on the Evolution of Church Educ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Park, Yeong-Tae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s of Public Administration

Han S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quire into the evolution of church educ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For this purpose, an attempt was made to collect, investigate and analyze the relevant literature, explore the evolution of church educ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and grope the future developmental direction of church education. As a result, both conclusion and suggestion were made as follows:

I. Conclusion

Firstly, the establishment of church education was intended to exclude the Jewish eschatological thought by Jesus and recreate Christian religion in a revolutional fashion by globalizing and opening it. Here, the Jewish wrong religion-view and national thought was negated and reformed.

Secondly, the educational climate in which prophets thought and prophesied for the sake of morality and social justice in prophet's education has been transformed into the oriental shamanistic religious climate by self-styled prophets nowadays.

Thirdly, education of the initiation of the First Church and the candidate for baptism gave birth to the tradition of sacrificial religion in education complete with a framework and the nowaday church should strive to give birth to sacrificial faith by carrying out this education fully and thoroughly.

Fourthly, the list of family precepts, bad conduct and good conduct in the moral home education of the First Church was at once the norms for the communal life of the religious community and new ethical and moral norms.

The present church should reinterpret this to suit the present-day situation and proceed to develop and succeed to it in a new and forward-looking direction.

Fifthly, seeing that three virtues such as "Honest poverty, chastity and pureness obedience" in education of the Medieval monastery were alkie the task and religious source that the church today will have to continue to interpret and develop, it should understand and solidofy them by recreating them as the virtues of future education.

Sixthly, the purpose of church education should be the "education seeking God's will", its content be "god's words and teaching", its

educational method be "a new method". In this respect, the new educational management of the 21th century should be achieved with the "martyrish religious characteristic"

Seventhly, as the 21th-century humankind society will experience drastic social changes due to the paradigm of horizontal shift day by day, human beings come to have the problem of the "correct image of man before God" in an age of positive and negative uncertainty.

2. Suggestion

Accordingly, this study advocated the slogan of "evangelistic renaissance and futuristic church education". In an uncertain age, Jesus Christ came to this world as man, taught people with new evangels, shared his lot with poor, sick, distressed and alienated neighbors and tax collectors and sinners isolated from society and branded as bad people, loved them and sacrificed himself for them. The life of Christ as man loving people on this world by doing so should again apply to society, people and church in the 21th century. With new 21th-century type of "new thought, value-view and human creation focused on Heaven worship and human love", the church should have respect for human life and present a new value-view. And with the improvement and support of future-typed management ability, mo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and global solidarity and thinking, the church should choose the direction for society to proceed itself, clearly present the way for society to go and guide it in a right direction. That is, the church should have the

"furture-typed new evangelism and new religion".

Secondly, the church cannot survive unless it actively copes with the human problem so as to build the utopian society through "futuristic education" in the knowledge-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of the 21th century.

Therefore, church education is requiring a new shift in educational paradigm. Consequently, it is predicted that the future church is characterized by the development of ecumenism, the maximization of the ministry of lay believers, the increase of women's participation in church politics, and the development of church marketing. So, church education should be transformed from the borderless missionary work of the times and education for making lay belivers disciples to education for making lay believers apostles, form the educational network, seek the specialism of church education, and maximize the ministry of lay delivers. Church education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will have to be church education equipped with the power to understand the wave of the 21th century and adopt to changing society. Crisis is an opportunity.

When changes are seen and discerning wisdom is retained, future education will result.